Buddhanews.com

현대불교

제829호 2011년 3월 30일 수요일 (음력 2월 26일 · 불기 2555년 · 주간)

참된 화두 받아 실다운 의심으로 일념에 들다, 일거수일투족 '참 나' 찾는 화두 들어 대오견성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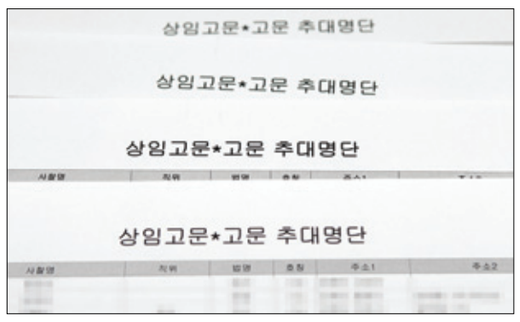
- 대구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

명단 정말 있었다

본지, MB선거캠프 불교계 고문 추대 명단 입수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 조계종 지도부를 포함한 스님 380명이 상임고문 등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명단 공개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이와 함께 명단의 진위 여부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월 22일 본지는 한나라당 전 당직자를 통해 이메일로 명단을 입수했다. 명단은 엑셀(excel) 파일로 취합용과 보고용으로 시트가 나뉘어져 있다. 명단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선거캠프인 '747불교지원단(단장 조문환)'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에는 원로의원, 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집행부를 포함한 조계종 스님 152명을 비롯해 태고종(30명) 천태종(11명) 진각종(13명) 관음종(8명) 총지종(7명) 종정협(74명) 등 다수의 종단 관계자가 포함돼 있다.

명단대로라면 김영국 위원의 "380명 가운데 현재 조계종 집행부에 있는 스님도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었다. 명단에는 제33대 집행부 스님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본지는 민족문화수호운동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계종 집행부가 포함된 명단 공개 시 파장 등을 고려해 실명공개에 앞서 명단의 작성 경위, 진위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 중이다.

확인 결과, 명단 속의 스님들 대부분은 선거캠프 고문직을 수락했는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언급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 흠집내기 등 정치적 음해설을 주장하는 스님도 있었다.

말사주지인 한 스님은 "대선 때 유선 상으로 들은 기억은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왜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명단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천인도 마찬가지였다. 명단에 조계종 스님을 직접 추천한 것으로 기록된 한 불교계 인사는 "언급하고 싶지 않고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일축했다.

리스트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던 김영국 운영위원은 리스트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다는 입장이다. 김 운영위원은 "리스트라는 게 나오면 과거 다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들 발뺌하고 그러다가 세월 지나면 진짜로 밝혀지고 하지 않는가?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날조라고 하지만 추천자의 실명까지 있는 명단이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직접 명단의 스님들을 만났다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조계종150명·태고종 30명 등 실명 확인
명단 진위·공개 여부 두고 의견 엇갈려

그러면서도 김 운영위원은 "고문으로 활동한 스님들이 정부로부터 특혜나 혜택을 받은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 조계종이 (정부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며 "예산 지원 여부 등을 파악해보면 보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의 핵심관계자는 명단이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와 조계종을 흠집 내기 위해 자의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음해 가능성과 명단의 진위를 의심했다.

이 관계자는 "추천인들이 스님들을 직접 찾았다고는 하지만 '열심히 해라' 하며 덕담한 것이 'OK' 싸인으로 오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단이 공개되자 교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누구의 손에 의해 작성됐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위 논란은 거세지고만 있다.

명단에 기록된 한 스님은 제32대 집행부의 요직을 지내며 민주당 측과 친분이 두터웠다. 또 다른 스님도 종단에서는 노무현 대통령통으로 통하던 스님이다. 때문에 다른 스님도 아닌 이 두 스님이 한나라당 측 MB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명단은 누군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작성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하지만 명단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번 기회를 진정한 자정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것이 교계의 중론이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만초)는 24일 '종단 지도부는 MB 선거캠프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중결사는 "출가자의 선거캠프 참여는 정치적 행위로서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일이며,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봉사자·수행자로서 언행에 대중의 사표가 될 것을 요구받는 승려의 위의에도 어긋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도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이를 결사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지난날에 대한 참회가 뒤따라야 한다"며 "승가의 거룩한 전통인 자자에 따라 참여 의혹을 받고 있는 스님들과 종단 지도부는 자신의 입장을 진실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명단은 공개돼야 하며, 실상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단 공개가 불교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가불자는 "종교인은 악이든 선이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든 필요하다면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종교인"이라며 "명단을 공개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 박기범 기자



100일을 한마음으로 조계자 주지 토진 스님이 '민족문화 수호 100일 정진 회향 및 자성과 쇄신 결사 입재법회'에 앞서 일본 대지진 피해 희생자를 위한 영가 축원을 올리고 있다. 조계사에서 3월 23일 열린 이 날 100일 회향은 종앙종무기관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과 조계사 및 봉은사 신도, 포교·신도단체, 불교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대거 참석했다. 100일 회향에서 자승 스님은 법문을 통해 "자성과 쇄신 결사의 제안은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이 사부대중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국민과 사회를 향해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음을 종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박기범 기자 사진 = 박재완 기자

간화선·위빠사나 고우·파욱 스님 4월 8~10일 한자리서 만난다

간화선 수행자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前 전국선원수좌회 대표)과 위빠사나 수행자 미얀마 파욱 사원 조실 파욱 스님이 만난다.

조계종 선림원(원장 토진)과 전통불교문화원(본부장 혜오)은 4월 8~10일 충남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만남과 소통'을 주제로 국제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는 첫째날인 8일에는 파욱 법문과 위빠사나 체험, 9일에는 고우 스님 법문과 간화선 수행문답 등을 갖는다. 10일에는 고우 스님과 파욱 스님의 대담이, 12일 오전 11시에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법문이 진행된다.

국제연찬회 참가희망자는 전통불교문화원 홈페이지(www.budcc.com)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조동섭 기자

현대서 구현해야할 불교적 가치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는 3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현대사회에 구현해야 할 불교적 가치'를 주제로 5대결사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이 발제자로 참석한다. 토론은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 박광서 서강대 교수, 박희택 불교아카데미 원장이, 사회는 박경준 동국대 교수가 맡는다.

토론회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생중계 되며, 누구나 인터넷 댓글을 통한 실시간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02) 2011-1810 조동섭 기자

829호 CONTENTS

▶2 종합
통도사, 자정과 정체성 회복 위한 결집대회



▶5 현장속으로
초조대장경 복원 봉정식



▶7 동국대 제2 건학 본격화
세계 100대 대학으로



사 고

내 마음 속에서 발견한 부처님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당신의 잊지 못하는 부처님오신날 이야기가 있나요? 즐거웠던 이야기, 힘들어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의 재미나거나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립니다.

주제: 부처님오신날 관련 이야기나 수행을 하면서 만난 부처님
응모자격: 누구나
응모기간: 2011년 4월 1~30일
분량 · 형식: A4용지 2매 내외(한글hwp, 글씨크기 12point)
접수방법: 이메일 hyunbul@gmail.com
***응모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함께 기재**

응모작 중 봉축 특집호에 게재된 분에 한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02)2004-8252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200여개의 곳이 법과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민족문화수호 100일째 '제자리'

구호와 의지만 범람… 부실한 실천 계획 속 자성과 쇄신 의지 의문

조계종이 야심차게 추진한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가 100일 회향을 맞았지만 여전히 구호뿐인 말잔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3월 23일 조계사에서 '민족문화수호 100일 정진 회향 및 자성과 쇄신 결사 입재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계종은 1080배 정진을 시작으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법문과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종단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자승 스님은 "민족문화 수호 활동은 지극히 현실적인 종단의 해결 과제이다. 임기 동안 꾸준히 추진해 3년 후 종도 여러분과 축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5대 결사 실천지침은 100일 전 신년 담화문 발표 때 제시된 5대 결사 주요내용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행결사에서는 여법한 수행을 위한 제도정비, 현대 사회에 맞는 수행과 신행 문화 제시 등이 제시됐다. 문화결사에서는 종단 자주권 확립 위한 제도 개선, 재적 사찰 문화재 보호 등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생명결사에서는 에너지 10% 절약 실천, 빈그릇 운동 생활화, 나눔 결사에서는 기금 마련과 제도 정비, 사부대중의 1% 나눔 운동 생활화가 제시됐다. 평화 결사에서는 종교간 화합, 이주민 문제 해결, 남북 평화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승 스님은 신년담화문에서 교구별, 지역별 민족문화수호위원회를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결사 운동의 의지와 각 분야 스님들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제시된 5대 결사 실천 계획은 진정으로 불교계의 지혜가 모아진 결과물인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가 100일 정진 회향을 맞았지만 25개 교구 본사 중 교구본사별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를 마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7곳에 불과하다. 4월 중 8개 교구가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를 예정 중이다. 일정을 논의 중인 곳도 6곳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5대 결사 실천 방안은 부실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의대회를 마친 교구들도 결의 이후 뚜렷한 실천 행동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를 마친 교구들의 말을 종합하면 "결의대회 이후 실천 사례로 제시할 만한 것은 없다. 추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우선은 총무원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순서다"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민족문화수호결의와 5대 결사 추진을 강조하면서도 이에 역행하는 행동을 보여 실천의지에 의문을 자아냈다.

3월 1일 불교를 포함한 4대 종단은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열기로 예정했다. 그러나 각 종단이 예정대로 4대강 사업 반대 기도회를 진행한 반면 불교계는 여러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관련기사 3면)

'생명 결사'에도 4대강 사업 반대와 관련된 내용은 전무하다. 대중공사 부분에서 '4대강 문제 톺아보기'가 포함돼 있을 뿐이다.

조계종은 또 민족문화수호를 외치면서 정부 예산 지원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불교계 내외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자연공원법이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조계종은 사찰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한 불사 심의를 강화하겠다며 '불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기획실장 원담 스님은 민족문화수호 100일 회향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 실천 과제를 발표하면서 "최근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찰들의 불사가 가능해졌다. 종단은 건축, 환경, 조경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불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재적 가치가 큰 불사를 비롯해 사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찰의 불사를 심의해 무분별한 불사를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개정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정안을 환영하며 환경부와 논의해 원만한 후속 작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이익은 챙기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하지만 총무원이 민족문화수호를 천명할 때부터 사찰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예산지원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돼왔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교 문화재를 스스로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 예산에 의존하면 안되며 자립자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교환경연대 지도위원 법응 스님도 "100일 회향에서 총무원의 내실 있는 자성과 실천 방안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러웠다. 관중석은 가득 찼지만 그라운드에서 뛸 선수는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박기범 기자



김영국 칼럼
前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

천주교의 참회

조계종은 3월 23일 총본산 조계사에서 자성과 쇄신을 통해 사회와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불교로 거듭날 것을 선언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우리 불교는 과연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얼마나 희망과 감동을 주는 존재였는지 겸허하게 되짚어보자는 것이 바로 자성과 쇄신 결사"라고 말했다.

자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근의 일은 천주교의 참회다.

최근 몇 년 사이의 천주교신자 증가 이유에 대해서 종교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지만 나는 2000년 3월 1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미사를 올린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날 천주교는 십자군전쟁, 마녀사냥재판, 유대인 박해, 여성 및 소수민족에 대한 과오, 인권침해에 대한 과오 등 교회가 저질러온 과거범죄에 대해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비는 미사를 올렸다.

천주교의 '회상과 화해'라는 제목의 과거 범죄에 대한 참회에 대해 독일 튀빙겐 대학 신학과 칼 요제프 쿠쉘 교수는 '혁신이 따르지 않은 사죄'라는 제목으로 비판을 가했지만, 교황이 나서서 과거 역사상 한때 기독교인들이 무자비한 수단과 행동으로 교회의 명성을 더럽혔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로 인해 천주교에 감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조계종이 자성과 쇄신을 통해 불교가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참회가 있어야 한다. 조계종은 자성과 쇄신의 실천과제로 1사찰 1복지시설 결연 봉사, 1불자 일 1회 1수행 등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불교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

왜 자성을 이야기하면서 일부 불교인들이 부처님의 명성을 더럽히면서 저질러온 과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과거에 어떤 스님이 오사카에 가서 수천만원을 도박으로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비정규직 젊은이들이 한달 내내 뼈빠지게 일해서 받는 돈이 고작 80만원이다. 일년내내 한 푼도 안쓰고 모아봤자 960만원이다.

정말 우리 불교는 참회할 것이 없는가?

박구원 만평



자승 스님, "불교 홀대 私心 때문, 公心 가져야"

통도사, 자정과 정체성 회복 위한 결집대회

"불교가 국민과 사회, 정치권으로부터 홀대받은 것은 사심을 갖고 사유화하고 욕심을 내왔기 때문이다. 원력과 신심뿐만 아니라 공심(公心)이 있어야 한다."

양산 통도사 3000여 사부대중이 3월 19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자정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결집대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공심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격려사에서 "사심(私心)을 가지고 사유화하고 욕심을 내왔던 것이 국민과 사회, 정치권으로부터 불교가 홀대받은 원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것이 자성과 쇄신 결사의 배경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2000만 불자라 하지만 불자라고 당당히 나서는 사람이 없다. 불교를 쉽게 여기고 홀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한목소리와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스스로 들여다보고 우리가 변화 하지 않으면 정체성 회복과 자정 결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정부의 무지 탓"이라고 지적했다.

정우 스님은 조선시대 표충사는 승병훈련소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했고,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통도사 법당, 천성산 내원사 등 81개 사찰이 소실된 사실을 설명했다.

스님은 "2000여 년 세월동안 아픈 시련 속에서도 우리 불교는 민족문화를 지켜왔다. 옛 글에 보면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무식하든지 무지하든지 하다고 했다. 우리불교는 대승보살도를 실천해야만 한다. 이는 총무원장스님이 제안한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결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가한 대중은 통도사 포교국장 정도 스님이 낭독한 실천지침을 통해 "수행결사 동참제자 등은 절 참배가 있는 날, 육식·음주를 금한다" 등의 수행, 문화, 생명, 평화 등 각 결사의 실천지침을 지킬 것을 다짐했다.


통도사가 자정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결집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이어 참가대중은 대회 후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된 통도사 적멸보궁 사리탑을 참배하며 한국불교가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신뢰받는 종교, 자성과 쇄신 결사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를 서원했다.

한편, 통도사 사부대중은 지진 대참사로 고통 받는 이웃 일본을 위해 1억5000만원의 성금을 마련해 1억원은 공익법인인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일반 모금 활동에 기부했다.

조동섭 기자

추 원효보살 열반 1325주기 추모대재 모

진리의 새벽을 여신 우리의 스승 원효보살 열반대재에 불자여 함께 모여 추모 합시다

일 시 : 불기2555(2011)년 4월 27일 오전 11시

장 소 : 원효보살 성상앞 (용산구 효창공원내)

증 명 : 벽송
지 도 위 원 : 창해, 해초, 혜담, 법성, 호성
봉 행 위 원 장 : 향운
봉행부위원장 : 운오
집 행 위 원 장 : 진산
집행부위원장 : 일륜, 도암, 효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601호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 : 02)735-0501 ~ 2 FAX : 02)736-3509

생명결사 말로만 '요란'

4대강 반대 기도회 저조한 참여 예상… 3월 1일 기도회는 불교만 불참



2010년 조계사에서 열린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에 참가한 1000명의 스님들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4대강 개발 저지 4대 종단연대회의'가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공동 기도회를 준비 중이지만 불교계의 참여가 미약할 것으로 전망돼 4대강 사업 반대의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대회의는 4월 8일 서울 광장에서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특히 각 종단들은 이번 기도회에서는 성직자들의 대규모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종단별 성직자 참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천주교와 원불교는 현재 각각 100명 이상의 성직자 참여를 예상하고 있으며 개신교는 200명 이상의 성직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는 3월 24일 현재까지 공동 기도회 참석을 밝힌 스님들의 숫자가 5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환경연대 명계환 조직국장은 "3월 말까지는 인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타 종단에 비해 참석 인원이 턱 없이 부족할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연대회의는 4대강 사업 4개 구간에서 종단별로 3월 1일 기도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날 기도회에 불교계는 내부 상황과 준비 기간 부족을 이유로 불참했다.

조계종은 2월 중순 경 연대회의로부터 3월 1일 기도회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조계종은 준비 기간이 촉박하고, 기도회 참석을 위해 연대회의에 참석해 온 불교환경연대가 최근 내부적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상황 등을 이유로 끝내 불참했다. 결국 3월 1일 기도회는 불교계가 담당하기로 한 낙동강 낙단보를 제외한 금강(개신교), 두물머리(천주교), 영산강(원불교)에서만 기도회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불교계 내부에서도 지난해 말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식적으로 밝혔던 조계종의 의지가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연대회의측은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앞으로의 연대가 지속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양재성 생명강 지키기 기독교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다른 종교에 대해 뭐라 말하기 어렵고, 불교계의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쉬웠다. 하루 빨리 내부 상황이 정리돼서 불교계 역할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불교 강해윤 교무는 "환경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역할과 능력은 모두가 인정한다. 4대강 반대를 위한 행동에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불교환경연대는 총무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각 사찰에 4월 8일 기도회의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내부적인 동력이 약해진 불교환경연대가 이번 기도회를 독자적으로 성사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총무원 사회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반대에 대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4월 8일 기도회에 많은 스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구본사에 공문을 보내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뇌 반쪽, 토안의 날개가 돼 주세요

통장에 달랑 5만4000원



베트남 이주노동자 토안(27)의 아버지 마이반데(52)는 움푹 들어간 아들의 머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몸부림치며 통곡이라도 하고 싶지만 눈물도 안 나온다.

토안은 경북 칠곡군 왜관 직물공장의 성실한 일꾼이었다. 2007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그는 한국에 올 때 빚진 2000만원과 베트남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를 악 물고 일해야 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번 돈으로 베트남에 돌아가 하고 싶은 일도 많았다.

2010년 7월 7일. 토안은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하던 차량에 충돌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운전하던 토안은 두개골과 두개저(頭蓋低) 밑 앞면 골절상으로 뇌의 절반가량을 제거해야 했다. 사고당시 엄청난 충격으로 기억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정신연령은 초등학생 수준으로 떨어졌다.

토안 아버지는 토안의 첫 수술 후 8월 아들 간병을 위해 한국에 와 있다. 한국 의술을 믿어 보지만 "확답을 주기는 어렵다"는 의사 선생님들의 말만 머릿속에 메아리친다. 사고 후 두개골 절제수술에 이어 1차로 함몰된 두개골 성형수술을 했지만 염증이 생겼다. 다시 두개골을 제거하고 2월 15일 두개골 성형수술을 재시도 했다. 하지만 1차 때 생긴 염증의 뿌리가 깊어 다시 지난 3월 두개골을 다시 제거했다. 재성형 수술을 할 때까지 함몰된 상태로 1년 정도는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다.

1차 수술 후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던 토안은 이주여성긴급전화 통역봉사자의 소개로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 마하붓다센터(대표 진오)에 머무르고 있다. 다행이 병원비는 보험처리하기로 됐지만 병원비는 병원치료를 다 마치고 난 이후 토안의 지능지수, 장애등급, 노동능력상실 정도 등의 등급에 따라 보험비가 지급된다. 한국에서 토안은 돈을 벌면 빚을 갚기 급했고,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든 생활비를 대고 나니 통장에 잔고는 5만 4000원 뿐. 앞으로 1년 동안 병간호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토안도 아버지도 막막하기만 하다.

마하붓다센터 대표 진오 스님과 박재수 센터장에게 병원에 명의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베트남에 두고 온 가족들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토안의 조부모와 어머니, 남동생이 있는 집에 지난 11월 화마까지 덮쳐 걱정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다.

토안의 사연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마하붓다센터 진오 스님이 토안을 돕기로 했다. 스님은 4월 23~24일 서울에서 열리는 108km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토안에게 희망을 전하기로 했다. 진오 스님은 마라톤 참가자 중 후원자 108명을 모아 1km마다 100원의 후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결코 토안의 고통에 비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스님은 작은 나눔이 큰 희망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농협 301-0078-2684-11 예금주 꿈을이루는사람들(토안을 돕기 전용계좌) 4월 1일~ 30일

이상언 기자

이나은 기자의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강남 '사랑의 교회' 기막힌 신축 공사

서울 강남 한복판의 공공도로를 막고 그 지하에 교회 예배당을 짓는 공사가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페이스북 부루나의 한 네티즌은 3월 24일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강남 사랑의 교회 기막힌 신축공사' 기사를 소개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담임목사 오정현)는 서울 대법원 맞은편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4번 출구 옆 너른 터에 '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SGMC)'라는 새 예배당을 짓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예배당 신축공사로 인해 공사장 서쪽 길이 165m, 너비 8m짜리 공공도로가 사라졌다. 교회 쪽이 공사장 왼편에 있는 '참나리길'을 차단하고 아예 공사장 터로 쓰고 있다"며 "참나리길 아래에는 지하 예배당이 들어설 계획이다. 내년 말 완공 예정인 이 센터에는 대지 면적 6782㎡(2051평)에 건물 두 채가 들어선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공공도로의 지하를 종교시설이 이용하도록 허가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공사는 서초구청의 건축 심의 등을 통과해 지난해 6월 17일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사랑의 교회에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과 김덕룡 대통령 특보가 신자다. 교회건축위원회에는 현직 감사원 고위공무원과 전 산업은행 총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부루나 회원들은 공공용지가 특정종교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S씨는 "이 기사를 보고 황당했다. 일반적으로 대형공사를 하면 자기 땅에 한정해서 건물을 지어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다반사인줄 알고 있다. 잠실 불광사도 불광사 소유의 토지에 법당 재건축을 하는데 이웃한 아파트 주민들이 고작 40여 대 수용하는 작은 주차타워를 놓고 교통대란 운운하며 문제를 삼고 있다. 불광사는 그 아파트 보다 수십 년 먼저 자리 잡은 사찰이었는데 날아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격이다"고 말했다.

이어 S씨는 "사랑의 교회는 아예 공공토지를 교회 건물부지 안으로 수용해 버렸다. 요즘은 토지의 지하권도 인정하는 추세로 전철공사에서 지하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저 교회에 수용된 지하공간은 분명 공공의 소유인데 어떻게 임의로 교회부지에 편입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당하게 문제제기 되어야할 대목 같다"고 주장했다.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가 성시화 운동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K씨는 "고위공무원과 정부 측근 등을 등에 없고 길 건너 대법원의 높이에 맞춰 지상 13층으로 설계했지만, 최근 14층으로 최고 높이를 교회를 우러러 보도록 변경했다. 입법부(국회-여의도순복음교회), 행정부(이명박 장로, 청와대 초청기도회), 사법부(대법원-사랑의 교회) 를 장악을 한다는 내용을 땅밟기의 변형 형태로 시도 하고 있다"며 "예전의 성시화 운동에 나왔던 3권 장악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는 예전 봉은사 땅밟기의 에즈37단체(지금은 사이트 폐쇄)의 본부단체인 청년목회자연합 이사장이다. 공사를 통해 교회가 국가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가보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문화재관람료 반대 운동 격화

지역시민단체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돌입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신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정읍시애향운동본부 등 정읍지역 59개 단체로 구성된 '국립공원 내장산 찾기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한욱 등)'는 4월 2일 내장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내장산찾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시민과 탐방객 1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결의대회는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둔다.

이들은 "문화재관람료 징수로 내장산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내장사 측에 관람료 폐지 및 매표소 철거를 요청했지만 사찰이 외면해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문화재관람료 일괄 징수의 부당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서명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전남 구례 천은사도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광주지법 순천지원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민사와 형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한편, 문화재관람료는 2007년 1월 정부에서 국립공원 개방정책에 따라 당시 문화재관람료와 통합 징수되던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며 그 당위성에도 여론의 반발을 받아왔다.

시민단체측은 국립공원 및 등산로에 자리한 사찰의 특성 상 일반 등산객이 문화재 관람과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징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불교 내부에서도 재정이 지나치게 관람료에 의존되고 사찰별 신도 관리나 적극적 포교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노덕현 기자

근기를 없앤 활인참선
이 생에 깨달아 성불하는 참선
제 5 차 참선대중화 선회
삼매체험 선 수련회 · 단기출가
활인선원 정진대중 하안거 · 동안거 재가자 모집
공부 힘을 얻어 걸림없는 대자유인이 되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산다.
모든 장애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을 누린다.
물만 마시고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난치병 퇴치 · 예방가능
면역성 노화억제 해독 아토피 피부미용 생리연장 금연 금주 쾌차
부담을 없앤 단식, 금강단식.
바로 끊고 바로 먹는 뒤탈 없는 참선 단식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청소년 대학생 일반
참선대중화선회 일정 (3일간) : 4월 8일(금) ~ 10일(일)

하안거 동안거 산철결제 일정	수련회 단기출가 일정
하 안 거(음) 4월 15일 - 7월 15일(3개월)	3월 26일 ~ 3월 30일(5일간) 6월 10일 ~ 6월 14일(5일간) ~ 4월 23일(30일간) ~ 7월 9일(30일간)
가을산철(음) 8월 1일 - 9월 30일(2개월)	4월 8일 ~ 4월 12일(5일간) 7월 8일 ~ 7월 15일(8일간) ~ 5월 7일(30일간) 7월 22일 ~ 7월 26일(5일간)
동 안 거(음) 10월 15일 - 1월 15일(3개월)	5월 13일 ~ 5월 17일(5일간) 7월 29일 ~ 8월 5일(8일간) ~ 6월 11일(30일간) 8월 9일 ~ 8월 13일(5일간)
봄 산 철(음) 2월 1일 - 3월 30일(2개월)	~ 9월 10일(30일간)

참선전문도량 행복제작소 안성맞춤 활 인 선 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 ☎ 1644-5266 / 070-7519-9929
네이버 카페 ▼ 활인선원

불교계 사이트, 갈 이유 없다

운영 마인드 결여, 네티즌 외면해… 양적·질적 이웃종교에 모자라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불교언론문화상을 수상한 '나무아미타불' '염화실' '송광사 홈페이지' '정토회' 와 우학 스님이 운영하는 카페 '불교인 드라망' 과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운영 중인 페이스북 부루나.

인터넷 발달에도 불교계 웹포교 현실은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현재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M(Mobility)으로 스마트폰을 위시한 기기의 발달은 인터넷이 생활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의 불교계 웹포교 현실은 참담하다. 이러한 상황은 불교계 웹사이트 현황을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록 기준으로 2001년 347개였던 불교계 사이트는 2011년 현재 1652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는 2001년 4119개에서 2011년 13375개로 종교관련 사이트의 전반적인 증가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2001년 3594개였던 개신교계 사이트는 현재 만 1326개에 달해 양적인 열세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양적인 부분만이 아니다. 웹 사이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교계 사이트의 다수는 각 종단 및 기관, 사찰, 홈페이지가 1034개로 63%를 차지한다. 경전 및 불교음악 등 전문사이트는 105개로 7%가 채 되지 않는다. 포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불교문화콘텐츠가 미미한 점은 '죽어있다' 는 평가의 주원인이다.

이웃 종교와 비교해 보면 불교계 사이트는 더욱 열악하다. 특히 교회 사이트는 1만 여개가 넘는다. 성격도 불교와 크게 다르다. 바로 설교를 위주로 한 구성이다. 교회 사이트는 목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인터넷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VOD서비스 등 적극적인 매체 활용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에 맞춰 개별 목사들이 모바일 앱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각 사찰 홈페이지에서 주지 스님들과 사중 스님들의 법문과 포교의 내용이 인사말과 알림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인터넷 분야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이 같은 차이는 단순히 인터넷 기술을 잘 활용해서가 아니다.

불교계 사이트 1652개·개신교는 1만 1326개
사찰 중심 콘텐츠로는 방문자 늘리기 힘들어

조계종 전산종책특보 정범 스님은 "개별사찰에서 인터넷을 활용해야겠다는 주지 스님의 마인드가 절실하다"며 "인터넷 종무행정 전담직원 등 인터넷 정보화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있을 때 스마트폰 1000만 시대로 대변되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에서 사찰은 대부분 산 중에 위치해 인터넷의 활용은 젊은 세대에 대한 포교에 있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임장수 이음컴넷서비스 대표(전 교정인불자연합회장)는 "일선 포교현장에서 인터넷 매체의 활용은 중요하다. 포교는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뤄지는데 인터넷은 물리적 제한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터넷 포교는 전국 각 사찰과 불교 기관에 시급하지만 이들 웹사이트들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곳이 부지기수다.

서재영 연구원 책임연구원(페이스북 부루나 운영자)은 "홈페이지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일 것이지만 결국에는 불자들의 마인드 문제"라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홈페이지는 단순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는 곳으로 이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방향이 흐르고 있다. 규모 있는 사찰기관에서는 웹 담당자가 의지를 갖고 SNS까지 담는 등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제18회 불교언론문화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계총림 송광사 홈페이지(http://www.songgwangsa.org/)는 사찰 사이트가 갈 길을 제시한다.

송광사 홈페이지는 전체 방문자 수가 600만 건에 달한다. 홈페이지는 수시로 교계 언론 소식, 종무행정사항, 공지사항 등을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참여마당을 개설해 개인블로그,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불자들을 인터넷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말사 홈페이지, 불교관련링크를 소개 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카페 '나무아미타불(http://cafe.daum.net/amtb)' 은 불교계 대표 커뮤니티로 회원수와 운영에 있어 탁월한 모델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나무아미타불은 2001년 개설돼 5만 3000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방문자수 1145명으로 포털 다음에서 랭킹 148단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카페에서는 국내와 50여 개국의 해외에 거주하는 불자, 여러 종단의 수백 여 스님들이 신행·수행·교리·생활상담을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 읽을거리를 공유하고 있다.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콘텐츠, 사용자들의 관심, 운영 인적 자원 등 활성화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이들 홈페이지가 활성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운영주체의 관심과 의지에 있다.

김승연 송광사 포교과장은 "현재 외부 전문업체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는데 사중에서 개선점을 발견하면 자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사중 스님들이 선처리 후보고 체계로 운영자금을 지원 외에도 담당자에 대한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온수현 '나무아미타불' 운영자는 "11년 간 '나무아미타불' 을 운영해왔는데 회원수가 늘어나 10명이 함께 꾸려나가고 있다"며 "불교포교에 관심있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각 게시판 담당자들을 두고 수시로 게시물을 체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은 거대한 밀림이다. 관심을 기울여 큰 나무로 키우지 않는다면 큰 나무들의 그늘에서 햇빛을 받지 못한다. 콘텐츠의 지속적인 재생산 구조로 재편해야 하는 지적 속에 운영주체의 핵심인 스님들이 더욱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교IT문화원 원장 지홍 스님은 "인터넷 시대를 맞아 불교문화콘텐츠에 대한 개발 뿐만 아니라 각 불자들이 신행생활 생산하는 또 하나의 불교문화콘텐츠를 불교자산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스님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 이나은 기자

특별기고

포교에 전략적 마케팅 도입 시급

"마케팅과 불교적 사고"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미래의 경영과 마케팅 이념은 인간중심의 불교적 동양정신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서양경영패러다임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주장이 일기도 하는 때에 기업인과 직장인들에게 공감을 산 글이었습니다.

잘 알려지다시피 서양의 자본주의는 기독교문화와 윤리에 바탕을 두고 발전을 해왔으며, 이런 문화와 윤리가 서양식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뿌리가 바로 서양기업의 강력한 힘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우리나름대로의 경영이념을 정립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그들을 뒤쫓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업도 우리문화에 바탕을 두지 않은 서양식 경영모델만 갖고는 글로벌 시대에 앞서가는 기업을 따라가기에 한계를 느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서양의 기업들도 동양의 전통적 정신문화인 불교문화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경영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한국과 중국진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에 불교를 받아들인 이래 그것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내세울 만한 우리의 문화유산은 그 대부분이 불교에서 왔으며, 우리의 의식구조, 언어, 풍습, 사상에는 불교적인 것이 깊이 깔려있습니다. 불교는 우리문화의 아주 크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교의 가장 큰 매력은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으로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지혜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어느 분야에도 적용되는 것들이며 사찰경영은 물론 포교마케팅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이끌어왔던 불교 경전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회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여 사찰경영이나 포교를 위한 마케팅 모델을 만들어 콘텐츠화 하므로서 좀더 시대에 맞는 진보된 불교로, 보다 생동감 넘치는 불자들을 모으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불교계는 물론 사찰경영과 포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패러다임 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패러다임이 성공을 하려면 중요한 것이 경전 속에 들어있는 지혜를 찾아내서 재미있고 쉽게, 시대에 적합한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야만 합니다.

스토리텔링이란 경전에 나오는 여러 말씀을 에피소드속으로 끌어넣어서 부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삶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감동을 느끼게 만드는 것을 말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불교의 포교는 사찰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불교의 정신문화와 가치를 경영과 마케팅으로 수용하므로서 미래의 불교인 양성은 물론 불교와 불교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사찰경영이나 포교에도 전략적 마케팅 활동이 더욱 더 요구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사찰경영이나 포교의 기본성격이 되어야 하는가?' 의 해답을 찾아야 하며, 그 해답을 마케팅활동으로 수용 전개하기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찰경영과 포교에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사찰이나 포교원에 대해서 '왜 성공적으로 가고있는가?' 를 깊이 관찰 분석을 해 보면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케팅을 독창적인 사찰경영과 포교에 접목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감동적 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마케팅학술연구소 소장 다범 전정봉

[현대불교신문사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은 양곤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종합대학교 건립, 식수부족 공동우물 파기, 신뿌출가의식, 불자어린이 학용품 지원 등으로 전달되며 봉사단 현지 방문에 맞춰 후원물품도 직접 전달됩니다. 담당자 안내를 받으신 후 후원금 입금과 후원물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봉사단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후원금 입금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로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징 계 공 고

성 명 : 이병근 (**불 명 :** 도천)
승적번호 : 1799-10366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550-5번지 보명사

성명 : 손동주 (**법명 :** 도봉)
승적번호 : 1694-10089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흥평리 780번지 정토사

성명 : 이성식 (**법명 :** 운학)
승적번호 : 1595-10145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산 229번지 황룡사

상기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규정원법 제4장(징계) 제19조1항 종도의 체면과 위신상에 실추되는 행위가 있는 자.
제19조 2항 종도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는 정당한 종무시행상의 명령에 불복 혹은 비방의 행위가 있는 자.
징계처벌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므로 3년의 종도분한상의 일체권리를 정지하는 조치에 처한다.

2011년 3월 21일

대 한 불 교 원 효 종 규 정 원
규정원장 직무대행 규정부장 임 우 섭(성암)

초조대장경 복원, 문화 르네상스로 이어지길

초조대장경복원간행위, 대구 동화사서 고려 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 봉정식 … 대구 동화사·일본 남선사·대구시에 봉안



2011년 고려 초조대장경 판각 1000년의 해를 맞아 복원간행된 초조대장경의 모습.



(왼쪽부터)대구 부인사 주지 종진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효탄 스님이 복원간행된 초조대장경을 대중에 공개하고 있다.

"2011년은 고려대장경이 편찬된 지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0년 전 거란의 침입으로 사라진 대장경을 복원해 부처님께 봉안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는 고려대장경의 1000년을 기념하고, 자축하는 잃어버린 1000년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옻칠된 경함(經函)이 열렸다. 두루마리 형태의 경전이 모습을 드러냈다. 쪽빛 종이(紺紙) 겉옷을 입고 있었다.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한일공동 초조대장경복원간행위원회 공동위원장),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효탄 스님, 대구 부인사 주지 종진 스님은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흰 장갑을 끼고 조심스레 경전을 펼쳐보였다. 반짝반짝 빛나는 한지는 잡티 하나 없는 아기 피부처럼 하얗다. 그 위에 새겨진 경구의 활자는 힘이 넘쳤다.

1011년(고려 현종 2년) 조성됐던 우리나라 최초의 한역 대장경 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이 2011년 3월 19일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2004~2009년 국내 및 일본에

고려 문화역량 결집된 민족문화유산
국내외 인쇄본 모아 천년만의 간행

소장된 고려 초조대장경 인경본 디지털 구축을 완료하고, 2010년 2월부터 동화사·대구시와 함께 고려 초조대장경 복원 간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초조대장경 복원불사를 묵묵히 일궈온 종림 스님은 새 천년의 꿈이 새로 그려지기를 바랐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1000년 전 초조대장경 판목이 봉안됐던 팔공산 부인사와의 인연으로 복원본 봉정식을 팔공산 동화사에서 하게 됐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부서지기 마련이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오래 전해지기를 바라는 건, 또한 중생의 마음입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날 고려 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을 부처님께 올리는 봉정식이 진행됐다. 봉정식에는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주지 성문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효탄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 대구 부인사 주지 종진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종회 의장 혜명 정사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증명법사인 진제 스님은 "고려 초조대장경 중 100권을 1차로 복간해 봉정법회를 여는 것은 다시 한 번 불보살님의 가피를 빌어 한국불교가 세계의 정신문화를 선도하고, 남북평화통일과 세계평화 성취를 발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성문 스님은 "초조대장경 복원은 불교 만의 자랑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경축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무한 동력이 민족 문화에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 불교의 사상과 문화"라고 말했다. 이어 성문 스님은 "불교문화를 왜곡·폄훼하는 일에 대해서는 섭수(攝授)와 절복(折伏)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효탄 스님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대신해 낭독한 치사에서 "초조대장경의 새로운 복원불사가 지식 문화사를 아우르는 문화의 르네상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과 동화사, 부인사 및 국내외 소장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에 공개된 복원간행본은 1011년 처음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한역 대장경 초조대장경이다. 초조대장경은 종이와 인쇄 기술 등 고려의 문화역량이 총집결된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초조대장경 경판은 고려의 수도 개경 현화사 등에서 판각 후 대구 팔공산 부인사로 옮겨져 보관해 왔다. 그러나 1232년(고려 고종 19년) 몽고의 침입으로 불타 없어졌다. 이후 조성된 것이 해인사 팔만대장경이다. 목판본으로 남아있는 해인사 팔만대장경과는 달리 초조대장경 목판본은 거의 없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은 "잃어버린 천년을 되찾는 시간이다. 초조대장경이 조성 1000년의 시간과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인연이 있는 존재"라고 인사말을 했다.



(오른쪽부터)성문 스님, 효탄 스님, 종림 스님, 종진 스님이 초조대장경 복간본을 3월 19일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봉정하고 있다.

이번에 복원된 초조대장경은 소실 후 최초로 복간된 것으로, 초조대장경 6000여 축 중 국내 250여권과 일본 남선사, 대마도 등지에 남아있는 2500여 권의 인쇄본(인경본 印經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위원회(공동위원장 종림)는 고려 전통 한지제작법을 이어오고 있는 김삼식·장용훈 한지장이 종이를 사용하고 원본을 촬영한 뒤 실크스크린 작업으로 복원했다. 경함 제작 업체 선정에도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고려시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살렸다. 원본에 따라 국내 것은 두루마리 형태, 일본 것은 접이형태로 만들었다.

두루마리 형태의 경전은 배흘림 양식 모양의 축(軸)을 중심으로 말았다. 겉을 싸고 있는 감지(紺紙)는 쪽염색으로 본문의 2분의 1 크기를 사용하고, 먹인경방식으로 인쇄된 복원간행본의 본문은 23행 14자를 기본으로 구성했다. 경전은 생 옻칠한 소나무 경함에 40권 씩 보관되며 1차로 제작된 복원본은 동화사에 100권, 대구시에 100여 권을 전달하고 3월 30일 일본 남선사에도 100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 100권, 2차년도 400권, 3차년도 500권, 4차년도 500권, 5차년도 540권을 각 3부씩 펴낼 예정이다. 초조대장경 복원간행 사업에는 연간 60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1000년 기념 행사 일정

동화사에서 진행된 봉정식에 이어 3월 30일 일본 교토 남선사에 새로 복간된 초조대장경이 전달된다. 남선사에는 초조대장경이 1800여 권이 소장돼 있었으며 디지털 자료화 작업 등에 자료를 제공한 답례다.

기념 행사로는 9월 1~4일 대구 팔공산집단시설지구 내에서 산중전통장터 승시가 열리고 9월 23일~11월 6일 '2011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이 개최된다.

1000년 한일공동 초조대장경복원간행위원회와 고려대장경연구소는 6월 26~29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와 유네스코 한국조직위원회는 9월 28~29일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연다.

5~8월 서울 호림박물관 , 7월 19일~9월 25일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전시실, 9월 20일~11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중앙박물관, 9월 23일~11월 6일 해인사 인근에서 초조대장경 특별전시도 마련된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일 주 문



설정 스님, 원담 스님 다례재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3월 15일 제3대 방장 원담 스님 3주기 추모다례와 부도 제막식을 봉행했다.



도법 스님 평화문화재 법문
도법 스님은 3월 14일 제주도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평화문화제에 참석해 생명평화의 섬을 만들자는 법문을 했다.



천태종 관음정진 백만독불사 회향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3월 19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일심청정 관음정진 백만독 회향대법회를 봉행했다.



쌍계사 정기 보살계 대법회
하동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은 4월 9일 쌍계사 금강계단에서 정기보살계 대법회와 대장경정대불사 및 육조봉찬회 총회를 봉행한다.



월정사 단기출가 입학고불식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4월 15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단기출가 입학고불식을 봉행한다.



조계사 지구촌불끄기 캠페인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3월 26일 조계사 소등행사를 시작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지구촌불끄기 캠페인에 들어간다.



덕문 스님 강화 보문사 주지 임명
덕문 스님은 3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강화 보문사 주지로 임명됐다.



능인선원 춘계 3000배 철야정진
서울 능인선원 선원장 지광 스님은 4월 9일 능인선원 대웅전에서 춘계 삼천배 철야정진기도를 입재한다.



도각 스님, 태고종 종정예경실장
태고종 도각 스님은 3월 24일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에서 태고종 종정예경실장으로 임명됐다.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장
배기동 한양대 교수는 3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2011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6대 위원장에 추대됐다.

"불교여성학 새 분야 개척할 터"

불교여성연구소 초대소장 서울대 철학과 조 은 수 교수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수행과 포교현장에서 접목하는 방식은 한국불교의 발전과 직결돼 있습니다. 여성 불자들의 종교적 지위, 깨달음의 가능성에 대해 더욱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해석이 선행돼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더 고양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 불교여성연구소 소장 조은수(54 · 사진)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불교여성학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강좌를 열어 눈길을 끈다. 지난 1월 불교여성연구소 개설 기념으로 마련된 강좌는 불교에서의 여성 영성 · 수행의 중요성 및 불교여성학에 대한 내용들이다.

강좌는 △김혜숙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의 '철학 여성주의의 기본개념인 여성성과 권력의 문제' △장필화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의 '여성주의적 관점과 불교사상의 접목 가능성과 불교 내에서 여성 수행의 특수성과 보편성' △허라금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의 '여성 수행에 있어 생태 모델을 중심으로 한 윤리적 종교실천과 여성의 역할' △김성례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의 '반(反) 여성적인 종교교리와 종교인 구 절반을 넘는 여성 수행자' △김정희 이화여대 교수의 '여성 영성 실현과 자아실현' △조은수 소장의 '불교여성학의 정립' 등으로 구성됐다. 강좌는 3월 25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견지동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진행된다.

조은수 소장은 "사찰 신도 절반 이상이 여성이지만 여성의 역할은 보조역할에 그치거나 수행의 주체가 여성인데 교리는 반(反) 여성적인 내용, 여성의 종교적 능력을 폄하하거나 여성 수행자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비하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의 잠재력과 영성에 대한 그릇된 견해들에 대해서 교리적 측면에서의 여성상을 살펴보고 여성의 불교발전 기여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수 소장은 여성불자 신행활동이 사회적 · 수행적 · 제도적인 측면의 장애를 극복할 때 불교의 활성화가 이뤄진다고 본다.

"부처님은 여성의 출가를 허락했습니다. 성별 · 지위 · 출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위를 강조하며 사회 각 계층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느 종교보다 양성 평등적인 종교로 평가 받습니다. 불교계가 종교적 · 제도적 · 사회적 제반에 걸쳐 평등정책을 구축, 성 평등 의식을 고취시켜 여성불자들이 자신의 수행과 종교적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불교의 발전이 있습니다."

불교여성연구소는 최근 조계종에 불교계 내부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의식이나 관행 극복을 위한 5가지 정책 조건 및 지원책을 제시했다. △재가 신도를 위해서는 사찰 내 프로그램에, 스님들을 위해서는 강원 교육에 양성평등과 포괄적인 젠더 교육 편입 △종단 내 의사결정 시 여성 참여기회 제고 및 비구니의 리더십 보장 △양성평등 문제 및 여성정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 신설 △결혼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 자기개발 · 사회참여 · 제2인생 설계 · 평생교육 · 죽음교육 등 인생 주기와 연령대에 따른 다양한 전문기관 설립 △불교의 사회화를 위한 실용교육 및 지도자로서 갖춰야할 교양과 자질, 조직 운영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사회화를 위한 기술의 정책 지원 등이다.

조 소장은 "5가지 제안을 통해 불자들이 성차별적인 의식을 극복하고 자신의 종교적 가능성과 개인적 · 사회적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확립할 때 현대사회에 적합한 건전하고 건강한 의식을 가진 수행자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 불자들이 각계에서 리더로 활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조 소장은 한마음선원 원장 대행 스님을 가장 존경하는 스님으로 뽑았다.

"2003년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을 처음 뵙고 스님의 법력과 리더십에 존경을 금치 못했어요. 2004년에는 국제학술회의도 지원해주셨죠. 이번에 미국 SUNY 출판부에서 당시 국제학술대회의 결과물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서문에 대행 스님에 대한 감사의 뜻을 마음으로 담았습니다."

이상언 기자

서울대 약학과 졸업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서울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학위 박사과정 수료
미국 버클리 대학 박사학위 취득, 불교철학 전공
미국 미시간대 아시아 언어문화학과 조교수
서울대 규장각 국제한국학센터 초대소장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지역 세계기록문화유산위원회 출판소위원장 의장

영문 한국불교 사전 · 역사편람 낸다

김 종 욱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한국학 속 불교를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김 종 욱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사진)가 불교문화연구원 원장으로 3월 15일 임명됐다.

김종욱 원장은 24일 불교문화연구원 구원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학 연구기관에서 유교 중심의 한국학만을 연구해왔다"며 "종교가 아니라 문화 역사적 측면에서 불교의 위상을 세워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더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며 불교문화연구원의 사업을 보다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연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제까지는 정부가 내놓은 기획안에 손을 들고 뽑아 달라고 하는 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먼저 기획안을 만들어 찾아가겠다는 것.

김종욱 원장은 한국불교전서 영역화 기반 구축의 첫 걸음으로 제대로 된 영문(英文) 불교서적 출판을 꼽았다. "불문연은 영문 〈한국불교사전〉 · 〈한국불교역사편람〉을 출판할 예정이다." 사전은 약 1000 페이지정도 예상되며 사찰명, 인명, 교리개념 등이 수록되고 역사편람은 역사, 문화, 사상 등의 분야별로 나누어 시대 순으로 수록될 예정이다.

김종욱 원장은 학술연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정 확충을 꼽으며 "한국불교 연구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기금을 유치에 함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종욱 원장은 "원로 석학들이 맡던 중책을 젊은 중견 학자가 맡게 돼 송구스럽고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불문연은 5월 28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한국불교,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문화연구원 개관 50주년이 되는 2012년 3월에는 미국유수대학의 한국학연구소 인재들을 초청해 '한국학으로서 불교학'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동국대 명예교수 인환 스님(경국사 회주)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겸 동국대역경원장으로 임명됐다.

천진영 기자

인재불사 위한 잇단 쾌척

동국대 명예교수 법 산 스님



3월 2월 정년퇴임한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이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 승가교육을 위한 발전기금을 잇따라 쾌척했다.

법산 스님은 3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 자승 스님에게 중앙승가대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법산 스님은 "교육이사로 선임돼 학교운영에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발전기금을 마련했다"며 "조계종 승가교육에 많은 스님들이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산 스님은 이에 앞서 3월 17일 동국대에 제2건학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스님은 "1986년 선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후 2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받은 즐거움은 헤아릴 수 없다"며 "학교의 제2건학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며, 많은 분들이 동국대학교의 제2건학에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승가학원 이사장 부임 이후 발전기금을 출현한 이사는 법산 스님이 처음"이라며 "한국불교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작불사인 승가교육에 법산 스님의 보시가 선례가 돼 많은 이사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장기기증 생명나눔, 더불어 사는 기쁨입니다.



장기기증은 자신의 소중한 신체의 일부를
아무런 조건없이 나누어주어
새생명을 선물하는 **생명나눔**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작은 나눔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길을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 **뇌사시 기증 :** 심장, 신장, 간장, 췌장, 폐장, 소장, 각막, 췌도, 인체조직 등
◆ **생존시 기증 :** 조혈모세포, 신장, 간장, 혈액
◆ **사 후 기 증 :** 각막, 인체조직, 시신

※ 장기기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장기기증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세요.

문 의 : 02)734-8050

삼탑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22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1동 305호

북한산(삼각산) 적멸보궁 노적사 (전통사찰 201호)

노적사 청년회 재창립 발기 및 회원 모집

청년 불자를 키워야 불교가 발전합니다.
불교의 중흥을 위한 제일 첫 걸음은 인재불사입니다.
젊은 불자들의 소통과 신행을 위해 노적사 청년회를 재 창립 합니다.
많은 청년 불자님들의 동참을 바라오며,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약속 드립니다.

노적사 주지 종후 합장

문의 : 주지실 02)353-4924 / 대표 02)353-5016 / 팩스 02)386-4198

대한불교조계종 노 적 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번지

2020년 세계 100대 대학으로

동국대, 제2 건학 위한 비전 선포…건학기금 1000억원 조성키로



김희옥 동국대 총장이 총장 취임식에서 학교 발전을 다짐하며 깃발을 힘차게 흔들고 있다.

조계종립 동국대가 대학중흥을 위한 'RE_ START PROJECT' 를 선포했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3월 21일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 발표회를 통해 △건학이념 구현을 통한 정체성 확립 △학문의 융·복합 및 교육의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 △국가 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R&D 중심대학 △글로벌 수준의 경영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의학교육 및 병원경영 혁신 등 5개 영역, 67개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동국대는 2020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문구조로 학제를 재편키로 했다. 불교학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불교학은 불교관련 대학원 교육과정 재편을 통해 동아시아 불교연합대학 등 특성화된 국제화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한·중·일·미 4개 대학 불교관련 복수 학위제 등이 시행된다.

다른 학문도 신설되는 '학문구조개편위원회' 를 통해 △융·복합 △산업맞춤형 △국제화 분야 등 미래 대비 학문구조 종합개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희옥 총장은 "올해 상반기 중 학문구조가 유사한 소규모 학과 운영 개선방안을 골자로 한 1단계 개편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이라며 "학교는 향후 순수기초학문 보호 및 육성방안과 함께 융·복합 학문 육성 방안 등을 학내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는 연구지원 조직 간 통합 및 협력을 위한 '연구경쟁력강화위원회' 도 상설기구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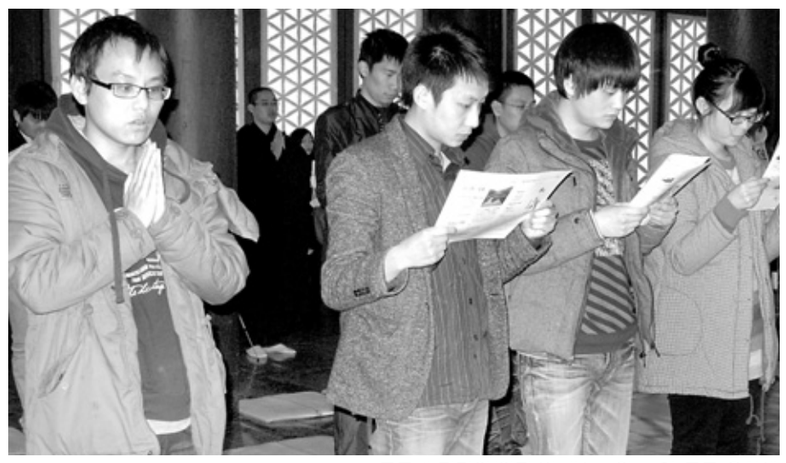
특히, 우수교원 유치를 위해 대학본부에 집중됐던 교원 초빙 권한을 본부와 단과대학으로 분산시키기로 했다.

김희옥 총장은 "특성화 및 융합분야 위주의 최우수 교원 초빙은 대학본부가, 단과대별 우수 교원 유치는 단과대학장이 추진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국대는 제2건학 운동 전개를 위해 1000억원의 제2건학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국대가 밝힌 △총동창회 공동모금활동 △바이오메디융합캠퍼스 내 MBA 개설 △평생교육원 개원 △(가칭)종합의료복지타운 조성 등의 수익모델로 건학기금이 얼마나 모금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정각원 중국유학생 법회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타)는 3월 22일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각원에서 중국어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40여 중국 유학생들이 참석해 절하는 법, 불법승 삼보(三寶), 불교기초교리 등 '불교관에 대한 올바른 정립' 을 주제로 진행됐다. 법문은 중국 절강성 명진(明臻) 스님이 진행했다. 법회는 경전 게송, 반야바라밀다심경 독송, 삼귀의, 법문, 만남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중국유학생법회는 4월 26일 명상음악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상언 기자

조계종의 눈으로 본 한국불교사

포교원, '한국불교사' 발간… 법 산 스님 등 감수



불교 전래 시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의 역사를 알기 쉽게 서술한 책이 나왔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전 역사를 망라한 〈한국불교사〉(조계종출판사 刊)을 출간했다.

조계종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정휴 스님은 3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껏 한국불교사를 제대로 조명한 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계종단 차원에서 〈조계종〉 고중세편과 근현대편이 발간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불교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은 없었다"며 "이 점에서 〈한국불교사〉의 발간은 큰 의미가 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흐름인 선과 화쟁 정신을 기둥으로 한국불교사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사〉는 선을 바탕으로 한 회통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조계종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국 불교의 흐름을 서술했다.

책에서는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와 발해의 불교 △선의 전래와 조계종의 성립 △고려·조선시대의 불교 △근현대 불교와 대한불교조계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불교사〉는 특히 한국불교 전개과정에서 중요하게 흐르는 사상을 깊이 조명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다. 원효, 의상, 도의, 의천, 보조, 태고, 나옹, 휴정, 부휴, 초의, 백파, 경허, 용성, 성철 스님 등 우리나라 역대 고승들의 사상과 역할을 세심하게 헤아렸으며 대한불교조계종을 육조 혜능 스님의 가르침으로 집중 조명했다.

〈한국불교사〉는 보편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부드러운 문장으로 풀이해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며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에서 '한국불교사' 필수교재로 선정, 스님들의 교육용 교재 및 불자교육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책임집필했으며, 법산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과 김상현 교수(동국대 사학과)가 감수했다.

이나은 기자

석림동문회, 석림회 장학재단 추진

동국대 석림동문회가 석림회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1994년 이후 백상원 석림회장단(34기)이 석림회 재학생들을 위해 석림동문회(회장 영담, 조계종 총무부장) 에 장학금 1억 6000만원을 전달했다.

3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석림회장 영담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문화부장 효탄 스님, 석림회 사무국장 장적 스님(조계종 미디어특보), 총무 정범 스님(옥천암 주지)과 석림회 재학생 등이 자리했다.

영담 스님은 "석림회 동문이 1200여 명에 이르는데도 활동이 부족해 후배나 비구 기숙사인 백상원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학인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석림회 장학재단법인화를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장학기금으로 5000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혜총 스님은 "석림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고 재학생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 석림회 동문들은 종단과 화합해 불교발전에 힘써달라고"고 말했다.

석림동문회는 각 기수별로 1억여 원의



장학금 출연에 뜻을 모아 학인들의 장학금 문제를 해결 할 계획이다. 장학금 운용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동국대 비구 학인스님들의 보금자리 백상원은 스님들이 대중생활을 하는 곳이다. 1965년 종단이 학비를 부담해서 스님을 양성하는 종비생(宗費生) 스님들로 구성된 석림회가 거처하는 곳이다. 1991년 지어진 백상원은 노후된 시설을 신축 정비하고 3월 18일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스님들이 이사를 했다. 후원이나 법당, 시설물, 살림살이 등의 불사는 지금도 추진 중이다. 비구니, 사미니 스님들의 기숙사인 평창동 혜광사는 1994년 장영자 씨 소유의 각 진선원을 경매로 넘겨받았다. 혜광사도 6월 완공을 목표로 낙후된 공간을 보수 중에 있다.

이상언 기자

100자 뉴스

총무원장 자승 스님 동곡학원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8일 동곡학원 영천 선화여고를 방문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선화여고를 방문한 자승 스님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교실을 방문해 햄버거와 콜라를 나눠주고 "앞으로 여성지도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천 충효사 방생수륙대재 봉행

영천 충효사(회주 해공)는 3월 24일 포항 칠해해수욕장에서 신도 5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생명사랑 자비실천, 국운융창 국민화합기원, 방생수륙대재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충효사가 운영하는 충효자비원은 법회 후 포항 신광·흥해·청하·송라면 500여 어르신을 초청해 경로효친 한마당잔치를 마련했다.

충효사 회주 해공 스님은 "진정한 마음으로 보시공덕을 쌓고 작은 생명체라도 소중히 생각할 때 복이 나에게 되돌아 온다"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불청, 학생 종교인권보호 조례 동참

대불청은 3월 24일부터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 와 함께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는 2010년 10월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주민발의를 위해서는 4월 26일까지 서울시민 유권자의 약 1%인 8만1000여 명이 동참해야 하며 현재 2만 여 명이 서명한 상태다. (02)738-1920 이나은 기자

한국불교종단협, 제1차 상임이사회 개최

불교종단협은 협의회 회의실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를 3월 24일 진행했다. 협의회는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한국대회를 위한 예비회의 개최와 봉축행사 봉행, 일본피해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예비회의는 4월11~13일 서울에서 개최되며 본대회는 강원도 낙산사에서 열린다.

봉축행사 봉행과 관련해서는 시청앞 점등식을 비롯한, 청계천 등달기 및 연등회, 법요식 등을 논의했다. 일본 지진피해 성금은 26개 소속 종단이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박기범 기자



【세계고승원돈국제보살대계】

승왕청 임명식 및 스리랑카 불치사 부처님 사리 이운 대법회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석 인 왕 큰스님 / 스리랑카 시암종 종정 아시기리 큰스님 /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큰스님 / 태국 제 카타펀노 큰스님 / 스리랑카 아마라푸라 쇼바 큰스님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세계불교승왕청

총무원 대약사사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번지
TEL : 043) 731-2261 FAX : 043) 731-6453 회주 : 043) 731-6454
본산약사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 2동 산 7번지
TEL : 031) 734-3205 FAX : 043) 735-3374 회주 : 031) 747-8303

세계평화·남북통일기원·국가발전·가정만복기원

세계 고승과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석인왕 큰스님께서 증명하시고 전계함으로써 수승한 인연을 맺고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중흥을 위한 [세계고승원돈국제보살대계] 및 [불치사 부처님 사리 이운]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본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에서는 해동신라의 원효 성사가 경찬하신 묘법의 현의와 고려 제관법사가 전하신 법화의 종지를 계승하여 의천대각국사께서 수립하신 천태종을 정통 종문을 계승하여 현재에 이르러 인왕 큰스님을 종정으로 전통적인 계법을 이어받았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세계고승원돈국제보살대계]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여러 종도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과 지혜를 닦고 생사해탈의 법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1부 (오전 11시)
– 승왕청 임명식 및 스리랑카 불치사 부처님 사리 이운 대법회

▣ 2부 (오후 13:30시)
– 세계고승원돈국제보살대계

1. 일시 : 불기 2555년 음 3월 7일 (양 4월 9일) 토요일
2. 장소 : 총본산 금강 대약사사
3. 문의 : 총무원 금강대약사사 : TEL 043)731_2261
본산 성남 약사사 : TEL 031)734_3205

불교 자주, 정체성부터 되찾자

성철스님문도회, '퇴옹성철의 100년과 한국불교의 100년' 학술포럼

우리 시대를 밝게 비췄던 선지식, 성철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스님의 삶과 사상을 통해 한국 문화의 비전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성철스님문도회(대표 천제)는 3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퇴옹성철의 100년과 한국불교의 100년'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희옥 동국대 총장이 '불교 교육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주제발표 '현대 한국사회와 바람직한 승가상'을, 성태용 건국대 교수가 '한국 불교의 정체성과 자주화'를 발표했다.


김희옥 총장


조성택 교수


성태용 교수

성철스님문도회 대표 천제 스님은 환영사에서 "오늘 행사는 승가의 사회적인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현대 한국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승가상은 무엇인지, 또 그 어떤 외부 세력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한국 불교의 자주성과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큰스님께서 주도하신 봉암사 결사의 정신과 종단의 어른으로서 대응하신 방법 등을 바탕으로 찾아보려고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성철 스님은 바른 깨달음이 무엇이고 이 시대의 수행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준 불교계의 어른이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한국 불교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정부를 포함한 외부 세력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한국 불교의 자주성은 무엇인지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원융 지성 양성하자

김희옥 총장은 기조강연에서 "성철 스님의 지혜와 자비가 조화된 '글로벌 원융 지성'과 '상호 존중' '상호의존'의 연기사상을 학문적으로 승화시키자"고 제안했다.

김 총장은 "현재 한국사회는 환경 훼손과 사회 갈등, 공동체 의식 결여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불교교육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옥 총장은 불교교육을 불교를 교육하는 것과 불교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나눴다. 불교를 교육하는 것은 불교 전문 인재 육성을, 불교적 교육은 불교정신을 갖고 불교적 인간상에 부합하는 사회의 일반인재 육성을 뜻한다.

김희옥 총장은 불교교육의 지표로 △지혜와 자비 △희망과 도전 △생명(생태)와 평화 △정의와 실천을 꼽고, 종립 동국대에서 이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종교, 서비스업 아니다

조성택 교수는 "현재 한국불교는 열반한 성철 스님을 현대한국사회로 다시 불러내야할 만큼 절박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서구 불교가 흥하는 현실에서 한국 불교만 위기인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한국불교의 위기 타결을 위해 출가자부터 솔선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종교는 서비스업이 아니다. 사회사업, 대학교 · 방송국 운영 등 개신교 등 이웃종교의 사회참여 방식을 모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조성택 교수는 "불교는 개신교 등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비판 실천가로서 불교의 역할을, 중생을 위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택 교수는 "출가자들이 문명비판의 실천가로서 중생을 위한 교사가 될 때 한국 불교는 인류사회의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며 "불교 본래의 간단한 실천마저 하지 못한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주성 이전에 정체성부터 찾아야

성태용 교수는 불교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고찰했다.

성 교수는 "현실의 불교는 그냥 이렇게 있게 된 것이 아니며, 지금도 끊임없이 어떤 모습을 지향해 나가고 있다"며 호국불교 · 회통불교를 한국불교의 정체성으로 꼽았다.

하지만 현대 한국불교는 출가와 대처, 출가와 재가 문제 등으로 총체적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성태용 교수의 진단이다.

성 교수는 "회통불교의 전통은 다양성이 방만하게 존재하는 것을 용인하는 선에 그치고 있으며, 그 다양성들을 꿰뚫는 통찰이 발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국불교 정신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와 그에 대응하는 불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근본적인 이론 정립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성태용 교수는 "호국불교 정신이 왜곡돼 상당기간 대통령의 강녕을 기원하는 형태의 의식으로 남아 있었고, 정권과 국가를 혼동하는 양상까지 빚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불교계가 자주성을 상실하고 정치권력에 종속된 모습을 보여온 것들은 근본적으로 불교 자체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떳떳할 수 없었고, 정치권력 앞에서 당당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철스님문도회는 성철 스님의 삶과 사상 등을 조명하기 위해 3년간 12번의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퇴옹성철과 현대한국불교'를 주제로 성철 스님의 삶 등을, 2012년에는 "퇴옹성철과 돈오돈수"를 주제로 성철 스님의 대표적인 사상인 돈오돈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한다. 성철 스님 열반 제20주기인 2013년에는 '퇴옹성철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현대 사상과 문화의 측면에서 성철 스님을 살펴보고 불교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동섭 · 천진영 기자

사찰계가 승속 화합 이끌었다

한상길 교수, 불광사 학술연찬회서 주장

"사찰계(寺剎契)는 불교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이었으나, 승려와 대중의 참여로 승유억불이라는 여건 속에서 불교를 유지 · 발전시키는 신앙적 결합이었다."

한상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사진)는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이 주최한 '불사, 대중의 원력과 참여의 결정체'를 주제로 불사의 교학적 의미와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는 학술연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상길 교수는 사찰계를 불교신앙을 바탕으로 수행과 신앙심을 증진시키거나 사찰 재산, 전각, 혹은 의식용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한 모든 조직체라고 정의했다.

천진영 기자

고상현, 선리연구원 학술상

제5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우수상 수상자로 조계종 교육원 고상현 연구원(사진)이 선정됐다. 학술상은 김종수 박사, 남궁선 박사, 권경임 박사가 선정됐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3월 21일 제5회 선리연구원학술상 논문공모 수상자를 발표했다.

고상현 연구원은 주제논문 '고려시대 수륙재 연구'를 통해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영혼에게 공양(供養)을 베푸는 수륙재 의식이 고려시대에 어떤 목적과 유형을 통해 이뤄졌는지를 분석했다.

조동섭 기자

석길암의 한국불교 승려열전



절박한 현실에서 발견한 선(禪)

경허성우(鏡虛惺牛; 1846~1912)②

구한말부터 국권상실기에 이르는 시기는 조선의 승려들에게 미묘한 시기였다. 한편으로는 500년 동안 굳어져 있던 억불(抑佛)의 굴레에서 벗어날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한 시대에, 경허는 불교계의 지식인이기는 했으되 조선의 선도그룹일 수는 없었다. 그만큼 조선사회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위치란 미미한 것이었다. 아직도 희망을 발견하기란 조선의 승려에게는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경허성우(鏡虛惺牛; 1846~1912)

1895년 조선 왕조 내내 유지됐던 승려들의 도성출입 금지가 해제됐다. 그러나 경허 스님은 다음과 같은 한 마디를 남기고 도성이 아니라 남행을 택한다.

"나의 서원은 경성 땅을 밟지 않는 것이다(吾有誓願 足不踏京城之地.)."

물론 경성 땅을 밟은 승려 모두가 사노에게 감사를 표한 것은, 경성 땅을 밟은 승려 모두가 시류에 영합한 것은 아니다. 의발을 전할 승려도, 의발을 전해 받을 승려도 없다고 생각했던 이가 바로 경허. 의발(衣鉢), 곧 불교의 정신이란 생사고해의 삶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고 중생을 해방하는 것이 아닐까. 의발은 실천되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전해지고 전해 받는 것이 아닌 것이다. 도성의 출입이 어떤 승려에게는 조선불교 부활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겠지만, 경허에게는 아니었다. 조선불교의 생사는 도성출입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정신이 살아서 활발발하게 실천되고 있는지 여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남행의 발걸음은 삼남지방을 두루 거쳤다. 산산곡곡의 제방을 놓치지 않았다. 거기에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대의 질곡을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외면했다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때론 시대에 맞서 장렬하게 산화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시류에 영합할 수도 그렇다고 시류에 맞서는 방법도 역시 온당히 수긍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표현은, 경허 스님의 경우에 꼭 들어맞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원래 사회의 주류도 아니었던 자가 모처럼만에 주어진 중앙 진출의 기회를 내차듯 던져버리고, 지방으로 지방으로 편력했던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역사적으로 볼 때 선종(禪宗)은 도성(都城)의 불교가 아니었다. 8세기 중국 전역을 요원의 불길처럼 휩쓸었던 선종의 기세는 도성이 아니라 지방 각지에 흩어졌던 선승들의 민중과 어우러진 삶 속에서 축적된 것이었다. 경허 스님이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했는지는 모르지만, 스님의 발걸음은 초기 남종선 선사들의 행로를 그대로 밟아가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가야산에 머물던 한 때에 지은 "왕자 수두룩하니 정치 잘해 민생을 해결하겠지./ 나는 이제부터 한 벌 누더기 거듭 거듭 기워 입으며/ 구름에 잠긴 산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늙으리라"는 시구를 소개하면서 김지견 선생은 '눈물겨운 역설'이라는 해석을 곁들이고 있다.

나라가 망해가던 때에, 외진 산 속에서 왕자가 많아서 민생정치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억지로 치부하고 있는 자의 안타까움을 그렇게 해석했을 것이다. 적어도 산중에 은거한 자의 안락가는 아님이 분명하며, 삶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오히려 애잔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처럼 산승이고 싶되 산승이지 못했던 승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나라가 망하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백성의 민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애잔했던 승려. 그 모습에서 나는 화두하고 막행막식하는 희대의 선승이 아니라, 질곡의 시대에 중생을 놓지 못하여 오히려 중생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승려의 시대적 한계를 본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종헌(정흥교) 큰스님 직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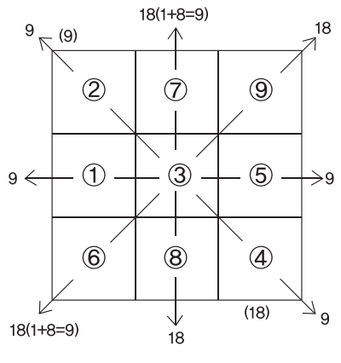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장(현)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강 의
목 · 금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 ·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특전 : 등록비 (1,000,000원)
승려증소자 (50%)

특허출원번호 : 40-2010-0009061
[구단구궁법] 41-2010-0004261



[구단구궁 원리도]

*** 강의 일정표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학 과	기간 / 요일 / 시간	강 의 과 목	비 고
불교학과	[기간 – 2년]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유식사상 · 화엄학 · 대승기신론 · 답사학	대학원과정 (학사이상)
불교교리학과	[기간 – 1년] 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사찰예절 · 근본교리 · 부처님생애 · 반야심경 · 포교방법론 · 초발심자경 · 천수경 · 금강경	포교사 법 사
장례지도학과	[기간 – 6개월] 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관혼상제 · 장례식장경영론 · 장묘제도(법규) · 공중보건학 · 상담학 · 장례학 개론 · 불교상장례이해 · 실습	장례지도사 1,2급 불교장례지도사
다도예절학과	[기간 – 1년]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제다학(1,2,3,4) · 다구학 · 사찰다도법 · 차와선 · 차 문화사 · 차성분학	다도예절포교사
불교의식학과	[기간 – 6개월] 목요일 : 오후 2시 – 5시	· 기초 – 중급 – 고급 – 속성(실전) · 범음, 범패, 작법(바라 나비춤) · 종사이운 종사영만 점안의식 시달림 예수제	
풍수학과	[기간 – 1년] 월,수요일 : 저녁 7시 – 9시	· 생활풍수 · 음택/양택 · 풍수학 개론 · 패철 · 방위학 · 부동산풍수 · 풍수인테리어 · 지리오결	풍수지리사
명리학과	[기간 – 6개월] 화, 목,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 저녁 7시 – 9시	· 생활역학 · 작명 · 사주명리학 · 관상학 · 궁합 · 택일 · 실전명리	명리심리상담사
이수명리학과	[기간 – 8주] 일요일 : 오후 2시 – 6시	· 이수명리학 · 명리36금수 · 적천수 · 12운수 · 간파명문 · 오자술	이수명리학회 회원증
타로학과	[기간 – 4주]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메이저아르카나–22장 · 마이너아르카나–56장 · 실전타로학	타로카드 마스터사(1급)
구단구궁학과	[기간 – 5일] 목, 금, 토 : 오후 2시 – 5시	· 구단구궁학교재 · 비법교재	한국구단구궁학회회원증

15년전통 부산불교전법대학 · 대학원 – 구단구궁연구회 051)467-4665 / 010-7725-1024

일본 성금 1주일간 2억 돌파

익명, 고액기부자도 등장… 조계종 일본에 생수 지원 방안 검토

지난 한 주 역사적 아픔은 잠시 잊고 인류애를 발휘하는 불자들의 정성이 쉼없이 이어졌다. 일본에 파견됐던 조계종 구호팀 선발진은 귀국 후 생수와 식료품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한 뒤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사찰 및 개인 성금 줄이어

일본 지진피해를 돕기 위한 불교계 자비의 손길이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

신흥사(주지 우송)와 진관사(주지 계호)는 3월 21일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일본 지진 피해 지원금 1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신흥사와 진관사는 군법당 설립 지원을 위한 기금 2000만원과 1000만원도 별도로 지원했다.

국제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로터스월드(공동대표 성관 · 퇴휴)도 일본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 1000만원을 같은 날 전달했다.

직지사(주지 성웅)도 일본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 1000만원과 군법당 설립 및 승가교육진흥을 위한 기금 1000만원을 22일 총무원을 방문해 전달했다.

해인사 고불암(주지 선각)도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 지원에 동참했다.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과 총무 심우 스님은 24일 총무원을 방문해 일본 지진 피해 지원금 1000만원과 군법당 설립 지원 1000만원, 민족문화수호기금 10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도 일본 지진피해 구호를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 일면 스님은 25일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일본 구호 성금 500만원과 민족문화수호기금 5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4일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일본 지진피해 성금 모금에 26개 소속 종단이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모금된 성금은 한일불교문화교류회에서 함께 일한불교문화교류회를 통해 전일본불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피해자인 합천 평화의집 식구들은 일본을 돕기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합천 시내 일원에서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개될 예정이다.

사찰 및 불교계 단체들의 기부금 전달과 더불어 개인들의 모금 참여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14일부터 시작된 모금 캠페인은 25일 오전까지 집계한 결과 281곳의 개인 및 사찰에서 2억8891만8570원이 모금됐다.

이중 개인 후원에는 242명이 참여해 4717만9000원이 모아졌다. 호법 부장 상운스님과 지관 스님이 각각 1000만원을 후원했다. 김관두 후원자는 지난 아이티 구호기금에 이어 이번 일본 피해 복구 기금 마련에도 동참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이 밖에도 아름다운동행의 해피로그 온라인 모금을 통해 1117명이 참여했으며 현재 176만1600원이 모금됐다. ARS 모금도 850건이 접수되면서 255만원이 일본 구호기금으로 모아졌다.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사진 우)이 일본지진피해 돕기 및 자비나눔기금을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 관계자는 "실명이 아닌 '일본지진돕기' 등 익명으로 수 십 만원을 입금하는 사례도 있고, 50~100만원의 거액 기부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인력 파견은 신중키로

조계종이 일본에 파견했던 구호팀 선발진의 보고에 따라 생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계종은 구호팀 팀장 묘장 스님(조계종 사회국장)과 선발진으로부터 현지 활동에 대한 업무 보고를 21일 4층 접견실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묘장 스님은 "잇따른 여진과 방사능 유출 위험 등으로 현지 상황이 불안하다"며 인력 파견보다는 생수와 식량 등 구호물자를 우선적으로 파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선발진은 특히 일본이 그동안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해왔으나 최근 수돗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돼 식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조계종이 출시한 생수 '산은 산이요 물은 甘이로다'의 지원 가능 물량을 파악해, 조속히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총무원 사회부는 현재 300t가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계종은 또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각 교구본사별로 실시하고, 일본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기범 기자**

"지속적이고 신속한 구호방안 마련해야"

조계종 일본 지진 긴급재난구호 봉사대 선발진 팀장 묘 장 스님



"정말 참담한 모습이었다. 식량구호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고, 아직까지도 여진이 매일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조계종 긴급재난구호 봉사대 선발진 팀장 묘장 스님(사진, 조계종 사회국장)은 일본의 상황을 전하면서 2~3개월 동안 지속적인 구호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휘발유를 구할 수 없어 현지에서의 선발진 활동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방사능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진보다는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더 컸습니다. 하늘에 독수리들이 날아다는 것을 볼 때마다 어딘가에 시체가 있구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본은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호활동을 통제하고 있어 선발진의 조사활동에도 제약이 따랐다. 선발진은 체류 기간 동안 현지 스님들과 단체의 도움으로 조사활동을 지속하면서 한국 불교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

사찰 피해 현황에 대해 묘장 스님은 "한국 사찰들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일본 사찰들의 현지에서도 정확한 피해 집계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사찰들은 현재 양초 하나까지도 이재민들에게 나눠주고 대피 공간을 제공하며 구호활동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조계종도 이런 활동을 펼치는 사찰들과 연계해 구호활동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본인들도 처음 겪는 위기상황이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진과 방사능 유출의 공포가 심각합니다. 일본인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펼쳐야 합니다." **박기범 기자**

박기범 기자의 라훌라 존자를 찾아서

"봉사란 가족처럼 함께 어울리는 것"

오 성 열 우리는선우 봉사팀 팀장



'우리는선우 봉사팀'은 2년 주기로 봉사활동 기관을 변경한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도움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1999년 경 연꽃마을 요양원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깨지고 만다. 2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작별인사를 할 때 눈물을 흘리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이다.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정이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 한 가족과 다름없습니다. 어르신들과 우리 모두 봉사활동 날만 기다립니다."

오성열(45 · 사진) '우리는선우 봉사팀' 팀장의 지론은 '즐겁게 봉사하자'이다. 봉사 대상자들과 즐기면서 소통하는 활동이 참된 봉사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오 팀장은 봉사활동 내내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활기찬 분위기를 만든다. 팀원들에게도 묵묵히 '노력봉사'만 하지말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나누라고 조언한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 팀장과 '우리는선우 봉사팀'은 도배, 페인트칠, 목욕, 밭일 등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라면 무엇이든 솔선수범이다. 일 년에 한 번은 요양원 어르신 및 직원들과 함께하는 캠프파이어를 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정말 즐겁습니다. 딸 아이 돌 때 어르신들이 잔치에 보태라고 꼬깃꼬깃한 돈을 주실 때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오성열 팀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봉사자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타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이고, 자신들을 기다려주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선우 봉사팀'은 복을 빌지말고 지으라고 했던 부처님의 말씀을 봉사로 실천하고 있다고 믿는다.

"저희가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즐긴다는 마음으로 매월 요양원을 방문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진심은 어린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달된 모양이다. 오 팀장의 어린 딸은 연꽃마을에서 봉사를 하는 날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다며 빨리 가자고 아침 일찍부터 재촉한다. 어르신들도 오 팀장의 딸이 오면 주려고 과자를 모아두기도 한다. 예쁜 손녀딸을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인 것이다.

오성열 팀장은 연꽃마을 요양원에 갈 때면 늘 부처님을 뵈러 간다는 마음이다. 봉사를 통해 경전에 적힌 부처님의 말씀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서 실천하면 됩니다." **박기범 기자**

"장기기증으로 생명결사 실천"

자 승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서약 동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의 장기기증에 동참했다.

자승 스님은 3월 23일 '민족문화수호 100일 정진 회향 및 자성과 쇄신 결사 입재법회' 후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들과 함께 장기기증 서약식을 가졌다. 장기기증 서약식 후에는 아름다운동행의 월보시 일정액 기부 서약식에도 동참했다.

자승 스님은 "장기기증 서약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부처님오신날"

제 9 회 불교꽃장엄무료특강(상단, 관불단, 법상, 선화등)

40여 년간 동양꽃꽂이 및 불교꽃예술연구를 해 온 보림회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9번째 무료공개강좌를 개최합니다. 금번 공개강좌는 1개월간에 걸쳐 좀더 심도있게 불교작품을 다룰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꽃예술과 불교의 꽃예술에 있어서 예술적 차이는 물론 추구하는 가치 기준과 지향점이 판이하게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으며, 이처럼 예술적 문화적 가치 외에 훨씬 심오한 종교적 해석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부처님오신날' 특별강좌인 만큼 불교 꽃예술에 대한 안목과 아름답고 화려하면서도 검소 담백한 꽃 장엄이 될 것입니다.

■ 일 시

- 4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개강(시작)
- 4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
- 4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 4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 대 상

1. 일반꽃꽂이는 꽃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 (기초반:초보자 환영. 동양꽃꽂이)
2. 불교꽃꽂이연구 : 사범이상 (부처님오신날을 위한 꽃예술의 모든 것)

■ 장 소

보림꽃예술중앙회 연구소(불교꽃꽂이연구원)

※ 무료강좌임으로 강의는 무료. 약간의 소재비가 있습니다 (실비)



보림꽃예술중앙회 연구소 (불교꽃꽂이연구원)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392-106 기원사 경내 꽃꽂이연구소 ☎ 02-918-0034, 919-0034

다시 뛰는 부산청년불교!

6월 제30차 전국불교청년대회 5000명 청년불자 동참 발원


선우아침기도모임의 청년불자들의 열정적인 기도 모습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춘분을 하루 앞둔 3월 20일 새벽 6시. 10여 청년들의 우렁찬 관세음보살 정근 소리가 부산 법계정사 법당의 차가운 새벽공기를 가른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하재훈, 이하 대불청)는 제30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100일 앞둔 3월 3일부터 '49일 선우아침기도모임'을 갖고 있다. 기도모임은 매일 오전 6~7시 관세음보살 정근, 〈신묘장구대다라니〉·〈반야심경〉독송, 발원문 낭독으로 진행된다. 기도를 마치고는 다함께 둘러앉아 차담을 나누고 각자의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간다.

'49일 선우아침기도모임'은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불교청년대회를 통해 청년 불자 부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재도약의 기회를 찾는 자리다. 대불청 부산지구는 지난 10년간 이 대회를 3번 이상 유치한 경력이 있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제29차 대회에 1300명도 채 참가하지 않은 것을 불교계 전반에 걸친 청년 불자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올해 5000여 청년불자 유치 및 성공을 발원했다.

손정현 부산 대불청 前회장(불교TV 부산지국장)은 "청년 부재로 인한 위기는 이웃종교도 마찬가지다. 청년 불교의 번영기인 70~80년대와 달리 최근에는 놀이문화가 많이 발달해있고, 개인주의 사고방식이 팽배한 무한경쟁 시대이기에 청년들이 삶의 철학을 탐구하는 종교와 멀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청년들'에게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대불청 부산지구의 노력은 32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포교는 대부분 지회 내 소모임 단위에서 이뤄지는 봉사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각사불교청년회(회장 정경섭)는 1992년부터 매월 넷째 주 일요일마다 인근 용두산 공원에서 무차만발 국수공양 봉사활동을 해 왔다. 대각사불교청년회는 부산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청년회다. 교계를 넘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된 공로를 인정받아 1997년 '자원봉사축제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1999년·2011년 '자원봉사대상' 부산광역시장상 등 수상 경력만도 10여 개에 이른다.

대불청 부산지구의 신생 청년회인 여여선원불교청년회(회장 이윤희)의 포교 활로 역시 봉사활동이다. 2009년 3월 창립 이후 총 15명의 회원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정기법회에 참석한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울주군 마하보디교육원(원장 능행)에서 농사와 후원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 또 4월 중순 착공하는 병동 완공에 맞춰 호스피스 전문 과정을 밟는 등 보다 폭넓은 봉사를 준비 중이다.

박경수 대불청 부산지구 호법단장은 "청년회가 외양에만 치중하다 보니 부처님 가르침과 신행이라는 기본에서 벗어났다"며 "불법을 배우고 이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실천에 옮기는 기본적인 신행활동이, 바로 대불청 부산지구의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는 대내외 청년불교의 쇠퇴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는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부산지구의 내실을 다져 신입회원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6월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에서 개최될 제30차 전국불교청년대회가 부산청년 불자들의 청량한 정근소리와 함께 한층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찬불가는 나의 삶, 음성공양은 나의 행복"

이 남자, 요즘 부산 불교계에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3월 17일 부산KBS홀에서 열린 '부산 민족문화수호대법회'서 그와 그가 이끄는 여성중창단의 음성공양은 1만여 사부대중을 감동시켰다.

부산 최초 우바이 중창단 '청공'을 지휘한 성악가 정성민(동의대 음악학과 교수)단장. 3월 23일 정성민 단장이 지휘하는 김해여여정사(주지 도명) 합창단 연습실에서 그를 만났다.


청공 중창단 정성민 단장

▲ 불교와의 인연은.

"할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관세음보살 정근기도를 하셨다. 할머니의 영향으로 어린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할머니의 공덕이 내가 불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노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원동력이다. 성악을 전공하면서 대중에게 찬불가를 가르쳐야 하는 인연이 다가옴을 느꼈다."

▲ 부산 교계에서 '성악가 정성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민족문화수호대법회' 때 1만 여 명의 사부대중 앞에서 노래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난 10년간 부산 교계 곳곳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음성공양을 맡았지만, 이번 법회 때 객석에서 들려온 박수와 함성 소리에는 눈물이 날 뻔 했다. 그날 이후 노래 잘 들었다는 격려인사가 부쩍 늘어 새삼 쑥스럽다."

▲ '불교계 정마에'라 불린다.

"현재 홍법사(주지 심산), 관음사(주지 지현), 김해 여여정사(주지 도명) 및 '청공' 여성중창단 등 총 9개 불교합창단의 지휘를 맡고 있다. 또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에서 15년째 성악을 지도하고 있어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 모 시립합창단이 연습곡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연습 전에 예배를 보는 등 종교편향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는데, 불자 성악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서양음악은 기독교가 강세이던 중세의 종교음악에 그 뿌리가 있다. 한 도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이라면 특정종교에 치우쳐서는 곤란하다. 현재 총무소임을 맡고 있는 부산지역 성악교수모임인 '솔리스트앙상블'에는 100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데 단 2명만이 불자다. 이것이 현실이다."

▲ 특별히 애착이 가는 합창단이 있나.

"모두다 애착이 간다. 굳이 하나를 뽑으라면 '청공'여성중창단이다. 9개 사찰 합창단에서 신심과 기량이 뛰어난 12명을 선발해 만든 중창단이다. 나를 믿고 교계 뿐 아니라 부산 전역의 여러 법회와 행사에서 음성공양에 동참해 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매월 부산교도소, 묘광사 군법당에서 음성공양을 하고, 대각사 청년회의 국수공양 봉사에도 참여하다보니 더 애착이 가는 것 같다."

▲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찬불가와 음성공양은 나의 삶이고, 목숨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업이라고 생각한다. 찬불가가 대중가요와 이웃종교의 가스펠처럼 전 국민이 흥얼거리며 즐겨 부를 수 있도록 찬불가의 대중화에 보탬이 되고 싶다."

박지원 기자

부산개인택시 불자회 쌀 83포대 보시

부산개인택시 반야회(회장 차성대)는 3월 24일 부산 연산동 정수사(주지 원광)에서 창립 9주년 기념법회 및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반야회는 부산 남구소재 이동식 노인무료급식 '빨간밥차' 외국인어린이 사회적응훈련 '아시아공동체',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사찰 '허허원' 등 총 8개 사회봉사단체에 20kg 쌀 83포를 전달했다.

이날 제6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차성대 회장은 "참선과 염불, 간경 등 다양한 수행의 기회를 많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도법사 원광 스님은 "남의 입장이 돼 이해해주는 대자대비심으로 이웃과 사회가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3월 20일 부산 홍법사에서, 김밥과 떡볶이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한국 전통요리 재미있어요!"

홍법사 국제부, 외국인 문화체험 '인기'

"김밥과 떡볶이 만들기 정말 재미있어요."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교육관에서 맛있는 냄새가 진동한다. 한국 대표분식 김밥과 떡볶이 익는 소리와 함께 한국 음식을 직접 요리하고 시식하는 일은 어떤 문화교류보다 단연 으뜸이었다. 김밥과 떡볶이 만들기에 나선 외국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김밥을 정성껏 말고, 고추장을 물에 풀며 떡볶이 소스를 만들어 한국의 매운맛을 맛봤다. 여러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 맛을 내는 김밥처럼 분위기도 시간이 갈수록 맛을 더하는 듯 했다.

홍법사는 "152회째를 맞은 외국인 문화행사를 통해 외국인들이 우리 전통문화와 한국불교를 알리는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4월 17일에는 홍법사 교육관에서 외국인과 함께 '연등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불교문화 디지털로 재탄생

조계종부산聯, 불교문화콘텐츠연구원 창립

"불교문화원형의 콘텐츠 개발로, 세계인을 향한 한국불교 문화상품의 개발 및 산업화에 힘쓰겠다."

3월 18일 조계종부산연합회 교육관에서 열린 불교문화콘텐츠연구원 창립대회에서 이사장 정산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정산 스님은 "21세기는 문화산업이 국가발전의 승패를 가늠하는 최첨단 디지털시대로, 그에 상응하는 문화 콘텐츠 개발이 시대의 핵심 과제다"며 "불교문화의 대중화와 활성화는 물론, 세계인을 향한 문화상품의 개발 및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대회에는 일본 기타큐슈여자대 인간학과 아베 마사후미 교수, 제주대 주강현 석좌교수 등 국내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원은 불교문화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산업화를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추진한다.

(051) 756-5793 박지원 기자

부산 부광 시각장애인 불자회 윷놀이 대회

부산 부광 시각장애인 불자회(회장 윤정섭)에서는 시각 장애인들의 화합을 위한 윷놀이 대회를 3월 20일 시각 장애인 총연합회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대회는 32개 팀 64명의 선수와 관계자 및 도우미 등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됐다. 시각 장애인들의 윷놀이는 숫자가 표기된 젓가락 10개를 이용한 독자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윷판은 선수들이 암기 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대회 후에는 시상식도 마련됐다. 박기범 기자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접등 만월등 종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승하강 장치인 천상열차는 찬덕불교가 신개념 기술로 개발하여 기술특허(연등승하강 장치 10-0774542호)를 획득한 장치입니다.
이 기술을 모르는 일부 업체에서는 연등승하강장치에 대한 모방 및 비방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찬덕불교는 모방 및 비방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여가활동시설 확충할 터”

보 연 스님, 서원 노인복지관 6대 관장 취임



“전북 최초로 불교계에서 위탁운영하고, 하루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23명의 직원들과 200여 명의 불자 자원봉사자들이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관을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부관장으로 재임하다가 3월부터 제6대 서원노인복지관 관장으로 취임한 보연 스님의 첫마디이다. 스님은 부관장으로 부임할 때부터 하루에 2~3차례씩 복지관 구석구석을 살피고, 어르신들에게 살갑게 다가가면서 불편한 점과 개선점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스님은 이런 노력 덕분에 불교에 대한 어르신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자평한다.

서원노인복지관은 2002년 개관 이래 각종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면서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복지관에서는 몇 가지 특화사업을 실시 중이다. ‘생활학습권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는 유관기관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함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나눔 실천과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죽음준비교육-시작을 말하는 웰다잉’은 죽음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함과 동시에 웰빙을 위한 죽음 준비를 도와준다.

이 밖에도 ‘동아리 활성화 사업’ ‘전주시민한 소리하기’ ‘핸드폰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관 이용 어르신의 30% 정도가 불자인 사실은 지역 내 다른 복지관들을 타종교단체에서 위탁운영하면서 선교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연 스님은 “복지를 통한 포교의 장으로서 역할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내실 있는 활동으로 자연스런 복지사업의 포교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60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는 서원복지관은 회원 중 400명 이상이 교장선생님 출신으로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관은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타 복지관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심 중이다. 스님은 직원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친절과 봉사활동의 정례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연 스님은 또 올해에도 이미 복지관 지하층에 2000여 권의 장서를 구비한 북 카페를 열어 어르신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스님은 “지역 스님들의 후원으로 다양한 장르의 서적을 구비하는 한편 불교관련 서적을 구비해 포교의 장으로도 활용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규모를 50평 정도로 확장하는 한편 노래방 등 여가활용 시설도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보연 스님은 서원복지관 활성화의 가장 큰 이유로 금산사 주지인 원행 스님의 불교복지 원력과 지역 스님들의 후원, 불자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노력을 꼽는다. 스님은 또 다양한 장기를 가진 불교자원봉사자들이 복지관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복지관 관계자들과 이용자들이 서로 가족 같은 친밀감을 느끼는 인간미 넘치는 복지관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복지 서비스를 펼쳐 편안하고 신뢰받는 복지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증심사, 33선지식 초청 법회

첫 날 월 호 스님 법문, 300여 대중 참여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지장)는 3월 19일 취백루에서 33불교선지식을 초청해 ‘무등에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증심사 명사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회는 33명의 한국불교 선지식을 초청해, 무등산을 찾는 불자들과 일반인들에게 불교적 실천의 아름다움과 오늘날 인류 문제를 불교적 지혜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장에는 300여 명의 대중들이 모여 큰 호응을 얻었다.

첫째 강사로 나선 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학 강사)은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자신이 많은 이들의 행복을 위해 사느냐가, 그 길을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증심사 명사 초청법회는 올 한 해 동안 매월 음력 보름에 10명의 선지식을 초청한 가운데 법회를 봉행해 오는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증심사 관계자는 “불교의 지향점을 찾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욕심을 버리고 부처님 닮자”

전북불교회관, 도 영 스님 초청법회 봉행



전북지역 전법 교화도량인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주지 일원)는 조계종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완주 송광사 주지) 초청법회를 25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3월 20일 4층 큰 법당에서 봉행했다.

도영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탐진치 삼독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니 불자여러분들은 삶과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야 한다”며 “불자들은 마음으로 부터의 출가를 통해 욕심을 버리고 부처님을 닮아가는 불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를 주관한 전북신도회 김백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북 지역의 불자들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통해 지역불교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초기불전 불학승가대학원 개원

재 연 스님 초대 원장 취임… 한국불교 새지평 개척 기대



선운사 초기불전 전문 불학승가대학원 개원식 및 입학식.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3월 19일 조계종 최초의 초기불전 전문 불학승가대학원(원장 재연)의 개원식 및 입학식을 개최했다.

선운사 초기불전 불학승가대학원은 기존의 선운사 승가대학을 전환한 것으로 2년 간의 석사과정 동안 재연 스님이 원장을 맡고 각문 스님, 환성 스님, 도정 스님 등이 교수진으로 활동한다. 초기불전 불학승가대학원에는 6명의 학인이 입학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전 해인사주지 도성 스님, 일본고려사 태연 스님, 범어사승가대학 용학 스님,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연관 스님, 교육부장 법인 스님,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개원식에서 초대 원장 재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준비과정부터 어려움은 있었지만 여러 논의를 거치며 초기불전승가대학원이 개원하게 됐다. 부처님의 원음을 연구해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장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우리 한국 불교의 교학체계 가운데 그동안 잃어버린 고리를 채운다는 의미로 부처님의 원음을 공부하고자 초기불교를 중심으로 한 선운사 초기불전 승가대학원을 개설했다”며 학인스님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입학식을 가진 6명의 학인 스님들은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더욱 생생하게 알기 위해 초기불전을 연구하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지니고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새 지평을 열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서원했다.

한편 이날 개원식에는 전등사, 내장사, 내소사, 도솔암에서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초록봉사단에서 승가대학원 개원식에 맞춰 대중공양을 올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지역 불기 2555년 봉축일정 확정

4월 11일부터 전주시내 주요도로에 연등 설치

전북지역의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일정이 결정됐다.

전라북도 봉축위원회 (위원장 원행 · 금산사 주지)는 전북불교회관에서 지역 각 종단과 사찰, 신행 포교단체 등 스님과 불교지도자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봉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봉축행사 계획안과 예산 세부계획을 3월 19일 심의 의결했다.

이날 결의된 봉축행사 세부계획안에 따르면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이라는 주제로 4월 11일~5월 10일 한 달 간을 봉축기간으로 하고 4월 11일부터 전주시내 주요도로 10km 구간에 가로연등을 내걸고 동시에 선전 홍보탑 5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봉축행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4월 16일에는 전주 덕진 종합경기장 앞에 봉축 기원등을 점등하고 28일에는 35사단 세병호 연등제가 5월 7일에는 봉축 연등축제가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개최되며 각 시군별로 잇따라 연등축제가 열린다.

그밖에 단위사찰별로 전통등 만들기 대회, 연합합창제와 교도소, 복지 시설 등에서 부처님 봉축행사가 열리게 되며, 5월 14일 덕진 공원에서는 전북 어린이 큰 잔치로 봉축행사를 마무리 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남지역 사찰 ‘큰 시주’ 빙자 사기 극성

4월 11일부터 전주시내 주요도로에 연등 설치

전남지역 사찰에 큰 시주를 가장한 신종 사기가 극성을 부려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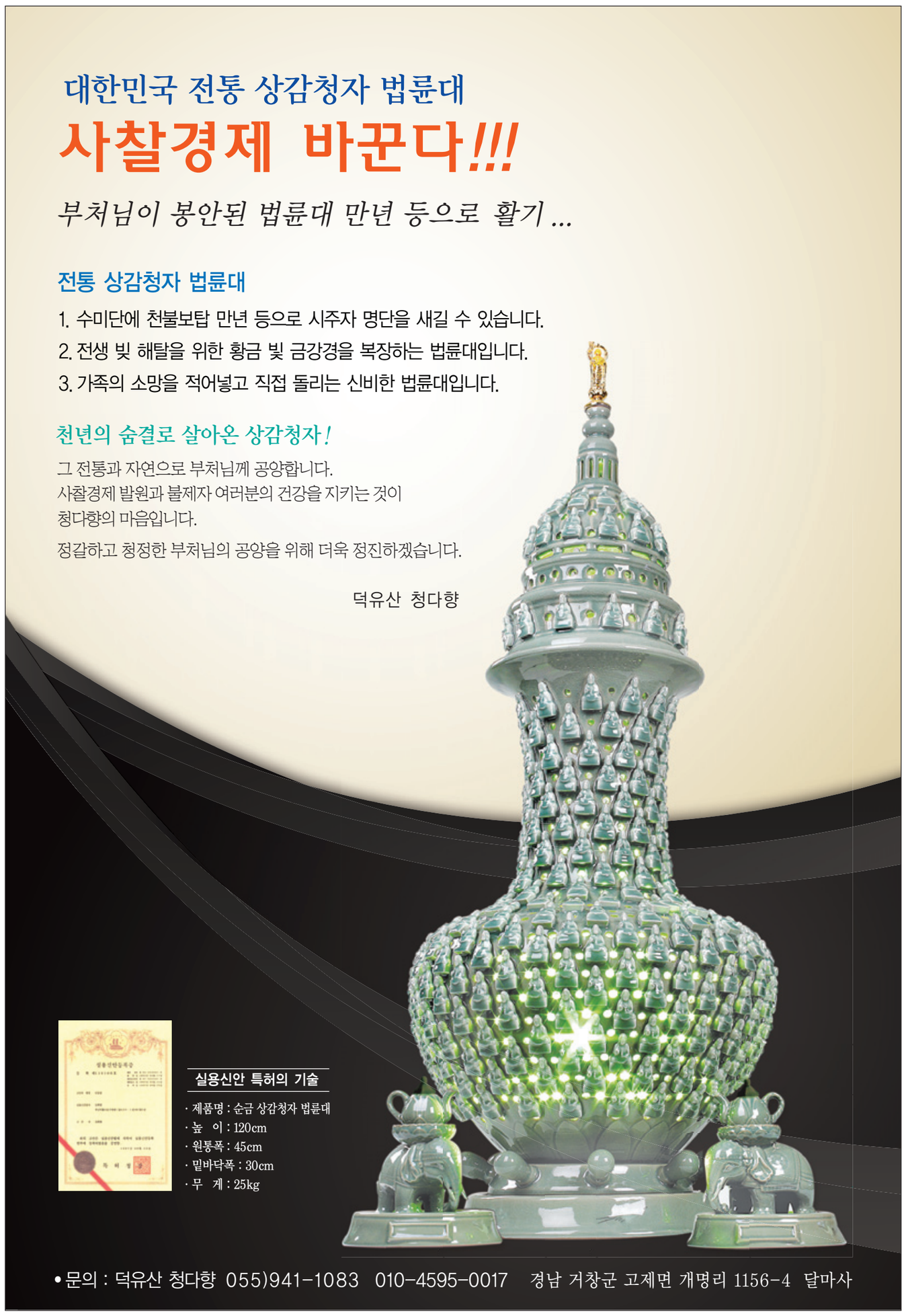
전남지역 모 사찰은 지난 연말 양복을 입은 한 노신사가 수표로 불전에 큰 시주를 한 뒤, 실수로 차비까지 불전에 넣었다, 스님에게 교통비를 요구했다. 이 사찰에는 지난 1월에도 한 신사가 찾아와 1억 원의 큰 시주를 할 생각이라며, 사찰에 체류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광주지역 또 다른 사찰에도 1월경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찰과 불교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여기에 고급 옷을 차려입어 행색만 보고 자칫 피해를 본 사찰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청 불자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난으로 각종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며 사찰의 주의를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적객들이 외롭게 거닐던 뜰엔 봄비가 내리고…



❹ 남해 용문사(龍門寺)



절은 젖어 있었다. 봄비가 다녀갔다. 단청도 젖었고, 산새소리도 젖어서 날았다. 봄비가 적시고 간 뜰엔 매화나무가 꽃을 피웠다. 꽃잎에 매달린 빗방울에 법당이 하나씩 담겼다. 햇살이 잠시 다녀가고 도량으로 운해가 몰려왔다. 산문 밖도 온통 운해가 지워갔다. 쪽빛의 바다도 사라지고, 법당 너머 차밭도 사라졌다. 그 옛날, 절의(節義)의 신하들이 마지막으로 살다 간 섬, 남해. 그들이 절망 속에서 바라보았던 용문사만이 운해 속에 남아 있었다.

법당 뒤 차밭으로 오르자 운해에 젖은 도량이 한 눈에 들어왔다. 당우와 당우가 촘촘히 붙어 앉은 도량은 호사로운 여백도, 아쉬운 바람도 없어 보였다. 용문사는 신라 문무왕 3년(663)에 원효 대사가 보광산(금산)에 세운 보광사가 전신이다. 이후 조선 현종 원년(1660)에 백월 스님이 지금의 호구산으로 절을 옮겼다. 중창을 거듭하던 현종 7년(1666)에 백월 스님이 대웅전을 짓고 나서 용문사라 했다.

용문사가 있는 남해는 그 옛날 유배지(流配地)였다. 대표적인 적객(謫客) 중 한 사람인 〈구운몽〉의 서포 김만중(1637~1692)도 남해에서 생을 마감했다. 〈서포집〉, 〈사씨남정기〉 등 그의 문학은 유배시절에 꽃을 피웠다. 특히 그의 소설 〈구운몽〉은 남해로 유배되기 전인 선천 유배시절에 쓴 것으로 그의 마음속에 '불교'가 있음을 말해주는 작품이다. 어머니가 그립던 어느 가을 날(어머니 생신 날), 그는 용문사를 바라보며 시를 썼고, 절망 속에서 바라보던 그 뜨락엔 지금 매화가 피었다.

억불(抑佛)의 땅 끄트머리에 지어진 작은 도량 용문사는 외롭고 쓸쓸했던 유자(儒者) 적객들에게 마지막 뜰이었다. 기약 없는 시간 속을 거닐며 들었을 풍경소리는 멀어진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리운 목소리였고, 잠 못 이루며 들었을 새벽 종소리는 그리운 목소리의 아쉬운 메아리였다.

절 어귀의 높다란 까치집이 운해 위에 떠있다. 젖어 나는 까치소리가 다시 도량을 적셨다. 기약 없는 외로움이 찾아온다면 남해(南海)가 내다보이는 용문사로 갈 일이다. 피할 수 없는 쓸쓸함이 찾아온다면 용문사 일주문을 건너볼 일이다. 절망 속에서 흐린 눈으로 바라보던 뜰이 거기 있고, 그 뜨락엔 기약 없는 삶을 신고 거닐던 그들의 발자국이 있기 때문이다. 까치집이 다시 운해 속으로 사라지고, 까치 울음소리만 젖은 도량 위를 날았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 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몸속(체온)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 체질에 따라 면역력이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8-10 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 통하여 많은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김상목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고귀명수(鼓龜命數) 완간 기념 파격 할인 실시

금번 육임나라(주)에서 발간한 '고귀명수'가 완간됨에 따라 그 기념으로 효사 육임 각 활용서 · CD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파격적으로 할인해 드리게 됨을 알리오니 이 기회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고귀명수

육임운명판단법 각 법칙들을 색인, 한 면 한 눈에 방문자의 일생사가 환하게 판단되도록 구성하였고, 시보 · 내정 · 신분 · 초사 · 귀신 · 부정 · 산소탈 · 가정사 등 당면사까지 정확히 적시해 놓아, 이 한질의 책이면 부족함 없는 사역을 수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정가 350만원 | 할인가 130만원 (60갑자 각 순별 10일치씩 전 6권)**

2. 효사활인천역집 2011 완결 최종판 CD 프로그램

육임산책 · 육임대계전서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 육임도사에게 물어봐 · 육임길흉성부상담록 · 육임궁합법 · 육임사주감정법 · 육임태아분만길일길시선택법 · 육임1년신수비결 등이 활용용으로 장착되어있고, 사주 · 월영도 · 매화역수 · 주역 · 성명학 · 택일 · 동의보감 등도 원터치 기능으로 종합되어 있습니다.

■ **정가 500만원 | 할인가 190만원**

3. 육임산책

당면사 판단에 이처럼 정확하고 효과성이 보장된 활인서는 동양 3국에 없습니다. 순별 6권 휴대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정가 250만원 | 할인가 90만원 (60갑자 각 순별 10일치씩 전 6권)**

4. 할인기간 2011년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19일간

- 미리 알아 먼저 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육임CD 프로그램과 육임 친견용 활용서로서 2011 개편 · 증보 · 정련 되었습니다.
- 지난 10년에 걸쳐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간편성'이 이미 검증되어 있고, 특히 귀신 · 빌미부정 · 귀물 · 묘지탈 적시 및 그 해소 방법이 백미 입니다. 유사(類似)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 오행초보자도 즉시 자신있게 활용하여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육임으로 판단하는

시보, 내정, 초사 과격상의, 내외사 유무, 상하(남녀) 이해사 유무, 표리사 유무, 방문시간과 월장관계에서 체출되는 변수상의, 방문자별 차객지정 등등을 한 면 한 눈에 달아놓았고, 일생의 대계 명시, 고비전념사 명시, 초년 중년 말년 운세 명시, 사법 행정 외무고시 합격자 확정 명시, 육임사복법 인물류에 의한 개개별 신분 직업 확정 명시, 평생 나이별 운세 명시, 띠별 운세 명시, 평생 나이별 신변 가정 직장관계 변수사정 명시, 재복 형제복 전택복 자식복 노복복 부부복 질액여부 거주주택복 관록복 노후복 상모형태 명시, 당면 정황 및 비밀사정 명시, 남녀 혼인기 명시, 배우자 용모 성질 명시, 육친별 신체장애자 명시, 귀신, 부정, 귀물, 산소탈 및 묘지 속 상태 명시, 이의 각 해소지침 명시, 운세별 변화직업 명시, 수명관계 명시, 개개별 고질병 치유 불치유 관계 명시, 평생 조력 해독관계 명시, 가정사 면모 명시 등등-

1인의 육임 왜 왔는가? 어떤 정황인가? 에서부터 그 사람의 일생사 및 당면사가 한 면 한 눈에 판단되도록 정형화로 구성, 그 백인백색적인 해석을 불식시키고, 판단의 일원화를 완성하여 여러분의 사역에 간편하되 더 높고 더 큰 차원으로의 아낌없는 도움을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육임운명판단법을 한 면 한 눈에 1人 및 그 가족 전체를 담아낼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만 근 1년이 소요되었고, 위의 모든 법칙을 사실적 명시로 한 자 한 자 정형화 시키는데는 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점을 주지해 드립니다.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 최종판 CD프로그램 – 원터치 기능에 의한 당면 정황을 미리 알아 순서대로 철저히 구변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승인 없이 여러곳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정 가 500만원
할인가 190만원



◀ 사주를 빼지 않고도 방문 시간별로 즉시 펼쳐 한 면 한 눈에 정확한 일생사 및 나이별 운세 등등 인생전반을 미리 판단하도록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 60갑자일 각 순별 10일치씩 전 6권 / B4규격

정 가 350만원
할인가 130만원



◀ 당면사를 거침없이 지적하고 세부적인 사안을 먼저 구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 시대 최고의 활인 활용서 입니다. 동양3국에 본 활용서와 같은 정확도와 효과성이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 60갑자일 각 순별 10일치씩 전 6권 / 휴대용

정 가 250만원
할인가 90만원

저자 저술안내

육임활용서 – ■ 효사육임복변집(좌정용 / 각 일별 60권) ■ 효사육임산책(휴대용 / 각 순별 6권) ■ 도사에게물어봐(1권) ■ 효사육임풍수(1권) ■ 불가법요집(1권)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12권) ■ 육임1년신수비결(1권)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1권) ■ 효사육임사주감정법(1권) ■ 육임대계전서(60권)
■ 오행제례의식집(1권) ■ 육임래정비법(좌정용1권 / 휴대용6권) ■ 도정기(1권)

육임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上·下(2011제8판 최종본) ■ 효사육임요지(1권) ■ 효사육임강의비디오(96개) ■ 위 각 활용 · 학습서는 2011 개정 · 증보판들 입니다.

역학문화를 선도하는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 육임컨텐츠개발전문회사 육임나라 주식회사

대표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78137 / 농협 301-0071-802701 / 국민은행 006001-04-236354 육임나라(주)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3호 육임나라(주) www.taotemple.net – 할인 관련 동영상보기

무소유는 철두철미하게 함께 나누는 공유



"장익 신부, 서강대 신학연구소 소장을 하고 나중에 서강대학교 총장을 했던 서인석 신부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어른들하고 신학 토론을 하면서, 자연스레 봉은사 나들이 길에 법정 스님에게 소개해드렸어요."

돈연 스님(66)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법정 스님과 친교를 쌓는 물꼬도 터드릴 만큼 다른 종교 가르침을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애썼다. 70년 대 중반, 베네딕도 수도원에 '불교는 심생즉종종법생 心生則種種法生이고, 심멸즉종종법멸心滅則種種法滅이라. 마음이 일어나면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모든 법이 사라진다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법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모든 걸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나서 함께 탁마를 해보자'는 편지를 보냈다. 얼마 뒤 베네딕도 수도원에서 다녀가라는 초대장이 왔다. 법정 스님에게 여쭸더니 흔연히 다녀오라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복잡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했다. "늘 그러세요. 제가 아주 어려운 책을 읽고 있으면 '재미없이 왜 그런 철학책을 읽고 그래?' 하고 조크를 하세요. 그게 애정 표현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한 보름쯤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느님을 믿으면 천국이 이 세상에 있다는 체험했어요. 순전히 불교 방식으로 한 체험이에요. 그 나눔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믿으면 사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를 깊이 있게 추구하는 저 같은 사람은 그것만으론 안 되지요."

스님 사상 원류가 어디서 시작하고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써야

10.27 법난 즈음, 돈연 스님은 총무원 교육국장을 맡았다. 계율 통합 계단을 만들어 제1회 통합계단을 통도사로 정했다. 네 분 스님을 모시면 성공이라고 봤던 돈연 스님은 법정 스님, 지관 스님, 일타 스님, 홍법 스님을 모셨다. 전개 아사리(화상)는 자운 스님이었는데 그때 자운 스님은 법정 스님을 말과 행동이 같은 균형 잡힌 분이라고 평가를 했다.

법정 스님을 당신이 열정을 바쳐서 모셨던 분이라고 돌아보는 돈연 스님은 삶과 경전, 사회를 조화시키는데 그 이상 가는 승려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한다. "스님은 기준이 아주 명확하고 역사의식이 투철하신 논리에 딱 들어맞는 어른이셨어요. 정치발언은 하지 않으셨지만, 사회에다가 더듬이를 두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셨죠. 늘 조심스럽게 살고, 당신 그릇보다 더 크게 쓰고 간 어른"이라면서, 법정 스님은 당신이 계획한 대로 살다 간 어른으로 CRM(고객만족 경영)은 물론이거니와 당신 만족경영도 참 잘하셨다고 말씀한다. 돈연 스님은 법정 스님 입적 뒤에 나온 책이나 글들이 스님 사상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 깊이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법정 스님 사상 연구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승려는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자유사상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아주 굳으셨던 법정 스님. 수행자는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임을 깨달아 무소유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스님들 새 옷 싫어 다투는 모습에 고시공부 왔다가 송광사서 출가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 돈연 스님은 지인을 통해, 길상사를 꼭 종단으로 귀속시킬 일이 뭐가 있느냐면서 무소유는 마치 길처럼, 철두철미하게 함께 나누는 공유共有다. 길이야 공산주의자도 지나가고 민주주의자도 지나가고 여자건 남자건 따지지 않고, 누구라도 지나가면 되지 않느냐. 송광사로 귀속되나, 법정 문도가 갖나 거기서 거기다. 세상 궂은일을 해서 모은 재산을 내놓은 분은 불교에서 가져가면 많은 사람들이 좋게 쓰리라는 생각에서 보시했지만,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람도 많으니까 종교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 삶터나 장터가 되도록 일반 사회단체에다 기증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세상을 뒤바꾼 부처님 성지도 초라해요. 석가모니가 몇 천 명 앞에서 법을 설했다는데 시간이 이천 몇 백 년 지나니까, 다 사라지고 자취도 없습디다. 온 곳으로 돌려보내야 해요. 사회에서 왔으니까 사회로. 그 사회가 공원을 만들던지, 빈민구제소를 만들던지 알아서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무소유 정신이 살아나지요." 부처님이 깨달은 당처當處를 '0'이라고 한 〈0의 행복〉 저자 이규항 선생은 '0'을 중도中道, 본디 자리라고 이른다. 그와 같이 온 곳으로 되돌리는 게 자연스런 세상이치라는 말씀이다.

출가를 언제 어떤 계기로?

"저는 절에 공부하러 갔어요. 목표가 고시합격이었는데, 몇 년씩 끌 게 아니라 절에 가서 일 년쯤 빡세게 공부해서 합격을 하는 게 났겠다 싶었어요. 그 때 62년인가? 화폐개혁을 할 때였어요. 저희 집 소작인들이 빳빳한 새 지폐로 소작료를 내러 왔는데 마침 어른들이 나들이나가시고 안 계셔서 제가 그 돈을 받았어요. 빳빳한 돈을 탁 받고 나니까 '이제 어디로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튀었어요." 그렇게 간 곳이 송광사였다. 석 달 치 방세를 미리 내고 방을 하나 얻었다.

"하루는 스님들이 다퉈요. 누더기를 입고 온 스님한테 스님 한 분이 '누더기를 날 주고 새 옷을 입고 가라'고 그랬는데, 누더기를 입은 스님이 '스승에게 물려받은 옷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요. 바꾸자는 새 옷이 아주 좋은 옷이었어요. 명주에다가 기가 막힌 건데 싫다고 다투더라고요. 한참 구경을 했죠. 결국 바꾸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좋은 옷을 준다는데 그걸 마다하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그게 궁금해서 '눌러 앉자.' 마음먹고는 송광사에 얘기하니까 처음엔 믿지 않는 거예요. 고시 공부하러 왔던 학생이 중이 된다니까. 며칠을 두고 거듭 우기니까 나중에 받아주더라고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종교가 필요한데 출가 지향이 아니라 재가 지향이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수행자는 따로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돈연 스님. 수도자라 부르든 목회자나 성직자라 부르든 그 자체가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한다. "수행은 누구라도 저마다 제 일터에서 자투리 시간을 써서 하면 돼요. 재가자로 만들어진 수행이 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스를 열자. 다 열어놓고 힘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거지.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부처님 생각이었어요. 송광사를 가든 해인사를 가든 절에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70%가 예배 공간이에요. 주거 공간은 한 20%쯤 됩니다. 나머지 10%는 절살림을 사는 사람들 공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나머지 시간엔 죽은 공간이에요. 국사를 모셔놓고 일 년에 한두 번 재를 지내요. 그 곳을 그냥 놔들 까닭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자고 가게도 하고, 이벤트나 잔치를 해주는 공간으로 써야지요. 쓸모없는 공간이 넘쳐나는데도 자꾸 뭔가를 지어대요. 쓸 방법을 찾지 않고. 경제논리에 어긋나요."

79년도에 독일 유학을 가려고 괴테 인스튜티에서 공부하던 돈연 스님은 송광사로 내려오라는 법정 스님 부름을 받고는 송광사에 내려가 교육을 맡았다. "거기서 또 스님을 육칠 년 모시고 살았어요." 그때 돈연 스님은 수련회를 맡아 절을 출가자 중심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판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삼환양초 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신제품 1인1촉 연꽃밀납양초를 개발하였습니다.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구성되어 있어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제품입니다. 특히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정업을 할 수 있습니다.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배치모습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디자인특허출원 제30-2011-0010353 제30-2011-0010355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삽!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에서 재가자들도 함께하는 수행도량으로 탈바꿈시켰다. "옛날 수련회는 학교에서 불교 학생들이 교수 모시고 4박5일 동안 한두 차례 얘기를 듣고 산이나 타고, 스님들한테 한 두 차례 강의 듣고 마는 노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법정 스님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해 여름 송광사에 수련회를 신청한 학교가 일곱 개 학교였는데 불교학생회장들을 불러 앉혀놓고 '사박오일 출가'라고 제목을 붙이고 수련회 프로그램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면 장소 빌려주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숙대, 이대를 비롯한 몇 개 대학만 참가했어요." 교육원장이었던 법정 스님을 모시고 동참자 모두에게 승복 만들어 입히고, 발우공양을 시키고, 법문 듣고, 참선도 하게 해 수련회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그 뒤로 송광사 수련회는 수련대회 기준이 되었다. "템플스테이 원조지. 그때 템플스테이 구상까지 다 해놓았었어요."

아이에게 재밌고 맛있는 어린이 경전이 필요하다

1987년 돈연 스님은 활성 스님, 강연심씨와 함께 '고요한 소리'라는 단체를 만들어 사람들이 초기경전에 눈을 돌리게 이끌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경전읽기모임'을 만들고 이어 경전연구소를 만들어 초기불전인 빠알리 경전 번역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원전을 정확히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스님과 불교학자들이 턱없이 모자란 현실을 넘어서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2년 연구소에 불이나 안타깝게도 번역한 원고가 모두 타버렸다. 망연자실. 하지만 돈연 스님은 폐허 위에서 추스르고 마음을 모아 다시 경전을 번역하는 일을 이어왔다. "제가 새로운 불교운동을 할 만큼 행동주의자도 못돼요. 시를 쓰고 철학을 하는 가운데 결혼도 하고 그랬으니까, 모든 걸 다할 수는 없으니 번역 일 만큼은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전연구소를 만들고, 사업을 해서 조그만 이익이라고 얻으면 거기에 써왔습니다. 경전은 승려들을 위해서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역경 사업은 용성 스님이 〈화엄경〉을 번역한 일을 필두로 운허 노장 스님 염원에 힘입어 법정 스님을 비롯한 돈연 스님, 그밖에 여러 어른들이 꾸준히 애써온 바탕 위에 뿌리내리고 꽃을 피웠다. 이제 부처님 육성이 고스란히 담긴 빠알리 경전도 여러 곳에서 번역되어 나와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부처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돈연 스님 경전 번역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으로 가고, 6학년에서 중학교로 가는 때에 읽을 경전을 만드는 게 제 바람에요." 아이들이 재밌고 맛있어할 경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어린이 경전 만드는 일을 놓지 못하고 있는 돈연 스님. 된장 만드는 사업도 부진한 지금, 어린이 대장경 만드는 일을 이어가기 쉽지 않고 힘에 부친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돈연 스님은 한발 한발 작지만 큰 걸음을 내디딘다. 앞날 부처님을 위해. 이 소중하고 도타운 맑고 향기로운 사업을 함께할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돈연, 그는 과연 누굴까?

된장 항아리는 파리나 다른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소창이나 광목으로 덮는데 올해는 헌 것을 모두 벗겨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소창을 440마를 끊었다. 동그랗게 잘라서 박음질을 해 고무줄을 끼우는데 한 달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집을 다녀간 사람이면 거의 누구나 천을 자르거나 재봉질, 고무줄 끼우는 일에 동참해 주었다. 말이 1500 개지 정말 많았다. 드디어 일을 끝내고 헌 덮개를 벗겨내고 새 덮개를 덮었다. 팔이 떨어지듯 아팠지만 다 덮고 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흐뭇하게 항아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왔다.

"어머, 지금 막 덮개를 다 덮었는데. 고무줄을 끼웠더니 훨씬 깔끔하다."

여러 사람 도움으로 일을 마치긴 했지만 내심 '참 애썼구려.'라는 칭찬을 기대하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아니, 이거 삶지 않았잖소. 혹시 소창에 묻어있는 표백제가 된장에 닿기라도 하면 어찌되겠소?"였다. 나도 이걸 삶아서 덮을까도 생각했었다. 그러나 덮개 밑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소금을 얹기 때문에 문제없으리라고 여겼다. 뿐만 아니라 덮개를 다 빨아서 널어 말릴 일도 만만치 않았기에 어차피 방충망 구실일 뿐, 항아리 위에 덮는 건데 별일이 있으랴 싶었다. 남편은 항아리를 한 바퀴 돈 뒤 말했다.

"모두 걷어서 삶으시오." 그뿐이었다. 너무나도 짧은 한 마디.

망연자실 서 있었다. 그 매정함이라니.

'제기랄.'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이게 웬 시집살이람! 아니야, 내가 생각이 짧았다. 짧았어."



도완녀 님이 쓴 책 〈남편인 줄 알았더니 남편이 아니더라〉에 나오는 꼭지다.

(지난 연재 〈영혼의 모음〉 첫 발행일이 1993년 1월이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스님은 머리를 깎았다가 다시 길렀다. 왜 그랬는지 속속들이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포함해 얼굴에 깊게 잡힌 주름이 유난히 굵은지 조금은 가늠할 수 있다. 나 역시 주름이 늘었기 때문이다. 스님의 얼굴이 자연스레 다가오고 웃음도 마찬가지고 생각하는 모습도 그렇게 다가온다. 처음 스님을 만났을 때 여러모로 생경했었다. 시간이 생경함을 지웠다. 법정 스님은 아직도 친근하다고 말할 수 없다. 제일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 말이다. 언젠가 스님도 내게 다르게 다가 올 것이다. 돈연스님처럼…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주인공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것은 그리움이다. 하늘의 영롱한 별을 보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세어 보던 일, 여름밤에 모깃불을 피워 놓고 바튼 기침을 하며 뿌연 연기에 눈물을 짜던 일, 몇이서 서리를 하다 주인에게 들켜 나란히 서서 서머하던 일, 눈 내린 밤의 기적소리, 은죽(銀竹)이 쏟아지는 여름날 물길 따라 오르고 있는 미꾸라지를 보고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고 신기하게 생각했던 일 들이다. 이 모두가 사설(私說)이라고 치부해버리거나 속단하기엔 그저 그리움으로 남는다.

삼국통일의 기수 장군 김유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고향마을을 지났다. 대열에서 조금 벗어나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그리운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나, 김유신은 부하를 시켜 자기 집에 가 간장을 좀 얻어오라고만 했다. 장군은 마상(馬上)에서 간장을 마셨다. 그 간장 맛이 예와 다름이 없는 것을 알고 노모가 여전하심을 믿었다. 맛의 그리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숭이의 뇌는 300cc이고 인간의 뇌는 1500cc라고 한다. 보고 듣고 맛보는 것을 잊고 사는 현대인 모습에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송나라 무문 스님은 속성이 양(梁)씨이고 항주(抗州) 사람이다. 1229년 〈선종무문관〉을 발행했다. 스님은 점심공양시간을 알리는 북소리를 듣고 활연대오했다. 공안 48칙이 실려 있는 〈무문관〉 제12칙은 '암환주인(巖喚主人)'이다.

서암언(瑞巖彦) 스님은 매일 스스로를 "주인공!"하고 부르고, 스스로 "예!"하고 응답했다. 이내 말하기를 "정확히 오도에 이르렀는가?" "예". "후일에 남에게 속지 말라." "예", "예".

스님은 천성이 둔하기 그지없었다고 한다. 멍텅구리인지 천치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정도로 아둔패기였다. 그래서 도를 이루기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눈총께나 받았던 모양이다. 어느 날 신도집에 공양청을 받아 갔을 때, 함지박에 진주를 내놓으며 스님들에게 골라 갖도록 했다. 여러 수좌들은 다퉈가며 맘에 드는 알을 골라 주머니에 넣었다. 서암언 스님은 뒷전에서 구경만 하다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알을 집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흡족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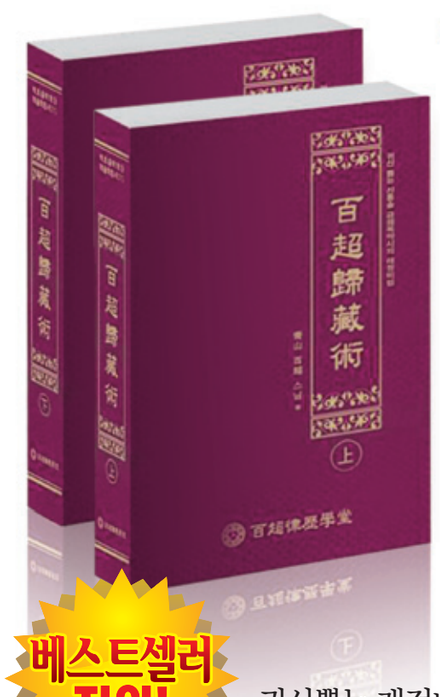
선에서는 곧 잘 소를 등장시키곤 한다. 십우도가 그 좋은 예이다. 소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기우귀가(騎牛歸家)'의 모습에서 여유가 무엇인가를 느끼게 된다. 소는 느리지만 천리를 가고 토끼는 제아무리 빨라도 십리도 못 간다.

주인공(主人公)은 우리 마음에 내재한 참마음을 비유한 말이다. 참마음은 누구나 지니고 있는 불성이고 진심(眞心)이다. 여기서 '주인공'과 '예'를 구별해 주인공이 주(主)가 되고 예는 객(客)이 된다고 알아서는 큰 잘못이다. 화두를 챙긴다는 것도 챙기는 나와 화두 사이에 처음에는 주객의 관계로 마주하나 종국에 가면 나와 화두가 하나가 되는 경지야말로 산 공부가 된다. 이러한 경지를 초월이라고 한다. 그런데 초월에만 머무른다면 공(空)에 떨어진 것이다. 선에서는 낙공(落空)을 무척 꺼린다. 초월했으면 당연히 너와 나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왔다가는 초월에 이르고 초월했다가는 다시 되돌아온다. 이러한 순환 과정이 없으면 죽은 고목에 지나지 않는다. 바다에 밀물과 썰물의 순환이 없다면 생명의 순환 또한 불가능한 일이다. 순환은 창조를 낳는다. 순환은 생명의 에너지가 된다.

화두가 하나 되는 경지가 참공부 각자의 주인공을 바로 알아야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을 생각한다. 자귀의 법등명(自歸依 法燈明). "비구들아! 그 무엇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그리고 진리의 불을 밝혀라." 혹시 어느 독자는 우리 절, 우리 스님만 믿고 있지는 않은지. 서암언 스님이야 말로 자신에 의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깨어있는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잃고 사는 사람이다. 일생 하늘을 이고 살면서도 하늘의 높이를 모르고 일생 땅을 밟고 살면서도 땅속 깊이를 모르고 산다. 백번 양보해 그도 좋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것은 각자의 주인공 아니던가.

동국대 선학과 교수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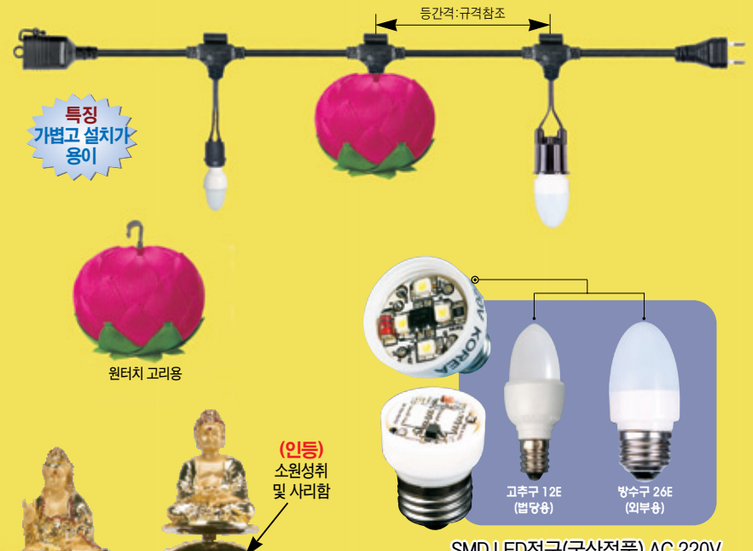
베스트셀러 진입!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
입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 임현주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재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정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노랑·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도대체 나는 누굴까?” 의문이 떠오르고 말았다

수리아의 검-Ⅱ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이야기의 시작 – 운명과 예언 (4)

‘도대체 나는 누굴까?’ 이 의문이 또 떠오르고 말았다. 무니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머리를 흔들었다. 그 답을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머리만 아플 뿐이다. 하룻밤도 빼놓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얻은 결론이다. 그냥 얼른 집에 가서 엄마가 타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싶다. 무니는 미끄러지듯 눈길을 뛰어 내려갔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누군가와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다.

“유리 영감님 집에 다녀오나 보구나.”

고개를 들어보니 촌장이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소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른이 묻는 말에 왜 대답을 하지 않지?”

무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촌장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을 전혀 부자연스럽게 대하지 않았다. 무니는 오히려 그게 불편했다. 촌장이 내민 손을 잡고 일어난 무니는 엉덩이를 툭툭 털었다. 그리고 고개를 한 번 푹 숙여 보인 후, 뒤돌아 걸어가기 시작했다. “무니야.” 촌장이 그런 소년을 다시 불러 세웠다.

“무니라고 부르면 바로 돌아보는구나.”

무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는 표정을 지었다.

“이 마을에서 무니는 벌써 죽었는데 말이지.”

무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촌장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무서운 얼굴이었다. 소년은 다시 뒤돌아보는 일 없이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차를 끓이고 있던 마야는 아들이 집 안으로 바람처럼 뛰어 들어오자 깜짝 놀라 쳐다봤다.

“별 일 아니야. 오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바지가 좀 젖었어. 그래서 뛰어온 거야.”

무슨 일인지 눈빛으로 묻는 엄마에게 무니가 대답했다. 마야는 얼른 차를 따라서 아들에게 건네주며, 부드러운 표정으로 “오늘도 재밌었어?”라며 물어보는 시선을 보냈다.

“응. 재미있었어. 그런데 엄마, 그거 알고 있었어? 난다는 글을 읽을 줄 안대. 역시 남이 읽어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읽는 게 더 재밌을 거 같기도 해. 그렇지, 엄마?”

마야는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듯 웃어 보이고는 아들 앞에 갓 구운 빵을 내주었다. “우와!”하며 맛있게 빵을 먹는 아들의 모습을 마야는 흐뭇하게 쳐다봤다. 그런데 순간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파왔다.

“엄마, 또 머리 아파?”

무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마야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몇 달 전, 무니가 태어난 후부터 간혹 이렇게 두통이 심해질 때가 있었다. 이럴 때면, 이상하게 무니 위로 어떤 영상이 겹쳐보이곤 했다. 어째서일까. 어쩌면 잃었던 기억들이 돌아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마야는 무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는 한숨을 내쉬었다.

유리 영감은 난다와 대화를 마친 후 집을 나와 오랜만에 집 뒷산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곳은 개인 실험실이자, 그가 아직 패기에 넘치던 젊은 시절 ‘탐험가 쿠샹의 도서관’을 비롯해 여러 도서관에서 구해온 고대문헌들을 보관해 놓은 서재이기도 했다. 그는 일단 화로에 불을 피운 다음, 한 책장 앞에 섰다. 다른 것들과는 달리 나무로 문을 만들어 가려놓은 특이한 책장이었다. 유리 영감이 각각 태양과 달로 보이는 두 손잡이를 전후좌우로 움직이며 교차시키자 문이 열렸다. 그는 거기서 리시의 예언서를 꺼냈다. 창밖을 보니 또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야겠군.”

그는 책상 쪽으로 화로를 끌어당긴 후 편하게 의자에 기대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무니가 태어난 지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난다는 “원래 일 년 전에 줬어야 하지만.”이라고 말하며, 생일선물로 칸타카를 주었다. 그리고 유리 영감은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익히라며 책을 선물했다. 그러나 마야는 무니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했다. 그 날은 형 무니의 생일이며 그가 죽은 지 1년하고도 이틀이 지난날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지금의 무니는 무엇보다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슬픔 역시 아직은 너무 컸다.

무니는 생일 아침, 그런 엄마를 배려하기 위해 아침밥을 먹자마자 칸타카를 끌고 집을 나섰다. 난다와 난다네 집 뒷산에서 놀기로 약속 해뒀기 때문이다. 무니는 유리 영감네 집 문을 두드렸다.

“어머. 무니 왔구나.”

난다의 어머니 아베레였다. 모두 키가 큰 이 집안에서 키가 가장 작은 그녀는 동그란 몸매에 따뜻한 미소를 지녀서 푸근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 무니는 난다네 엄마를 볼 때마다 마치 갓 구운 빵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응. 난다는?”

“아직 자고 있단다. 혹시 약속을 한 거니?”

무니는 고개만 끄덕거렸다. 어른을 대하는 건 언제나 껄끄러웠다.

“아. 그렇구나. 오늘 네 생일이지?”

“응.”

무니는 시선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다. 아베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일단 들어오렴. 안 그래도 아침에 맛있는 산딸기즙을 만들어놨는데, 무니 너도 좋아하지?”

그런데 부엌으로 앞서 걸어가던 그녀가 갑자기 뒤돌아서 무니를 바라봤다.

“그런데 말이야. 무니 너, 언제까지 그런 말투를 쓸 거니?”

무니는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변명하듯 말했다.

“고쳐지지 않는 걸, 요…….”

“후후. 하다보면 될 걸. 하지만 우리 난다하고만 놀면 더 고쳐지지 않을 거야. 그 녀석도 이제 좀 말투도 어른스럽게 고치고 그래야 할 텐데. 아무튼 무니 너, 다른 친구들하고도 가끔은 어울리고 있는 거지?”

이 질문에도 무니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다.



삽화 · 김홍인

아베레는 자신이 아이에게 괜한 말을 했나 싶어 입을 다물었다. 대신 우울한 표정이 된 무니의 코앞에 달콤한 산딸기 즙을 들이 밀었다. 무니는 조금 망설이더니, 더 참을 수 없다는 듯 컵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단숨에 다 마셔버렸다. 우울했던 기분마저 날려버릴 만큼 달콤한 맛이었다. 엄마한테도 가져다주면 좋아할 텐데. 그런 무니의 표정을 눈치 챈 아베레가 말했다.

“맛있지? 난다네 아빠가 누프르산에서 따온 거란다. 거기서 자란 산딸기가 제일 맛있지. 나중에 집에 갈 때 들리렴. 좀 싸줄 테니까. 그나저나 난다는 친구랑 약속을 해놓고 아직도 안 일어나다니.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이 아줌마가 깨워주마.”

아베레는 일부러 우당탕탕 발소리를 내며 난다의 방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난다가 눈을 뜨자마자, 함께 집을 뛰쳐나와 뒷산으로 뛰어올라갔다. 칸타카도 좋은지 가장 먼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 봐. 정말 맑다.”

난다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친구의 말에 무니도 하늘을 바라봤다. 그야말로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이었다.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졌다.

“뭔가 이상해. 처음 보는 거 같아.

“응? 뭘?”

“하늘 말이야. 이런 하늘을 오늘 처음 보는 거 같아.”

“나도 처음인데, 뭐.”

무니가 난다를 바라봤다. 친구는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원래 모든 일은 새로운 일이거든.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니고, 이 하늘도 어제의 하늘이 아닌 거라고.”

무니는 피식 웃고 말았다. 유리 영감이 언젠가 그들에게 해줬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난다도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 진짜. 그런데 할아버지 땜에 귀찮아 죽겠어.”

“유리 영감이 왜?”

“요즘에는 고대어 공부까지 시키신다고 했잖아. 매일매일 숙제야. 내가 그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늦잠을 잔 거라고.”

“숙제? 그게 뭐야?”

“그게,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고대어를 배운 다음에, 나중에 혼자서 공부를 하고 할아버지한테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지. 종이나 책 같은 데 적어서. 아님 외운 걸 들려주거 나.”

난다의 말에 무니의 표정이 좀 어두워졌다.

“그럼 오늘도 일찍 가봐야 해?”

“아니. 오늘 공부는 저녁에 하기로 했거든.”

“그럼 숙제는?”

“몰라. 될 대로 되겠지. 당장 오늘까지는 아니니까, 내일하던가.”

“넌 뭐든지 내일 한다고 하더라.”

“야. 너 내일이 왜 있다고 생각해?”

무니는 잘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러자 난다가 씨익 웃으며 말했다.

“오늘 할 일, 내일 하라고.”

난다는 무니의 황당한 표정을 봤는지, 못 봤는지 그냥 다시 뒤로 벌렁 드러누우며 계속 말했다

“근데 너도 방심할 때가 아니야. 내 생각엔 말이야. 할아버지가 너도 곧 공부하러 오라고 하실 거 같아.”

“진짜?”

무니는 깜짝 놀라며 난다를 쳐다봤다.

“할아버지가 선물로 너한테 주신 책, 그거 나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본 책이거든.”

“아, 이럴 수가!”

무니는 난다의 말에 머릴 감싸 쥐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7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4월 14일까지

◆ 개강일시 : 2011년 4월 15일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심인불교대학 <心印佛教大學>
2011년 제1기 심인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근본사상(佛教根本思想)과 대승보살(大乘菩薩)의 실천수행(實踐修行)을 기본(基本)으로 하여 즉신성불(卽身成佛)을 대원(大願)하는 **‘심인불교대학’ 법우(法友)를 모집**합니다.

모집과정	재가불자, 법사, 비구, 비구니(승려)
교육기간	● 입학 : **2011년 4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 졸업 : **2011년 10월 2일 (일요일) 6개월 과정**
교육과목	■ 불교(佛教)란 : 근본불교(根本佛教)의 기본사상(基本思想) ■ 밀교(密教)의 삼대사상(三大思想) – 〈육대(六大), 사만(四曼), 삼밀(三密)〉 ■ 만다라(曼荼羅) 〈화엄(華嚴)사상(思想)〉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 〈우리나라 만다라, 화엄신중, 감로만다라(탱화)〉 ▫ 불신론(佛身論) = 밀교의 삼륜신(三輪身), 현교의(三身佛) ▫ 진언과 수행(眞言과 修行) = 삼밀정진(三密精進) ▫ 진언염송(眞言念誦) = 육자대명왕진언〈옴마니반메훔〉
특별과목	● 공사상(空思想) = 空이란? ● 운명과 숙명(運命과 宿命)이란? ● 명상법(冥想法) = 위빠사나 수행법, 참선수행법 ● 밀교(密教)의 성불론(成佛論)과 현교(顯教)의 성불론(成佛論)
교육시간	● 매주 : 일요일 오후 2시부터 ~ 오후 4시까지 2시간
교육장소	● 무애정사 〈심인불교대학〉 ● 법사과정 : 대학졸업자

※ 수강료 교재비 무료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심 인 불 교 대 학 무 애 정 사

문의 : 031)675-3837, 팩스 031)675-3827, H·P 011-9356-3653 (법운 합장)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688-7번지 삼현빌딩 3층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㉖ 장안(長安)의 불교

장안에는 구마라집·현장의 숨결이



구마라집이 머물렀던 초당사.

당나라 시대 한국 구법승들은 중국을 방문하면 장안(長安; 현재의 서안)을 거쳤다. 장안은 고대 중국 13개 왕조의 수도로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불교포교의 중심지였다. 또한 실크로드의 시발점이자 동·서 문화 교류의 장이었다. 수·당시대에 중국에서 활동한 한국의 구법승들은 주로 장안을 무대로 활동했다. 장안의 도성에서 활동한 경우도 많았지만 장안 남쪽의 종남산(終南山)과도 인연이 깊다.

장안지역은 중국에 불교가 전래 된 초기부터 중요한 지역이다. 동아시아 불교의 중심지답게 수많은 유적이 있지만, 특히 이 지역의 역사를 생생히 전하는 초당사(草堂寺)와 자은사(慈恩寺)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로 동아시아 불교에 빼놓을 수 없는 구마라집과 현장이 머 문 곳이기 때문이다.

중국 장안은 동아시아 불교 중심
구마라집-초당사, 현장-자은사
인도불교를 동아시아 불교로 바꾼 곳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은 초당사(草堂寺)인데, 이곳은 서안(西安)에서 서남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종남산에서 보면 지봉(支峯)인 규봉산에서 서안 방향으로 들어서는 초입의 평야에 위치한다. 정업사와 풍덕사가 있는 종남산 풍욕구(豐峪口)에서 서쪽 방향이다.

초당사에는 구마라집의 혀로 만들어 졌다는 사리탑이 경내에 있다. 절 후원에 팔각형으로 만들어진 사리탑은 전체모습이 수미산의 모습을 닮았으며, 높이는 2.5m이다. 하단부에는 연화문양에 각종 천인(天人)을 조각했다. 본체부분은 팔각으로 창틀의 모양을 본떴다. 상단부는 부도의 상륜인(相輪印)처럼 꾸며 놓았다. 돌은 서역산(신강성)으로 반질거리는 검은 빛깔의 대리석이다. 세워진 연대는 구마라집의 입적 직후인 5세기 후반이다. 중국인이 아니었으면서 가장 중국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언어로 경전을 번역한 구마라집은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에 불교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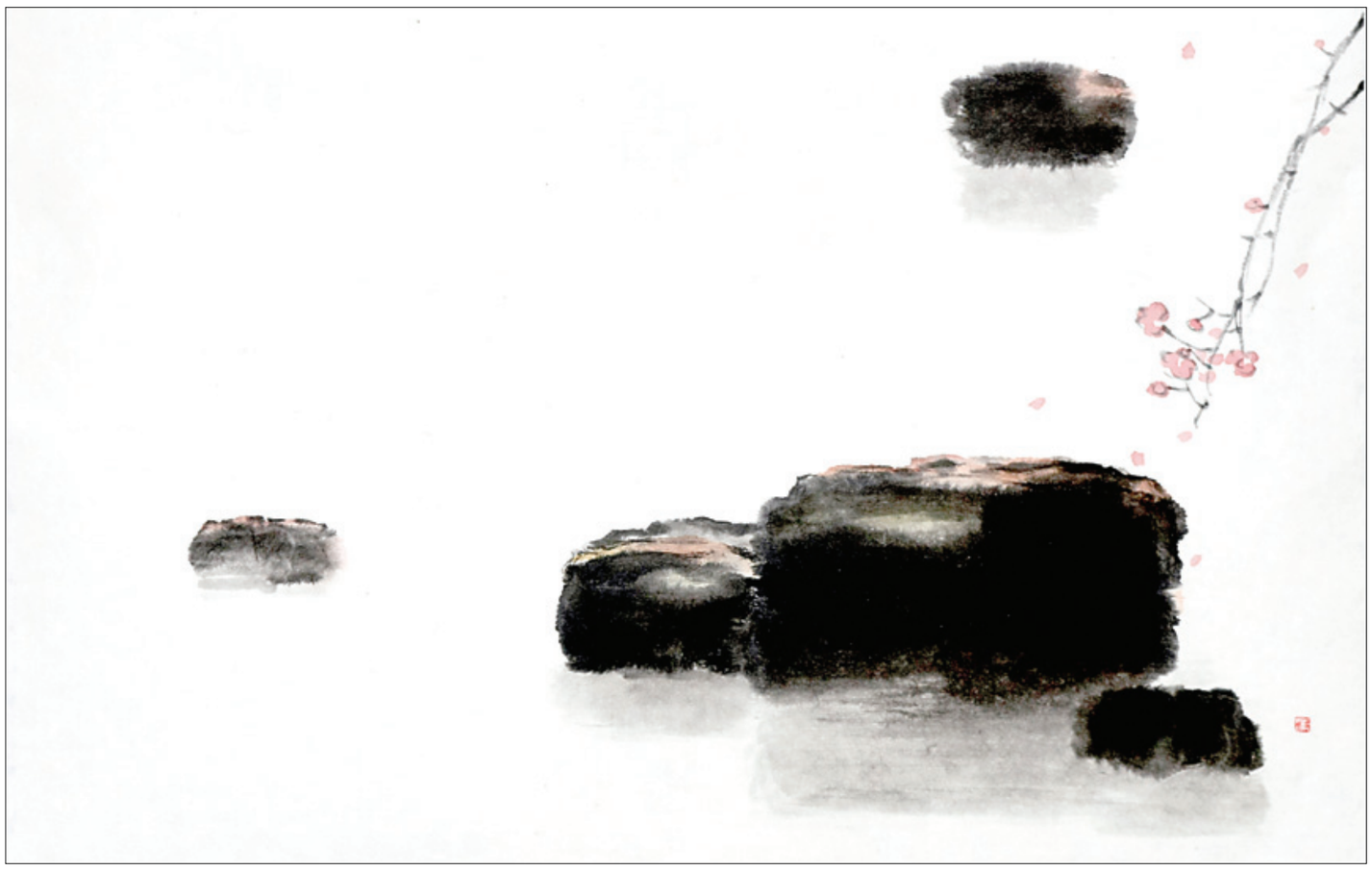
현장삼장과 가장 관련이 있는 곳은 자은사(慈恩寺)다. 특히 자은사는 일명 대안탑이라고 불리는 자은사탑이 있어, 현장을 상징하는 장소이다. 원래는 장안성내 진창방(晉昌坊)의 동쪽에 해당하는데 648년에 처음 건립됐다. 자은사탑은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세웠다. 현재의 탑은 정방형 10층이지만, 측천무후 때는 7층이었다고 한다. 당시 유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탑뿐이고, 나머지는 최근에 복원된 것들이다. 본전의 뒤편에 대안탑이 있고, 지금은 대안탑의 뒤편에 현장기념관이 세워져 있다. 이곳은 현장이 귀국한 후 역경원으로 사용됐던 곳이며, 그에 의해 새로 이룩된 유식학파인 법상종(法相宗)의 본산이기도 하다.

인도의 불교를 동아시아의 불교로 바꾸어 놓은 두 사람의 흔적은 오늘도 장안의 땅에 전한다. 바로 이러한 동아시아인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은 불교경전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양수의 **선화(禪畵) 읽기**



바람 곁에 꽃이 피니

섬진강변에 매화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물과 바람과 햇살과 꽃들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풍경에 눈이 부십니다.
함께 나눌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감상**④ **조선 설잠 스님의 '대언(大言)'**

돌아와 인간세상 좁다 멋대로 비웃노니

碧海投竿釣巨鼇 (벽해투간조거오) 푸른 바다에 낚싯대 던져 큰 자라를 낚고
乾坤日月手中韜 (건곤일월수중도) 하늘과 땅, 해와 달을 손안에 감추었도다.
指揮天外凌雲鵠 (지휘천외능운곡) 하늘높이 구름 넘는 고니를 지휘하고
掌攝山東蓋世豪 (장괵산동개세호) 산동의 세상 뒤덮던 호걸들을 손으로 쳐버렸네.
拶盡三千塵佛界 (찰진삼천진불계) 삼천의 중생계와 부처 세계 다 눌러 버리고
呑窮萬里怒鯨濤 (탄궁만리노경도) 만리의 세찬 큰 파도 다 삼켜버렸네.
歸來浪笑人寰窄 (귀래낭소인환착) 돌아와 인간세상 좁다 멋대로 비웃노니
八白中州只一毛 (팔백중주지일모) 넓은 천하 다만 한 터럭안일 뿐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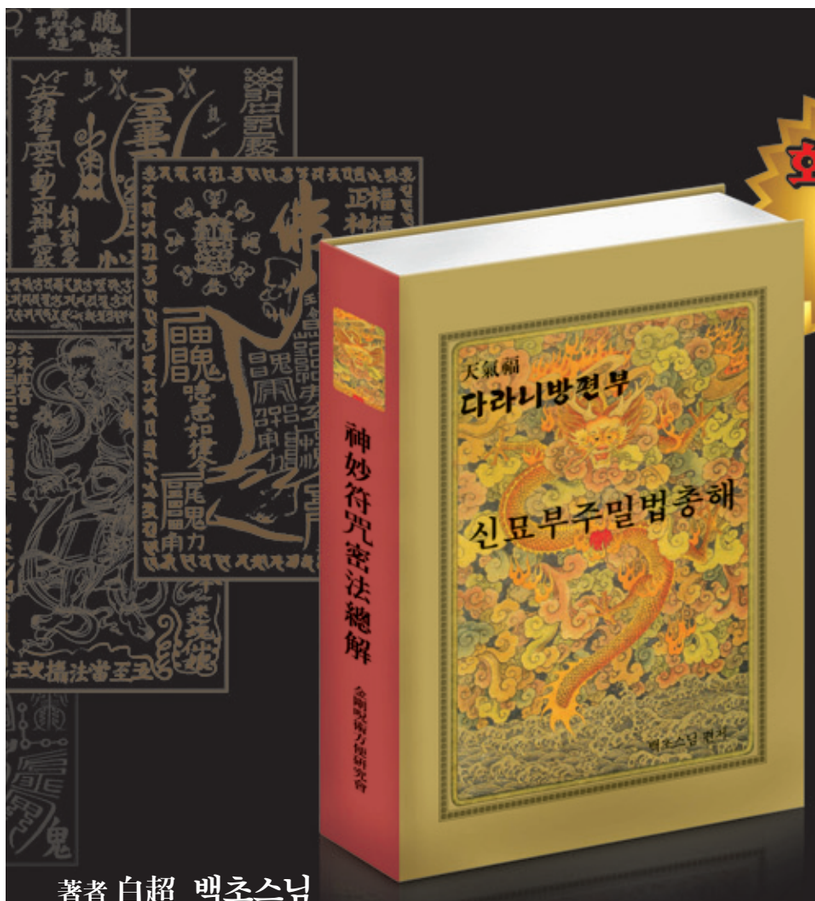
설잠(雪岑; 1435~1493) 스님은 서울의 무신(武臣) 가문 출신이다. 스님은 어려서부터 총명해 촉망받던 신동이었다. 21세 되던 해 스님은 삼각산 중흥사에서 독서에 열중하던 중 세조의 단종 폐위 사건을 접하고 3일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고뇌하다가 궁궐을 향해 통곡하고는 책을 불사르고 스스로 삭발염의 한 이후 때로는 승려로, 때로는 현실에 복귀하는 삶을 살았다. 스님은 법화(法華)·화엄(華嚴) 사상을 선사상과 회통시키려 했다.

이 시는 의상 조사의 법성게(法性偈) 가운데 바로 "한 먼지 안에 모든 시방세계를 다 머금고 있다[一微塵中含時方]"는 화엄의 사사무애법계관(事事無碍法界觀)을 노래한 것이다. 시의 분위기 전체가 '큰소리'라는 제목에 어울리는 호호탕탕한 시어들로 꾸려져 있어 설잠 스님의 걸림 없는 선(禪)의 세계를 잘 보여준다. 이 시의 묘미는 그토록 호방한 기운이 '한 터럭[一毛]'으로 갈무리 되고 있음에도 그 세(勢)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 시의 낙처(落處)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면 지금 형상과 언어가 주는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신의 존재가 새삼 분명해 질 것이다.



원법 스님(성균관대 문학박사)



天氣福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 • 중국 • 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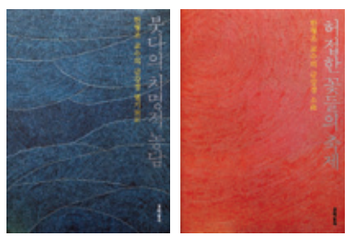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불교, 딱딱하지 않아 좋다”

한형조 교수의 모던하고 경쾌한 ‘금강경 강의’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처세서는 이미 시중에 널리고 널려있다. 한국학중앙연구소 한형조 교수(사진)는 〈금강경〉을 통해 철학과 종교를 뛰어넘는 좀 더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심어줄 수 있는 책을 발간했다. 〈금강경〉은 지금도 절에서 늘 독송되는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경전이다. 한형조 교수는 엽기와 과감을 각오하고 종횡무진 〈금강경〉을 자유롭게 풀어냈다. 책은 ‘금강경 별기’인 〈붓다의 치명적 농담〉과 ‘금강경 소’인 〈허접한 꽃들의 축제〉 두 권으로 구성됐다. 〈붓다의 치명적 농담〉이 〈금강경〉이 전하고자 하는 근본정신을 저자가 친절히 ‘별도의 해설’을 통해 쓴 입문서라면, 〈허접한 꽃들의 축제〉는 〈금강경〉 원문과 이에 붙은 다양한 해석을 새로운 번역으로 펼친 책이다.

불교는 어렵다. 적어도 한형조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럼 불교는 왜 어려운가? 한 교수는 다섯 가지 이유를 꼽는다. 첫째는 불교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과 세계를 바라본다. 바로 시각이 문제다. 둘째는 다양성이다. 불교는 고타마 붓다 이후 2500년에 걸쳐 대승불교, 반야, 유식, 화엄, 천태, 정토, 선 등 여러 가지 갈래로 그 의미가 전해졌다. 사람들은 이런 불교의 흐름에 어느 것이 진짜 불교인지 갸우뚱한다.

셋째는 언어다. 어느 것이 진짜 불교인지 의심스러워 경전으로 눈을 돌리면 더 큰 난관에 봉착한 기분이다. 경전만 해도 무려 8만4000권이며, 이들은 모두 지금 쓰이지도 않는 한문으로 돼 있다. 거기다 빨리어나 산스크리트 같은 말은 그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전해주지 못한다. 넷째는 경험이다. 지식이란 결국 경험으로 확인돼야 생명력을 얻는다. 육조혜능은 〈육조단경〉과 〈금강경 구절〉을 통해 줄기차게 강조했다. “입으로만 경전을 외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실천하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표현이다. 불교는 구경(究竟)이 아니라 방편(方便)이다. 〈금강경〉에서도 말하듯, 불교를 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이 부분은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다. 한형조 교수는 “이래서 나는 불교가 좋다. 비 억압과 관용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더 이상 근엄하거나 딱딱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한 교수는 ‘깨달음은 이미 여기 와 있다’고 말하며, 공(空)사상을 강조한다. 불교사의 다양한 굴곡을 질긴 실 하나로 꿰어가며, 소승 아비달마의 분석에서 대승 유식의 정신분석과 중관의 변증논리, 화엄의 연기적 세계관, 선의 단도직입이 결국 ‘단하나의 진실’을 알려주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또한 노장의 세계관과 12세기 삼교통합의 체계인 주자학까지 곁들여 한국의 원효의 삶과 사상을 통해 불교의 진면목을 알려 준다. 이밖에도 서양의 그리스, 로마의 철학, 그리고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사유는 물론, 설화와 신화, 일상의 에피소드들을 엮어내며 독자적 불교 해설의 경지를 열고 있다.

한형조 교수는 모던하고 경쾌하게, 불교를 ‘종교’가 아닌 ‘인문’으로써 접근한다. 제도나 관습, 집단의 논리를 떠나 오로지 불교가 알려주는 ‘인간학’에 집중한다. 책은 불교의 한문투에 지친 사람들, 화두라는 일초직입



(一超直入)의 험준에 한숨 쉬던 사람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다. 유머와 깊이를 다 갖춘 책은 드물다. 불교가 어려웠던 이들이라면, 불교의 도저한 깊이에 빠져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붓다의 치명적 농담 · 허접한 꽃들의 축제|한형조 지음|문학동네|4만1800원 이은정 기자

세끼 밥먹는 것 자체가 행복

국내 최초 미얀마 난민수용소 ‘누포캠프’를 가다



닭이 울고 개가 짖는 마을.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고 누구도 그 밖을 나갈 수 없는 마을. 사방 2km안에 2만여 명이 살지만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없이 살아가는 곳.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 밀림지역에 존재하는 이곳을 사람들은 미얀마 난민수용소 ‘누포캠프’라 부른다.

오래 전부터 이곳에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는 영봉 스님을 따라 미얀마 난민수용소 누포캠프를 찾은 저자 임연태는 국내 최초로 그곳의 모습을 생생히 기록했다.

우리가 하루 세끼를 먹는 일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이지만 누포캠프의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세끼는커녕, 잘 먹어야 두 끼가 고작이다. 식사는 야채를 넣어 끓인 멀건 죽이 전부다.

3월 22일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매월 진행하는 ‘화요 열린 강좌’에서 저자 임연태는 이곳에서 느낀 감동의 순간들을 이렇게 회고했다. “사는 것에 염증이 났을 때, ‘누포캠프’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밥을 먹고 산다는 것만으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느끼게 해줬다.” 이어 저자는 “누포캠프의 사람들은 밥보다 그리움을 더 많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처자식을 두고 홀로 미얀마를 탈출해 불교학교를 설립한 50대 후반의 교사는 미얀마에 두고 온 처자식이 그리워 매일 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 말라리아로 부모를 잃은 13살의 소녀는 아버지의 친구 집에 동생들을 맡겨 놓고 홀로 미얀마를 탈출했다. 이틀간 맨발로 정글을 걸어 힘들게 누포캠프에 도착했지만, 그 어린 소녀의 마음엔 항상 동생들이 남아있다.

2007년 미얀마에서는 갑자기 사찰지원을 끊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생활고에 시달리던 미얀마 스님 4명은 경찰서로 찾아가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승복까지 벗겨 내쫓기는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이 사건 을 계기로 미얀마 스님들은 시위운동에 나섰지만, 결국 1250명의 스님들이 옥고를 치루며 갖은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어쩔 수 없이 망명길에 오른 누포캠프의 스님들은 옥고를 치루는 스님들을 항상 그리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한다. 이들의 그리움이 어떻게 밥과 비교가 될까.

정글 깊숙이 위치해 있는 누포캠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오지에 위치한다. 때문에 저자는 “‘누포캠프’란 단 네 글자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책을 발간하게 된 목적이었다”고 말한다. 이들에겐 그리움은 곧 희망이다. 희망이 있기에 그들은 다시 삶의 위안을 삼고 밝게 살아간다.

누포캠프 사람들의 대부분은 불자였다. 현재 60%가 개신교로 개종한 상태다.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누포캠프를 찾아와 아이들의 학비, 식량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불교신자인 이 아이들이 개종한 것은 안타깝지만, 아이들이 공부하고 먹을 수 있는 게 다행이다”라며 “한편으로 우리 한국 승단은 많은걸 반성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가난의 흔적에서도 밝게 웃는 누포캠프의 아이들.

저자는 영봉 스님과 함께 현재 한 사람당 1구좌씩 매월 아이들을 위해 1만원 돕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책의 수익금은 미얀마 난민수용소의 교육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신한 110-317-048400(임종범)

철조망에 걸린, 희망|임연태 지음|클리어마인드|1만4500원 이은정 기자

‘자타카’로 우리 아이 영어 공부 시켜볼까

자타카 영한대역 ‘행복의 샘’ 완간 기본단어만 알아도 읽을 수 있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무수한 과거를 여러 보살로 살며 수행 했던 과정을 다룬 〈자타카〉가 어린이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 키워줄 수 있는 책으로 발간됐다. 〈행복의 샘〉은 〈지혜의 샘〉 〈자비의 샘〉에 이은 아이들을 위한 영한대역 〈자타카〉 시리즈의 마지막 권이다.

〈자타카〉는 부처님이 전생에 원숭이, 코끼리, 물고기, 곱추, 나무 등으로 태어나 진리를 깨닫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한 과정이 담겨있다. 구두쇠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아들과 똑같이 변신해서 지혜를 발휘한 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딱 하나 갖고 있던 삽마저 버린 사람, 아무도 죽이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 현명한 꼽추, 명석한 판단으로 남편과 아들과 오빠를 모두 구한 여인 등 자타카 547편 중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꼭 들려주고 싶은 재미난 부처님 이야기 16편을 〈행복의 샘〉에 담았다.

〈자타카〉는 어른을 비롯해 아이들에게 현대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를 알게끔 한다.



참을성과 자제, 관용과 같은 인간적 가치와 자비, 마음의 평정 같은 선한 자질을 계발할 수 있다. 〈자타카〉이야기는 원본 〈자타카〉의 본래 형태를 변형시키고 설명을 더해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삽화를 사용해 현대적으로 꾸몄다. 또한 〈행복의 샘〉의 영어 원문은 영어의 기본 문장 위주로 돼 있고, 우리말 번역문은 영문의 의미와 구조를 살렸다. 기본적인 단어만 알고 있으면 애써서 단어를 찾아보지 않아도 번역문과 비교해 가며 영어 단어 뜻을 유추할 수 있다. 책에는 십선업, 삼보, 중도, 사정근, 발원, 보시, 공양 등 불교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을 산스크리트나 빨리어 어원을 밝히면서 설명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불교 용어의 영어 표현도 함께 익숙해지도록 했다. 동서양의 전래동화에 지루함을 느끼는 아이들이라면 〈자타카〉 이야기는 흥미롭고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갈 것이다.

행복의 샘 | 쿠루네고다 피야티싸 영역 | 이추경 옮김 | 불광출판사 | 1만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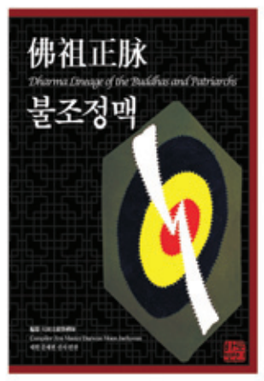
3. 16~22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부처님이 계신다면	탄허	교림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천태소지관	천태 지자대사	운주사
5	선의 지혜	성엄선사	탐구사
6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7	붓다의 치명적 농담	한형조	문학동네
8	행복한 기원	보경	조화로운삶
9	부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원영	불광출판사
10	마음속 부처 찾기	지안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 불조정맥 〉
증,영,한 3개국어판!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과 정맥전법게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출간.



〈 화두/Hwadu 〉
영,중,한 3개국어판!
대원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출간 예정.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원통 스님의
예불대참회문 DVD 특가 판매



원통스님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 성철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보성 스님을 전계사로 전계하였고, 1997년 정토원을 건립.



예불대참회문
대자비로 중생들을 어여삐보셔
대희대사 베푸시어 제도하시고
수승하신 지혜덕상 장엄하시니
저희들이 정성다해 예배합니다
지심귀명례 금강상사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원통스님 예불대참회문 1 S E T : DVD 26개 52장

원순 스님의 몽산법어 DVD



▪원순스님 몽산법어 : DVD 9장 100,000원

구 입 문의 : 불영TV 김봉환 010-8519-9279
02)2236-7209

http://www.bytv.kr 〈법보시用 할인가로 판매합니다〉

황금의 불탑 미얀마!!!



▪ 5월 12일
미얀마로 떠나는 완전일주 8일
(짜익티오 철야기도 가능)
1,90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짜익티오

▪ 5월 24일
1,6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 지장도량-관음도량 5월 23일
구화산 | 보타산 | 황산 6일
1,140,000원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
하늘열차 티벳 8일 6월 7일 (요금 문의)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 의 : 010-8442-4444(상담) / 010-3534-8366(농장)
▪ 묘목 재배 농장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76번지

그리다 보니 절로 수행 되더라

비움의 미학 선보이는 법관 스님 '禪-2011' 展



칸딘스키는 자신의 저서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에서 예술은 정신작용임을 밝혔다. 예술은 대상을 모방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술가의 정신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이다. 작품은 곧 작가의 마음이다. 예술적 행위를 수행으로 삼는 법관 스님은 그림을 통해 선(禪) 수행의 결과물을 보인다.

출가자에게 수행은 기본이다. 수행과 작품이 어떠한 상호 작용을 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나, 수행은 인식을 확장시키고, 그 인식을 통해 자연과 교감해 영혼과 소통케 한다. 법관 스님의 작품은 수행의 미학을 통해 동서양이 구분되지 않는 표현과 정신적 사상을 표현한다.

스님의 작품은 순일한 색감과 다양한 구도가 특징적이다. 모든 작가들이 현실적으로 자기만의 색을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 스님은 그 어떤 사람과도 차별화되는 색을 통해 자신만의 구도를 만들어 냈다.

석채와 안료를 적절히 혼합해 정화된 순일한 색감을 만들고, 캔버스 안에는 자유로우면서도 다양한 조형성과 균형감을 드러내는 구성을 선보인다. 또한 흑백의 조화처럼 푸르름과 붉음으로 이뤄지는 조화의 균형감은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형상화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스님 작품의 핵심은 비움이다.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와는 달리, 스님은 삶과 작품을 통해 하나라도 더 비우려는 자세를 나타낸다. 〈금강경〉에는 "모양을 떠나면 고요하게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다. 작품들은 형상에 머물지도 않고 색상에 머물지도 않으며, 육근(六根)을 자극하는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구름처럼 흔적이 없어 사라짐을 느끼게 한다.

잘 그려야 한다는 생각, 색을 잘 써야한다는 생각, 작품을 통해 명예를 얻고자하는 생각 없이,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느끼도록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전부가 아니라는 스님의 생각이 작품을 통해 자유롭게 구현됐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형상과 색에 마음을 소통하는 작업과정은 스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스님은 "수행으로, 수행삼아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진지하게 그리다보니 수행이 됐고, 좋은 그림이 됐다"며 "나는 다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수행의 목적 또한 아니다"라고 말한다.

스님의 작품은 좋은 그림보다는 맑고 지극한 마음을 전달하는 그림이며, 수행을 통해 느낀 색감과 구도는 자유의 향연이다. 한 순간 마음속 깊이 비움을 느끼게 하는 스님의 '禪-2011'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4월 13~19일, 강릉 문화예술회관에서 4월 26일~5월 5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02)736-1020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현대불교문학상' 발표

공광규·유자효·송기원·방민호 1000만원 상금 수여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펼치는 중견 문인에게 수여되는 제16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이 주최하고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가 주관한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에는 시 부문에 공광규(시인), 시조 부문에 유자효(시조시인·국제펜클럽 부이사장), 소설부문에 송기원(소설가), 평론 부문에 방민호(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공광규 시인 '낙타의 인생' 외 4편, 유자효 시조시인 '번뇌' 외 4편, 송기원 소설가 '노량목', 방민호 평론가 '이광수 장편소설 원효대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이다.

이번 제16회 현대불교문학상 심사는 이근배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조계종 문화부장 효탄 스님, 임헌형 문학평론가, 신달자 시인, 최동호 문학평론가, 장영우 문학평론가, 홍성랑 시조시인, 박수완 시인, 문혜관 시인 등이 참여했다.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은 4월 30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가 주관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와 함께 가질 예정이며, 각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이은정 기자

전시일정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신안해저에서 발견된 용천청자를 주제로 '차와 향, 그리고 혼을 담다-신안 용천청자' 전을 6월 19일까지 개최한다. 전시에는 용천청자 약 90여 점이 공개되며, 이 중에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20여 점이 포함돼 있다. 전시는 용천청자의 기종, 용천청자의 유색과 문양 등 외형적 특징과 더불어 용천청자에서 파생된 여러 문화에 초점을 맞췄다. (02)2077-9000

■강원도 영월 쾌연재 도자미술관은 5월 1일까지 동북아불교 미술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극락정토(極樂淨土), 미타(彌陀)의 미소(微笑)' 기획전을 연다. 이번 기획전은 한국불교미술의 위상을 알리고, 우리 민족의 미술역사를 체험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마련됐다. 전시에는 한봉석, 정화석, 김상수, 이완규, 김판기 등 국내 무형문화재 장인들과 화가, 조각가, 공예가들이 참여한다. (033)372-8436

천진영 기자의 문화산책 ③

자비를 깨달은 샤갈



강도 9.0의 대지진으로 일본의 동북부는 깊은 비탄에 잠겼다. 소임을 다하기 위해 수문을 닫으러갔던 소방관은 정작 본인의 가족은 모두 잃고 혼자만 남아 오열했다. 살아있을 거란 희망만을 품고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여기저기로 가족을 애타게 찾아다니는 이도 있다. 가족을 잃은 사연 하나하나가 애달프지 않은 것이 없다.

비극적인 시련을 몇 차례나 겪고도 항상 사랑을 노래한 서양화가가 있다.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는 단 하나의 색은 바로 '사랑의 색'이라고 말하는 샤갈이다.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불리는 그는 누구보다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

러시아의 이주 빈민촌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는 가난했고, 유태인이란 이유로 핍박 받았다. 세계1·2차 대전을 겪으면서 고향의 동포들이 학살당했고 그의 작품은 불태워졌다. 미국 망명 중에는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 그때 이미 명성 있는 화가로 성공했었지만 그의 민족적, 개인적 슬픔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예술에 대한 사랑은 삶의 본질 그 자체 이다"

비극 속에서도 그는 한결같이 사랑을 화폭에 담았다. 사별한 부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도 환상과 꿈의 세계를 그려 애틋한 마음을 담았다. 샤갈은 고통보다는 삶의 본질인 생로병사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전쟁, 죽음, 전염병,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겪으면서도 밝고 힘찬 색을 유지 할 수 있었다.

샤갈은 사랑의 대상을 삶 자체로 여기며 자신의 화폭에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주제로 작품을 감상하는 우리에게 삶의 에너지를 부여해 준다. 이 에너지는 그의 역동적 상상력에서 부여되는 영혼의 힘인 것이다.

불교는 자비(慈悲)를 말한다. 자비는 사랑과 보시의 기쁨이다. 불교가 사랑에 대해 터부시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다. 불교는 사랑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를 한다.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본질을 파악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온 곳도 모르고 갈 곳도 모르는 것 아니던가. 인생은 생로병사 고통의 굴레지만 우리는 늘 행복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사고, 베풀고 나누는 마음을 연습해야 한다. 생로병사의 고통에 여여 할 수 있어야 한다.

대단한 몽상가였던 그는 꿈과 현실을 한 공간에 그려 넣었다. 그는 꿈을 통해 그리운 고향에 가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 자유로이 하늘을 날라 다닌다. 행복한 꿈을 꾸고 현실에서는 꿈을 그리는 그의 작품관이 20세기의 비극의 중심에서도 사랑을 외칠 수 있게 한 원동력 이라고 생각한다.

불교 선지식들은 세상살이 모두가 꿈이라고 말했다. 어제 밤 꿈은 춘몽이고 생로병사의 인생은 대몽(大夢)이다. 샤갈도 "나는 다만 보는 것, 꿈꾸는 것을 그릴뿐이다. 그 형태는 다르더라도 현실의 일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얼마 전 서울 시립 미술관에서 열린 샤갈전에는 33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작품을 설명하는 도슨트 조은영(경희대 예술경영대학원) 씨는 주말에는 입장하기 위해 2시간씩 줄을 선다고 한다. 대중들의 문화적 기호가 높아져 널리 알려진 서양화가를 중심으로 미술 전시회가 성공하고 있다고 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린다고 한다. 그들에게만 유독 영험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사막 같이 팍팍한 삶에 단비가 내리길 원하는 이들에게 샤갈처럼 삶의 모든 대상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보기를 권한다.

LEADER

미얀마 양곤 신도시 나인따야에 위치한 5만평 대지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자동으로 선임되고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후진국 빈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꾸어 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생의 지팡이가 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불자,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초 빙 안 내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자 격 :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1년에 1주일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종단 및
남녀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종교법인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이 사 장 목탁 혜은 합장
대표 전화 02)733-5665. 011-229-6061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시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임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불제자를 모시고 싶습니다.
재물 보시도 중요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 또한 값진 보시이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적 봉사입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무엇을 망설입니까?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제자들이 됩시다.

종교법인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회 장 목탁 혜은
부회장 금당 법성
포교원장 불도 천장 교육원장 현담 송광 감찰원장 일해 공심
전화 02)730-5670
국민은행 023-501-04-147581

부처님들이 그대들 발꿈치 아래서 법륜을 굴리신다

양기사 ①



동아시아 선불교를 석권한 임제종의 주류가 된 양기파의 개창도량인 보통사(양기사)

평양시에서 40km 남짓 되는 거리에 양기사가 있다고 하는데, 도로 사정으로 보아 또 다시 고생 좀 할 것 같다. 양기사(楊岐寺)로 가는 순례 일행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다. 특히 수불 스님은 감개무량한 표정을 한동안 떨치지 못한다.

"양기 스님이 안 계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한국 조계종 신도인 순례 일행 모두가 양기사의 개법시조인 양기방회(楊岐方會) 선사의 후손이라는 말씀이다. 실제로 임제종 양기파의 개산조인 양기방회 선사는 중국 선종사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선종사를 석권한 특출한 선걸(禪傑)이다.

육조혜능 대사 이후 위앙, 임제, 조동, 운문, 법안종 등 5개 선종 종파는 송대에 이르러 임제종과 조동종만 남게 되는데, 임제종은 다시 석상초원 선사 문하에서 양기파와 황룡파로 나뉜다. 이를 5가 7종(五家七宗)이라 부르는 것이고, 황룡파는 황룡 혜남 선사(1002~1069)부터 허암회창 선사까지 200여 년 동안 이어지다가 소멸되고 만다. 결국 양기파만 남아 임제종의 법통을 잇는데, 양기종은 송, 원, 명, 청대까지 가장 융성한 종파가 되어 천하에 법을 떨치게 됐던 것이다.

양기방회 선사의 법손(法孫)으로는 〈벽암록〉의 저자 원오극근 선사가 4세손이고, 간화선을 제창한 대혜 종고 선사가 5세손이고, 원대의 고봉원묘 선사가 11세손이고, 〈산방야화〉의 저자 중봉 명본 선사가 12세손이다. 우리나라는 양기방회 선사의 12세손인 석옥청공 선사(1272~1352)로부터 태고보우 국사가 법맥을 받아와 오늘의 조계종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어찌 그리 서두르는가"

양기산 양기사 가는 길도 첩첩산중이다. 양기산 이름부터가 심산유곡임을 드러내고 있다. 춘추전국시대의 사상가인 양자(일명 楊朱)가 지금 가고 있는 산중으로 들어섰다가 길을 잃고 기로(岐路)에서 헤맸다고 해서 양기산이 됐다고 한다. 당시에는 일세를 풍미하는 선사들이 걸어서 드나들었을 터. 그러니 순례 일행을 태운 버스가 당나귀처럼 뛴다고 해서 불평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수불 스님의 당부에 순례 일행 모두가 중국의 불편한 도로 사정을 재발심과 하심의 기회로 삼는다.

"조사 선사들이 정진했던 당송시대만 선의 황금기가 아니지요. 선의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고, 선사(禪寺)를 편안하게 찾아 참배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도 선의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사정이 이러한데도 공부를 게을리 한다면 그 당시 공부하지 못해서 지옥에 간 분들보다 더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을 겁니다."

방회 선사는 강서성 의춘 출신으로 속성은 냉(冷)씨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어린 시절 풍자를 잘하고 연극을 좋아했다고 한다. 선사는 20세가 되어 세금을 매기는 일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가 서주(瑞州, 강서성) 구봉사에 갔다가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한 마음이 들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담주 도오산에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다. 그는 자명초원(석상초원) 선사를 따라 남원사로 갔다.

방회는 남원사에서 자명 스님을 9년 간 시봉하면서 '착십마급(着什磨急)'이라는 선문답을 통해 크게 깨달았다. 착십마급을 우리말로 풀자면 '어찌 그리 서두르는가' 정도일 터이다. 감사(監寺) 일을 보던 방회가 자명 선사에게 매번 물을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어찌 그리 서두르느냐'였던 것이다.

"불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창고일(庫司事)이 번거로우니 가보게."

"불법이 어떤 것입니까."

"감사는 훗날 자손이 천하에 퍼질 것인데 어찌 그리 서두르는가."

매번 질문할 때마다 '어찌 그리 서두르느냐'란 말만 들어온 방회는 자신이 공부한 바를 점검받고 싶은데 마음은 점점 칠통처럼 캄캄하고 답답했다. 방회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날 몽둥이를 들고 작심했다. 자명 선사가 다니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선사를 진흙탕 길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고서는 말했다.

"오늘은 나에게 꼭 말하시오. 말하지 않으면 몽둥이로 때리겠소!"

그래도 자명 선사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감사도 이 일을 알겠지. 그만 두게."

방회는 이 한 마디에 홀연히 깨달았다. 이 일이란 일대사(一大事)를 뜻했다. 방회는 바로 진흙길에 엎드려 절을 했다. 수불 스님은 이 선화의 배경에 대해서 행간의 숨은 사연까지 짚어가며 선해(禪解)를 해주신다.

"양기방회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속가에 있을 때 20세에 세리(稅吏)가 되었다고 하면 마을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스님은 석상초원 선사, 자명 선사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보통사, 그러니까 양기사 가까운 곳에 남원사라고 있답니다. 거기에서 감사 소임을 보며 자명 선사를 9년 동안 모셨다고 그럽니다. 자명 선사가 양기 스님보다 다섯 살 많아요. 다섯 살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사형사제 정도라고 할 수 있지요. 자명 스님 문하의 황룡 혜남 스님은 자명 선사보다 열다섯 살 적었고요.

비가 좀 오는 저녁에 자명 선사가 절 아래 마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스님이 9년간 자명 선사를 모시고 살면서 감사일을 맡았다고 그래요. 공부에 대한 어떤 깊은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늘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명 선사는 스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지요.

이 부분에서 선어록의 행간을 잘 봐야 합니다. 사실은 자명 선사가 늘 가르쳐주었는데 스님이 또 다른 오해를 한 것이지요. 그날 저녁에는 스님이 몽둥이를 들고서 '오늘 내가 기어이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쳐 자명 스님을 자빠뜨렸어요. 자명 선사를 올라타고서 '이르지 않으면 이 몽둥이로 후려치겠소!' 하는 식으로 소리쳤어요. 그래도 자명 선사는 여유가 있는 분이라 마음대로 때리라는 표정으로 '감사도 이 일을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태연하게 말했고, 스님은 이 한 마디에 크게 깨달았다고 그래요.

깨달은 뒤에는 올라탔던 입장에서 재빨리 벗어나 젖은 땅바닥에 오체투지하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한 자명 스님의 인내에 크게 감사드렸다는 얘깁니다. 법을 물으면 '감사는 뭘 그렇게 급한가'라고 대꾸하면서 '감사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뒤에 줄을 설 건데' 하는 식의 소리만 하니까 스님이 부화가 난거지요. 그래서 일을 저질렀는데 시절인연이 도래해 크게 눈 뜰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청대 말기에 중수한 이후 퇴락할 대로 퇴락한 법당 앞에 서서 상념에 잠긴 수불 스님

자명 선사와 방회 선사의 두서너 마디 선문답을 행간 속에 의미까지 낱낱이 보여주는 수불 스님의 법문에 순례자 일행 모두가 이해하는 눈치다. 합장하며 미소를 짓는다. 수행도 아는 만큼 행복감을 느낀다고 봐야 한다. 행복감이 없는 무미건조한 수행은 지양해야 한다.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수행은 최악일 것이다. 그러고 보니 안국선원 신도들의 중국 선찰순례는 독특한 정진이다. 고요한 선방 울타리를 벗어난 살아 있는 정진이다.

외로운 소나무는 우뚝하고,
원숭이는 산을 내려가며 운다

방회는 깨치고 나서 자명 선사에게 물었다.

"좁은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면 어찌해야 합니까."

"물러서 있거라. 나는 간다."

법에 집착하는 법집을 경계하면서 더 큰 공부의 인연을 지어가라는 의미일 것이다. 또 그 무렵에 이런 일도 있었다. 자명 선사는 공양을 마치고는 반드시 산행을 하였는데, 대중들이 도를 물으려고 해도 대부분 있는 곳을 몰랐다. 방회는 자명 선사가 간 곳이 멀지 않음을 알고 북을 치고 대중을 모으니 자명 선사가 급히 돌아와 꾸짖었다.

"총림에서는 해가 저물고 나서는 법좌에 오르는 일이 거의 없는데 무엇에 의거해서 이러 규범을 만들었느냐."

"예전에 분양 선소 선사(자명 스님의 스승)께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째서 규범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이후 방회는 자명 선사가 흥화사(興化寺)로 옮기자 작별하고 물러나 구봉으로 돌아왔는데 도속들이 몰려와 머물러 주기를 간청했다. 그때 구봉 근(勤)장로가 방회를 모르고 말했다.

"방회 감사도 또한 선을 하는가."

방회는 잠시 침묵하고 나서 모인 대중들에게 말했다.

"다시 질문할 자가 있는가. 나와 보거라. 오늘 나의 이름은 너희들 모든 사람의 손 안에 있으니 가로로 끌고 가든지 세로로 끌고 가든지 완전히 맡겨 두노라. 어떻게 하겠느냐. 이와 같이 대장부는 반드시 대중들과 만나서 결택해야 하며, 땅 속의 물에서 조롱박을 만지는 것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대중과 만나서 감파하고자 시험해 보았는가. 만약 하지 않았다면 내가 손해를 본 것이다."

마침내 방회 선사는 양기사 주지로 부임하여 개당설법을 하였다. 설법이 끝난 뒤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양기산의 경계입니까."

"외로운 소나무는 바위 가에서 우뚝하고 원숭이는 산을 내려가면서 운다."

"무엇이 그 경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가난한 집 여자는 대바구니를 들고 가고 목동은 피리를 불면서 물을 향해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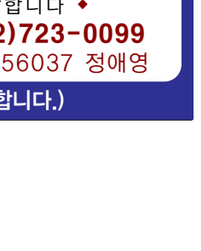
방회 선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안개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바람은 큰 들판에서 일어나니 온갖 풀이며 나무가 큰 사자후를 내어서 마하대반야를 연설하고 삼세 모든 부처님이 그대들 발꿈치 아래서 법륜을 굴린다. 알아들었다면 공을 헛들이지 않았겠지만 몰랐다면 양기산의 산세가 험하다 말하지 말라."

나는 이 설법이 주지 진산식 때 한 설법인지, 아니면 그 뒤에 한 설법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보는 순간 '이 설법은 그대로 시(詩)다!'라는 법열을 받았다. 논리를 뛰어넘어 인간내면을 노래하는 초현실주의 시가 벌써 1000년 전 양기산에 읊어졌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시(詩)란 말씀(言)과 절 사(寺) 자의 계합이라는 것을 새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윽고 순례 일행을 태운 버스가 양기사 밑에서 멈춘다. 수불 스님께서 양기산 수도봉(壽挑峰)을 바라보며 산길을 밟으시더니 한 마디 하신다.

"호리병 모양의 외통수 형세로 보입니다. 사방이 막히어 한 번 들어왔다 하면 죽어서 나가든지, 살아서 나가려면 새처럼 훨훨 날아가든지, 가마타고 떠밀려 나가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없는 무문관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험한 곳에 깨달음을 위해 들어와 죽기를 각오하고 수행했을 양기파 옛 선사들의 치열했던 모습을 생각하니 지금 우리들은 너무 쉽고 편하게 공부하고 있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은 산길 초입에서 퇴락한 양기사 전각들을 보더니 눈물이 날 것 같다며 가사 장삼을 수하신다. 〈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 ~ 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잘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룸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어 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 규 격 8.5×5.2×2.0cm
■ 가 격 34,000 (건전지 포함)
룸비니는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룸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 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룸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룸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기도성취 영험도량

간경화, 치매, 각종 난치병 치료보장, 사업성취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빙의 퇴마 전문

정신질환, 영가장애,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들, 상담 치료 전문
일주사 주지 일주 합장
061)337-9989
017-624-9989

서 류 대 행

전통사찰 등록
종교법인 등록
문화재 등록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찰행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구, 해동사)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자녀교육 상담기도

가정방문 • 사업성공
상담 기도해 드림
능엄신주 가족들이 열심히 독송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변비
가족갈등, 결혼인연

각종 전통불교 재의식 해드립니다(바라나비무)

열분의스님 항시대기
개업,막힌영업장 고사전문
소원성취적중
형편과 시간없어 못배우신
범패의식을 배우고저 하시는분에게
직접방문 속성교습도 해 드립니다
010-5325-8123
홍인범패단장 홍인 (합장)

조상영가천도와 축혼제(畜魂祭)

• 일시 : 2011년 4월 27일
부산국제신문사대강당
조상영가천도와 구제역으로 희생된
가축들의 원혼을 해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강문홍,조갑연,강병국,강병철,진현주
010-3871-2398
후원 : 동양당한약방(경남 산청군)

수강생 모집

사주,궁합,택일, 성명학
사주학 초보에서 실전개업까지
최단기간 비법특강.
자격증 수여. 수강료 저렴.
수시접수
30년 전통 대한역학교육원
02)763-4566

불문 스님의 기발한 발명 돈이 보인다.

지금도 부자가
소원이라면 연락바람.
010-3595-9856

수강생 모집

철학반 • 무속반
승도반 • 치유반
도건명리학당(불당사)
042)526-1123
010-3452-1123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기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남하사
043)832-9921
010-8916-04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남양주시 백련암
016-293-1705

전통의약 비법전수(포교활동)

• 전수내용 : 악성관절염, 악성목허리 디스크, 악성골수염, 악성오십견, 갑상선 물혹, 편도종양등으로 병원에서 완치가 어려운 분에게 해당
• 전수희망자 : 포교에 뜻있는 스님(유료)
• 무료치료 : 아픈스님께 무료보시
010-6285-3703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대체의학 비법

악성 오십견, 병명없는
허리통증, 통풍, 대상포진
(1 ~ 3회 완치)
비 법 전 수
010-7703-3825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7232-0384

부모님 동의로
10세 이상 동자로 살아갈
인연을 받습니다.
현재 동자스님 3명,
모집인연 3명
011-9393-4965
전남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보리사

명리학 무료 특강

사주,궁합,택일,성명학
초급 3개월 완성
한문 모르시는 분 한자교육
명심보감 사서삼경 특강
남녀 단체 환영 (수양하실 분 기숙가능)
상도서당 명리원
043)852-1952
011-2090-800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748-300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212-9810

부전 비구스님
모십니다
▷경남 김해
011-9790-551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 이하, 논산)
참신한 수행스님 원합니다
011-408-5060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사무실 직원
구합니다
042)272-1223
010-5792-3000

행자모집 3명,
공양주 1명
모집합니다
▷미암사
010-7262-2959

남,녀 재가불자
공부하실 분
조건없이 배려
하겠습니다
김해 효운사 055)342-0379
011-856-4578 (효운 스님)

의 식 대 행

49재 천도재 및 각종의식은
나비춤이며, 바라춤 등의 영산작법으로
경건,엄숙,찬탄의 극대화를
꽤하니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극히 적은 보수에도 흔쾌히 달려가서
최선을 다하여 좋은인연
맺었으면합니다.
041)571-1112~3
010-5370-0888

아주 특수한 기도법

• 스님은 물론이고 부처님을 모신 사람도 배울수있습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청도 한재 미나리 진액

흰 민들레, 강화약쑥
비만해소, 고혈압, 수족냉증, 노화방지, 숙취제거, 간질환, 위암, 폐암, 유방암, 항암효과, 변비, 만성피로
60개 1박스 6만원 (스님,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
농협 356-0150-1551-73 정승열
지 장 암 010-2367-0200
010-5251-4196 (대명화보살)

4대 항암약초 꾸지 뽕나무 (神이 내린 보약나무)

산뽕나무(꾸지뽕) 효능 (소변이 잘 나오고 변비치료에 탁월한 꾸지뽕) 고혈압,관절염,당뇨병,지혈,수족냉증,구갈,각기,감창두통,진행,해열, 소종,기관지염,이뇨,무좀,중풍,토혈,식은땀,해수기침,흰머리검어진다, 눈명,비증,팔다리 쑤시는 사지경련,각기,부종,사지마비,류마티스,관절염
054)383-8553 / 011-9585-4908 혜봉스님 직접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 농협 703088-51-013554 지장선원
스님들께는 3만원에 올리겠습니다 (1박스*50개)

사주풀이 또는 신통이 가능하고
佛事 에도 뜻이 있는 男女스님, 보살님,
포교사, 역술가, 애동제자, 초보행자 등등
특별한 사람들을 구합니다.

成佛책과 운명책 20권을 저술하고
남해안 천하명당 관광지 오동도 입구

'여수 용궁사' 회주 大山 도인 스님
010-5105-5000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철곡, 구미, 포항, 서울 동대문, 미국뉴욕, 중국 칭다오 , 호주 시드니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화, 금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 주 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문의 : 전화 053)474-8228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전화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大韓佛教謁平僧伽會

弘法과 救濟中生의 참 모습을 보일 慶州李氏 승려로 宗團 구분없이 一家 스님들을 會員으로 모십니다.
많은 동참으로 자성의 죽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佛紀 2555年 2月7日
초대會長 萬翁 道一 (전 해인사 주지)
연락처(수석 부회장) 弘山 玄佛 (禪農敎團 총재)
041)943-7620 / 016-850-1208

승복 · 전통복식 30년
www.kyksb.co.kr
김윤경승복 · 우리 옷
- 30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 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기획상품
(이중직)적삼 바지 ~~150,000원~~ → 80,000원
— 겨울신상품 —
(목화솜누비)적삼 바지 ~~300,000원~~ → 180,000원
(목화솜누비)동방 바지 ~~350,000원~~ → 22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승복관련 기술자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사)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종도를 모십니다

行을 으뜸으로
靈을 정화하는
眞 종도로서
중책을 맡으실 분을 모십니다.

총본산 : 전북 정읍시 산외면 법화원
연락처 :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장 원 사
장원스님 011-677-8525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극락사
• 법 명 : 일형(정기한)
•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산 66-1

위 인과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0일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자정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진구
- 법당 : 20평
-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 가액: 2억 7천만원

010-7157-161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 : 120평
- 부지 : 62평
- 가액 : 17억 (지하철역세권)

- 위치 : 경기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부지 : 100평
- 가액 : 7억 5천

- 위치 : 경남
- 법당 : 25(목조)
- 요사 : 75평
- 부지 : 1,000평
- 가액 : 8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금정산 대사찰(천년고찰)
- 총대지 : 약 5700평
- 법당 약80평, 요사채 및 기타 5동
- 부산 금정산 자락
- 가액: 18억

진주 아름다운 사찰(100년)
- 대지:600평
- 법당 20평, 요사 및 기타 5동
- 진주 인터체인지 5분거리
- 주차장 120평
- 총금액: 4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 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굴터안내
- 위치 :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 평수 1200평
- 평당 3만원
- 총액 3600만원 중
- 농협대출 1천만원 (합산)
- 잔금 2600만원

포교원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1000만원

011-742-8458

포교원 인수하실분
- 위치 :부산시북구화명동 자하철3번 출구앞(바로옆롯데마트에무료주차가능)
- 평수 : 140평 (최상의 교통 및 시설을 자랑합니다)
- 전세 보증금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절충 및 운영방안 협의가능
- 모든시설완벽하며,즉시법회 가능합니다
- 포교원 및 불교대학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010-8677-7339

영천토굴터
- 위치: 영천시 고경면
- 시내에서 10분이내
- 2차선에서 100M이내
- 남향이며 마을 끝. 산자락에 붙어있어 조용하고 양명한곳
- 기와집 1동, 황토집 1동 대지 500평
- 가액: 8천만원

011-505-6505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분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는 2억, 전세는 1억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위치 좋음
- 평수 500평
- 산신, 용왕, 법당, 요사채 각1동
- 심야보일러
- 가액: 3억

011-595-1522

도심사찰(급)포교원안내
- 용인 죽전동(분당과 경계) 아파트 밀집지역
- 7층건물 7층 132(분양)-평당 매매 300만 이상
- 1억이상 원목, 단청함-시설완벽
- 도심포교 원력 최고지-현재 운영잘됨
- 이주관계로 급하여 인연분께 양도
- 4억 3천(절충가능)
- 빠른 연락과 직접 오시어 확인 요함

017-265-9367

사찰터.전원주택
- 위치 : 경남 합천군 합천호 주변
- 경관수려하고,건축허가 가능
- 진입로 포장되어있음
- 임야 . 논 총 954평
- 가액 : 7천 5백만원

011-848-245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중학교앞)
- 3층 37평중, 법당 20평,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영단, 침실, 직무실, 거실겸 주방
- 계단실내해우소, 뒤에 마당공간2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739-7788
010-9282-588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소임관계로 급 양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차탁
- CCTV. 대용량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4억 3천만원(대출 1억 3천만원)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787-6666

포교원,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치악골
- 포교당, 별장, 사무실, 작업실, 전통찻집 갤러리샵으로 사용가능한집
- 3층건물
- 가액: 3억(절충가능)

011-9917-703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합천호 주변
- 대지 171평,건물단청, 수미단, 영단
- 법당, 종무소: 1,2층 각 20평씩 1동
- 요사채:1,2층 각 30평씩, 방6개, 1동
- 마을옆 산아래 물이 흐르는 도량
- 주차공간 넓고, 텃밭도 있음
- 가액: 1억 9천만원(융자1억포함)
- 새로 불사점안을 하실분에 한함

010-7144-006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진주시내에서 10km 거리
- 건물 : 법당 (목조 토기와) 20평
- 시멘트 벽돌 슬래브 40평 38평(2동) 외 2동 (30평)
- 토지 : 종교용지 (850평)
- 임야 : 4,000여 평 (수련원, 복지 시설, 태양열 발전 등 적지)
- 가액 : 10억(조절가능)

010-3822-456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6000평, 실등기 5000평)
- 대지(종교용지)약 700평 어떤행위던 허가 나는 준보전 임야 43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5평), 요사채(약40평) 2동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3억 5천

011-816-9104
010-3815-9104

토 굴 안 내
- 위치: 창원시 의창구 용전마을 뒤
- 건물 2채, 인법당, 입식부엌, 방3칸
- 텃밭 50평
- 가액: 4년 임대료 1,000만원

011-9393-4965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 시장 부근
- 평수 2층. 60평 옥상 外 다락방 5평 정도
- 법당 (아미타삼존불, 약사여래불, 칠성여래불)
- 방3칸, 공양간, 에어컨 3대
- 시설 완벽함,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051)556-1457

문경세재 아담한 암자(사찰) 최고의 명당 자리 절터
- 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 종교용지 730평방미터
- 1평방미터 가격 150,000원 땅값 암자 명회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건물내역 : 산신각 1동 대웅전 1동, 요사채 2동 건물 (증여) 건물값은 받지 않고 드립니다
- 물물교환 가능

011-9535-1150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 평수 약 60평
- 4층건물 3층
- 보증금 3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 모든시설완벽, 주차장완비

010-2644-0408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 계양구
- 평수 40평, 3층의 2층
- 삼존불, 집기일체,
- 시설비 3천 5백만원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010-8871-5335

경관좋은사찰터안내
- 위치 :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 부지 : 총 2만 2천평
- 도로 39호 지방도로 접, 전면 170M
- 옆 계곡 있음
- 청정한 계곡과 수려한 명당터
- 가액: 평당 4천 5백원 몽땅 9900만원

010-7246-0100

포교원안내
- 위치 : 남양주시 호평역 앞
- 평수 3.4층 각 70평
- 종무소, 법당, 창고, 주방
- 가액: 보증금 4천만원 월 150만원, 시설비 시주함
- 지방 불사 관계로 인해 안내함

011-516-5563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 송내역에서 5분거리
- 5층건물중 4층 전체 43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
- 시설비 2천만원 합 3천
- 즉시법회 가능, 엘리베이터 있음
- 시설 최신형으로 완벽함

010-6674-1356
010-6286-5775

사 찰 안 내
- 위치: 김천과 구미 중간, 김천시 남면
- 평수 532평 • 시설완벽
- 요사채 20평, 법당 20평, 공양간 20평
- 가액: 1억 6천만원

016-540-0027/054)733-7881
011-540-0027/054)453-1117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 평수 70평
- 시설A 급. 모든시설완비
- 삼존불, 원불 300불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3422-2575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창원 39사단, 부근
- 3층 대형상가내, 2층 45평
- 법당 약 30평
- 모든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1억 8천만원

010-8675-8636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9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5평
- 가액 : 13억5천

- 위치 : 강원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3억2천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절(사찰) 별장하실분
- 경남 합천군 남기면
- 한옥2동(주택, 찻집), • 작은초가 황토집3채
- 별도분할 구매가능
- 대구,부산1시간20분거리 마산,창원30분거리
- 인터넷에서 연꽃인연 검색 하시면 전체를 알수 있음
- 가액은 만나서 절충합시다

055)934-4488
010-3521-692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진구
- 당감시장입구 큰대로변
- 대지 62평, 3층건물 중 2층 32평
- 공양실, 주방, 욕실, 방3칸
- 3층 32평, 대법당
- 전세1억, 월세도가능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257-5488

사 찰 안 내
- 위치: 영천시 북영천 IC부근
- 부지: 530평(종교용지)
- 법당: 33평(철근콘크리트조)단청 삼존불(청동불)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신, 용왕, 약사, 지장, 십대왕
- 요사채: 40평(방3, 거실1, 실내다용도실2)
- 기타: 10평 (야외화장실, 차고, 창고)
- 가액: 전화상담 방문 후 결정양도

010-2222-316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외관 근교
- 평수 약 510평, 메뚜기 노는 잔듸마당
- 법당 25평 목조단청 산신각 단청, 요사채 2동
- 가액 : 4억 3천만원
- 융자 4천포함(가액조절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함

010-5054-6782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고흥군
- 산세 수려하고 물 좋은 천년고찰터
- 고흥 초입 4차선 도로에서 저수지끼고 2km에 있는 아주 고요하고 청정한 도량
- 선방, 기도처, 복지시설 최적지
- 종교용지 200평, 임야 11,500평
- 임법당, 목조토기와 5칸 27평
- 요사채 50평 • 가액: 7억 5천만원

010-6778-1910

사 찰 터 안 내
- 위치: 울산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 바로 뒤 산
- 1급 주거지역
- 가액: 평당 90만원 (절충가능)

017-855-6717
017-856-2344
052)247-7344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위치 좋음
- 평수 500평
- 산신, 용왕, 법당, 요사채 각1동
- 심야보일러
- 가액: 3억

011-595-1522

사 찰 안 내
- 위치:충북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중 1동
- 1층건물 3동 (방 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2억 5천만원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1-297-914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심곡 2동 부천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부천자유시장에서 3분거리
- 4층 건물중 2층(40평)
- 보증금 일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700만원
- 지방이전, 절충가능

032)655-6667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 시내중앙 (진주성 옆)
- 평수 : 실평수 46평(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겸 거실, 남녀 화장실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 결정

010-4668-738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시내에서 7분거리)
- 대지 171평,건물단청, 수미단, 영단
- 법당, 종무소: 1,2층 각 20평씩 1동
- 요사채:1,2층 각 30평씩, 방6개, 1동
- 마을옆 산아래 물이 흐르는 도량
- 주차공간 넓고, 텃밭도 있음
- 가액: 1억 9천만원(융자1억포함)
- 새로 불사점안을 하실분에 한함

010-7144-0066

토 굴 터 안 내
- 위치: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중감마을에서 500M
- 현재 묵은 논, 2필지, 1017평
- 남향, 해인사 뒷산
- 깊은 산속 시원한 계곡물
- 가액: 2천 5백만원

011-9393-4965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운문면
- 법당,산신각,요사채,화장실
- 대지(전)1,012평
- 운문댐근교,주차시설용이
- 50여년된 작은 고찰
- 가액 1억5천만원

011-504-432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중 2동 (달맞이고개)
- 평수 : 60평
- 보증금 : 일천만원 월 : 70십만원

011-9461-3712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창원 39사단, 부근
- 3층 대형상가내, 2층 45평
- 법당 약 30평
- 모든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1억 8천만원

010-8675-8636

소백산자락 좋은터 안내
- 위치: 영주에서 부석사 중간 (영주시에서 15분)
- 독립구역 5,300평 (관리지역)
- 인입도로 포장(주차장 포함) 및 전기 완료
- 토목공사 완료(원하시는 분 만 연락요)
- 아늑하고 경치가 좋으며 수행 공간으로 최적

016-573-2032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임야 10,000평, 대지 200평

010-4876-5535

농가주택안내
청정지역 인심 좋은
경북 영양에 교통 계곡 환경
모든게 갖추어진 농가를
대지와 건물이 함께 한
저렴한 가격
2500만원 주인직

010-3538-2211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장
- 평수 약 40평
- 방2개, 창고2개, 주방, 욕실
- 2층건물에 2층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11-9317-6686

토 굴 터 안 내
- 위치: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중감마을에서 500M
- 현재 묵은 논, 2필지, 1017평
- 남향, 해인사 뒷산
- 깊은 산속 시원한 계곡물
- 가액: 2천 5백만원

011-9393-4965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 종교용지 730평방미터
- 1평방미터 가격 150,000원 땅값 암자 명회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건물내역 : 산신각 1동 대웅전 1동, 요사채 2동 건물 (증여) 건물값은 받지 않고 드립니다
- 물물교환 가능

011-9535-115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 3동 75-27(2층)
- 평수 : 38평
- 아미타불 삼존불
- 대통 왕 쑥찜질방 영업중
- 살림가능
- 전세 1,500만원, 월 50만원

011-859-5550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읍 아파트 주택밀집지역, 시장3분거리
- 4층건물 중 2층
- 상단후불탱화, 신중탱화, 삼존불의 지장단
-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집기일체
- 주차장완비, 전체평수 약 4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7400-997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진구
- 당감시장입구 큰대로변
- 대지 62평, 3층건물 중 2층 32평
- 공양실, 주방, 욕실, 방3칸
- 3층 32평, 대법당
- 전세1억, 월세도가능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257-5488

사 찰 안 내
- 위치: 영천시 북영천 IC부근
- 부지: 530평(종교용지)
- 법당: 33평(철근콘크리트조)단청 삼존불(청동불)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신, 용왕, 약사, 지장, 십대왕
- 요사채: 40평(방3, 거실1, 실내다용도실2)
- 기타: 10평 (야외화장실, 차고, 창고)
- 가액: 전화상담 방문 후 결정양도

010-2222-316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외관 근교
- 평수 약 510평, 메뚜기 노는 잔듸마당
- 법당 25평 목조단청 산신각 단청, 요사채 2동
- 가액 : 4억 3천만원
- 융자 4천포함(가액조절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함

010-5054-6782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고흥군
- 산세 수려하고 물 좋은 천년고찰터
- 고흥 초입 4차선 도로에서 저수지끼고 2km에 있는 아주 고요하고 청정한 도량
- 선방, 기도처, 복지시설 최적지
- 종교용지 200평, 임야 11,500평
- 임법당, 목조토기와 5칸 27평
- 요사채 50평 • 가액: 7억 5천만원

010-6778-1910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 평수 70평
- 시설A 급. 모든시설완비
- 삼존불, 원불 300불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3422-2575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도 광명. 서울권
- 45평, 삼존불
- 보증금 2천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A급 . 3천만원중 1천 5백만 받습니다

02)2618-0908

포교원겸 사찰안내
스님 법사님 보살님 불자님께
- 위치:전주시내 중심
- 상가주택, 4층 중 뒤로 2층, 독채, 계단 별도 이용
- 대지 122평, 마당있음
- 건평 45평, 큰방 4개, 다용도 방 1
- 거실 주방 깔끔, 욕실 2개, 전체 리모델링
-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큰 시장 5분거리
- 다양한 용도 사용가능, 대가족 환영
- 부처님 법단 원목조각 13자, 집기 대형냉장고 가정용 세탁기, 에어컨, 기타 등등.부처님만 모시고 오세요
- 전세: 5천 7백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저렴

010-3650-8481

베란다로 장보러 갈까요?

집안에 들어온 주말농장

채소값 고공행진이 계속 되고 있다. 1만원으로 장보기 힘들다는 말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즘은 더더욱 채소조차 맘껏 장바구니에 담을 수가 없다. 파종하기 좋은 3월의 끝자락, 우리집 베란다에 가정 경제에 보탬도 되고 집안 가득 봄 냄새 나게 할 텃밭을 가져보자.

채소를 내 손으로 길러먹는 것은 취미를 넘어 도시민과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자연을 되찾는 의미가 될 것이다. 농사를 짓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고 차분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채소를 재배하면 꽃이나 관상용 식물을 기르는 동안 맛보지 못했던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옛말처럼 가까이 두고 정성들여 길러 먹어보자.



왕초보도 재배하는 몇 가지 작물

1)대파의 무한 리필

대파 한단으로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다면? 바로, 대파를 화분에 꼽는 것이다. 뿌리가 있는 대파를 구입해 5cm 가량의 밑동을 화분에 꼽기만 하면 끝이다. 하루 이틀만에도 밑동 위로 순이 올라오며 1주일이면 25cm가량 자라난다.

보통은 대파 한단을 알뜰하게 다 먹지 못하고 몇 개는 누렇게 변색돼 버려진다. 사온 대파를 흙에 꼽아 두기만 해도 마지막 한 뿌리까지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 낭비를 줄일 수 있다.

2)진짜 쉬운 새싹 채소

집이 지하라 혹은 북향이라 일조량이 적어 식물을 키울 엄두가 나지 않았던 사람도 재배 가능한 채소가 있다. 무순, 배추순 등 새싹채소다. 접시나 컵에 거즈를 깔고 싹이 나기 전까지 어두운색 천으로 덮어준다. 단, 씨앗이 겹치지 않도록 평평하게 펼쳐준다. 물은 2~3시간에 한 번씩 분무기로 주고 추운 곳 보다는 따뜻한 곳이 좋다. 4일 후 싹이 나오면 천을 걷어주는데 6일이면 다란다.

3)씨앗도 필요 없는 알뿌리 채소

감자, 생강은 알뿌리 채소로 열매를 심어 재배한다. 감자와 생강은 구입한 것을 그대로 심어도 된다. 단, 높이 30cm이상의 화분이 필요하다.

생강은 집안에 두면 쉽게 싹이 난다. 싹이 난 생강을 심으면 보름 후에 흙 위로 싹이 올라온다. 2주에 한 번씩 액비를 뿌려주면 5달 후에는 생강을 수확할 수 있다.

씨감자는 2~3월경에 구입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감자도 가능하다. 씨감자만큼 수확량이 못하지만 보통 감자도 자세히 살펴보면 싹처럼 솟은 씨눈을 볼 수 있다. 작은 크기의 감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씨눈이 더 많기 때문이다. 보름이면 싹이 올라오고 3달이면 애기 주먹만한 감자들이 대롱대롱 달려 나온다.

가정에 있는 천연 농약

1)식용유와 노른자: 날달걀의 계란 노른자와 식용유를 섞어 만든 난황유를 이용하면 농약으로도 방제가 어려운 흰가루병, 노균병 등 곰팡이류병과 응애와 같은 해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계란 노른자 하나(15ml)와 식용유 100ml를 믹서에 3분간 섞은 후 물 20L에 희석해 작물에 부려준다. 이는 농가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2)식초: 곰팡이류병 예방에 좋다. 식초 1cc에 물 1L로 10배로 희석해서 분무기로 뿌려 준다.

3)우유: 희석하지 않은 채로 진딧물에 낀 가지에 살포하면 건조하면서 막이 생겨 진딧물이 질식해 죽는다. 2시간 정도 뒤에 깨끗한 물로 우유막을 제거해 준다.

4)마늘물: 다진 마늘을 물에 섞어 뿌려주면 된다. 해충이 싫어하는 냄새라 방충 효과가 있다.

5)커피물: 커피 역시 해충이 싫어하는 냄새로 방충제로 사용한다. 붓을 이용해 가지에 발라준다.

6)담배: 담배 10개비를 필터를 제거한 후 물 1L에 3시간 정도 담근 후 그 물을 분무기로 뿌려주면 된다.

흙 종류와 담기 (마사토→ 퇴비→ 상토)

먼저 마사토를 밑바닥에 갈아준다. 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돼 생긴 흙으로, 입자가 굵어 배수와 통기성이 좋다. 화분 바닥에 구멍을 가릴 만큼만 조금 깔아준다.

다음으로 밑거름이 될 퇴비를 넣어준다. 냄새가 심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재배하면서 액체 비료를 줘도 된다. 실내 · 가정용 퇴비로는 가장 냄새가 덜한 낙엽을 부식시켜 만든 것이 적당하다. 마사토와 섞어 넣는 것도 냄새를 줄이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공간을 상토로 채워주면 된다. 채소용 상토는 꽃집에서 파는 분갈이용 흙과는 조금 다르다. 배수를 좋게 하는 인공 토양인 펄라이트가 들어있어 훨씬 가볍다. 그러나 열매나 뿌리채소를 키울 때는 영양이 부족하므로 꼭 퇴비를 넣어주어야 한다.

씨앗심기

화분에 흙을 채우고 나서 씨앗을 뿌릴 때는 물을 한 번 흠뻑 적시고 나서 뿌린다. 씨앗을 먼저 뿌린 후 물을 주게 되면 씨앗이 물과 휩쓸려 나가버리기 때문이다. 젖은 토양 위에 2~3cm의 간격을 두고 심는다. 흙을 얇게 덮어주고 분무기로 물을 한 번 더 뿌려준다.

원예도구 주방과 문방구에 다 있다

모종삽은 큰 국자나 손잡이 달린 약수터 바가지면 충분하다. 냉이나 쑥처럼 작은 씨앗을 흩어 뿌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야 할 때는 굵은 체에 흙을 담아 밀가루 체 치듯이 흔들어 주면 균일하게 덮어 진다. 액상비료는 보통 물 1000ml에 5ml 정도를 넣어 희석해서 사용하는데 이때 필요한 1m단위의 계량기는 약국에서 받은 아이들 물약 병을 활용하면 된다.

참고 〈베란다 채소밭〉,
〈꼭 기르고 싶은 채소 20가지〉

천진영 기자 chun4q@gmail.com

씨앗 봉투에 답 있다

씨앗 봉투뒷면을 살펴보면 파종과 수확에 꼭 필요한 설명들이 소개돼있다.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 가나다순으로 설명했다.

결구-배추나 양배추가 동그랗게 포기가 지는 것
관수-물을 주는 것
기지현상-수확 후 같은 땅에 동일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잘 자라지 못하는 현상
내병성-병에 강한성질
내서성 더위에 강한 성질
동해-추위로 인해 얼어버리는 것
밀식재배-촘촘하게 씨앗을 뿌려 그대로 재배하는 것
복토-흙을 덮어주는 것
비배-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것
숙기-열매가 익는 시기
열근-뿌리 갈라짐
정식-모종을 밭이나 재배용기에 본격적으로 옮겨 심는 것
초세-자라는 모습이 왕성한 정도
추비-재배 중 위에 주는 거름

건강칼럼

달리의 두통



이경제 원장
래오 이경제한의원

기가 통하면 아프지 않다. 한의학에서는 기가 잘 통하면 건강하다는 것이고, 기가 막히면 질병이 생겼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가 통하고, 어떻게 되면 기가 막힐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의 작품 '기억의 연속성' 은 흐늘거리는 시계의 이미지로 아주 강하게 남아있다. 그 그림은 달리가 두통에 시달리면서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린 것이다. 두통이 '기억의 연속성' 이라는 명작을 만든 셈이다.

그가 수시로 고통 반던 두통은 정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내가 만일 달리의 주치의였다면 녹차를 권유했을 것이다. 녹차는 과도하게 상승하는 열정을 가라앉힌다. 그래서 명상과 수련을 하는 스님, 수행자들이 애용했고, 요즘 현대인의 심신안정에도 인기가 있다.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즐겨 먹는 올리브 역시 뇌를 안정시키고 뱃속을 편안하게 한다. 필자가 스페인에 갔을 때 인상적인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은 식사 전에 꼭 올리브를 먹는다. 올리브를 먹으면 뱃속도 편해지고 머리도 맑아진다. 스페인 사람인 달리는 아마 올리브를 별로 즐기지 않았나 보다. 스페인 사람들같이 다혈질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올리브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

침은 두침 치료를 할 것이다. 두침은 주로 중풍(뇌질환), 정신질환 환자에게 시술하는 것으로 달리처럼 과대망상의 경우에도 효과적이다. 두침은 뇌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는 침요법이다.

달리의 사진을 보면 눈을 부릅뜨고 턱을 과도하게 들고 있다. 이런 얼굴은 잠을 푹 자지 못하고 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다. 특히 이를 악무는 모습에서 턱이 과도하게 긴장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악물게 되면 턱관절 불균형이 되기가 쉽다. 현대인들의 두통은 대부분 턱관절불균형에서 온다. 턱관절은 머리를 지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삐뚤어지면 직접적으로 두통을 일으킨다.

턱관절이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입을 벌리고 닫을 때 움직이는 턱관절 부위를 눌러보고 아프면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달리의 경우는 턱관절교정치료를 10회 정도 하면 눈을 덜 부릅뜨게 되고 이를 악무는 습관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의 치료가 잘 되었다면 달리가 평범해져서 그의 명작도 나오지 않았을까. 달리의 천재성과 과대망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치료하지 않는 것이 인류에게 복이 된 것 같다.

두통에 시달리며 작품 그렸던 달리에게 녹차·올리브 처방하고 턱관절 살폈을 것

Tip1. 턱관절이 좋아지는 습관

① 양쪽 턱을 골고루 써서 음식을 섭취한다. 음식을 먹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 어금니를 한쪽으로만 쓰는 경우가 많다.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게 되면 턱관절이 불균형해지기 쉽다.

② 하품을 크게 하지 말자. 입을 크게 벌리면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턱관절 주변의 근육, 인대가 다치게 된다.

③ 껌, 오징어 등 턱관절을 많이 사용하게 하는 음식을 삼가하자.

④ 턱관절 부위의 근육을 자주 지압하자. 아픈 부위를 자주 지압해주면 두통도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⑤ 귓불에 있는 턱관절포인트에 귀고리, 피어싱을 해도 되고, 스티커침을 붙여도 좋다. 자주 귓불을 지압하자.

Tip2 귀의 턱관절 포인트



829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7 3 2-1522
FAX 02) 737-0696

된장공장 인수할 분
- 위치: 영월근교
- 산좋고 물좋고 경치 좋은 곳
- 땅 500평, 고급주택 1동, 공장1동
- 완벽한시설, 장독, 된장 포함
- 인수금액: 2억 5천만원

011-792-896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영동
- 4층건물 중 3층. 136㎡ (약 41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법당 삼존불, 영단, 신중단, 방2개, 주방, 정수기, 세탁기
- 에어콘, 책상 등 (시설비 300만원)
- 즉시 입주하여 살수 있음 (걸망만 매고 오세요)

010-5499-913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청도 IC에서 5분거리
- 면적 약 400평, 대지 70평
- 법당 2층 (약 30평)
- 삼성각1, 용왕각1, 종무소1, 상담실1
- 방 2, 거실, 큰 주방, 창고 3
- 앞에는 저수지, 뒤에는 산세수려
- 가액: 1억 6천만원(융자 3천만 포함)
- 답사후 상담

010-2518-1532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동구 수정4동
- 대지 66평
- 사용평수 100평이상
- 뒤 채소밭, 산, 바다 보이고 전망좋음
- 앞 도로접 주차가능
- 1층 요사채 37평, 2층 법당 20평
- 가액: 2억 8천만원

주인직 010-3133-00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서면 지하철 출구 앞
- 4층에 3층, 법당 4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부처님 삼불 청동, 시설완비
- 즉시법회가능

010-2235-13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강남 개포동
- 5층건물에 3층
- 평수 : 43평
- 주지실, 방1, 사무실, 법당
- 가액: 보증금 4천만원에 월 200만원
- 시설비는 상담 후 절충가능

010-9129-9003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온천장 요지
- 대지 39평 8홉
- 삼존불, 후불, 산신, 칠성, 용왕
- 연못 있음, 아담함
- 가액: 2억 (절충가능)

011-858-28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사무실1, 방 6개
- 시설 최상급1억 2천 투자했음
- 보증금 3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저렴. 상담 후 절충

010-4199-0047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분거리 국도 옆)

■ 면 적 : 사찰 전시관 2층(신축) 240평 외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기념품판매장 총 2,500평
임야 : 1만 5백평 (임야 입구 30만평 대형저수지)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 좌불(목불),
국내최대 관음목불 전시관 내 약 50여점 크리스탈 개금불 외 1,300 희귀 불상 전시 (국내최대).
전시관 외벽 일체 크리스탈 장식 만다라 액자로 장식.
년간 10만명 참배, 천도재 월 10건 이상

■ 전시관에 전시중인 크리스탈 개금불은 주지스님이 10년간에 걸쳐 조성한 창작개금불로서 일본으로부터 불교예술의 새역사를 연 작품으로 호평받고 있으며 절대 모방이불가능한 불상이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도 황홀함에 빠져드는 작품으로서 민간방송 총 17회 방영된 바 있습니다.

■ 양도가 : 35억

■ 사찰내역은 인터넷상에 '포항 성취관', 또는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을 입력 하십시오

■ 연락처 : 054)249-1023. 010-4504-0174
(필히 내왕 하셔서 직접 보십시오)

■ 자금력 있으신 대덕스님께서 운영하시면 대성공을 확신합니다.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㉗

선승의 도구(道具)- 필수품

30리 이상 길 떠나면 짐 챙겨야



법주사 총지선원의 한 스님이 선승의 필수품 중 하나인 발우를 정리하고 있다.

수행승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필수품은 세 종류의 가사(袈裟)와 한 벌의 발우이다. 모두 네 가지로서 그것을 '삼의일발(三衣一鉢)'이라고 한다. 삼의는 출타할 때 또는 법문을 할 때에 착용하는 승가리(대가사, 9조 이상의 가사. 25조까지 있음)와 평상복으로 예불 · 예참 · 간경 · 좌선 · 공양할 때 착용하는 울다라승(7조 가사), 작업복인 안타회(5조 가사)이다. 이상은 모두 가사로서 스님들이 입는 옷의 일종이다. 가사를 '법복(法服)'이라고 하여, 예불 · 행사 · 법문 때만 입는 우리나라의 개념과는 좀 다르다.

태국 · 미얀마 등 동남아지역 스님들을 보면 속옷 위에 주황색 가사만 걸친다. 외출하고 돌아와서, 또는 작업한 다음 세탁할 경우에는 그냥 홀훌 물에 빨아서 줄에 건다. 그런 다음 마르면 툭툭 털어서 다시 입는다. 이런 장면을 처음 본 우리나라 불자들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한다. "소중하게 취급해야 할 법복을 저렇게 취급하다니…" 하고.

중국 · 한국 · 일본 등 동북아지역 불교는 가사를 착용하기 전 장삼(長衫)을 입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속에 한복형의 회색 승복을 입는다. 중국 · 일본도 고유한 의복이 있다. 이런 옷들이 울력할 때에 입는 가사인 안타회(5조 가사)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다. 이 4가지 외에 물을 마실 때 벌레 등 살생을 방지함과 동시에 티를 제거하기 위해 물 거르는 주머니인 여수낭(濾水囊, 濾水羅)과 좌구(坐具)로서 직사각형의 방석인 니사단(尼師壇)을 합해 '비구 6물(物)'이라고 한다.

대승불교 시대에 와서는 비구가 탁발걸식을 할 때 항상 몸에 지녀야할 도구로서 모두 18가지를 들고 있다. 이것을 '18물(十八物)' 또는 '두타18물(頭陀十八物)'이라고 하는데, 양지(楊枝, 버드나무를 가늘게 쪼개서 만든 칫솔. 齒木이라고도 함) · 조두(澡豆, 세정제로서 녹두 등 콩으로 만든 가루 비누) · 삼의(三衣, 가사 3벌) · 정병(淨甁, 물병) · 발우(鉢盂) · 좌구(坐具, 앉거나 누울 때 까는 깔개) · 석장(錫杖, 주장자, 육환장) · 향로(香爐) · 여수낭(濾水囊, 물을 거르는 주머니. 여수라濾水羅, 녹수낭漉水囊이라고도 함) · 수건(手巾, 땀 닦는 수건) · 도자(刀子, 머리 깎는 삭도 등 칼 종류) · 화수(火燧, 불을 피우는 부싯돌. 오늘날의 성냥) · 섭자(鑷子, 콧털을 뽑는 작은 집게. 오늘날의 족집게) · 승상(繩床, 앉거나 누울 때 사용하는 노끈으로 만든 의자) · 경전(經典) · 율(律, 계본) · 불상(佛像) · 보살상(菩薩像) 등이다.

중국 선종사원에서는 이것 외에(일부는 포함됨) 별도로 참선 수행승이 갖춰야 할 도구(道具)로서 모

가사·발우는 수행승 기본 필수품
대승불교, '두타18물' 항상 지참

두 23가지 가량을 열거하고 있다. 이것은 선원 특유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도구(道具)'란 진리 곧 도(道)를 깨닫기 위한 보조물'이라는 뜻이다. 청규에는 외출 거리가 30리를 넘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구를 챙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선원청규〉 제1권 '판도구(辦道具)' 장에는 "장차 총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도구를 준비해야 한다"며 "산립(山笠) · 주장(柱杖) · 계도(戒刀) · 사부통(祠部筒) · 발낭(鉢囊) · 혜대(鞋袋) · 침자(枕子) · 령구혜(鈴口鞋) · 각병(脚絣) · 전후포건(前後布巾) · 백견부포(白絹複包) · 조포(條包) · 침대(枕袋) · 개포(蓋包) · 소유단(小油單) · 시유단(柿油單) · 포와단(布臥單) · 면피(綿被) · 정건삼조(淨巾三條) · 소정병(小淨瓶) · 욕건(浴巾) · 욕군(浴裙) · 함궤소쇄(函櫃小鏁) · 다기(茶器) · 기타 의물(衣物)" 등을 열거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산립(山笠): 삿갓이다. 삿갓은 비나 눈 또는 햇볕을 막기 위해 머리에 쓰는 갓으로서 주로 행각 · 만행할 때 쓴다. '개립(蓋笠)'이라고도 한다. 삿갓과 도롱이를 묶어 '사립(簑笠)'이라고 부른다. 재료는 대나무나 갈대 등으로 만든다. '삿갓' 하면 유명한 방랑 시인 김삿갓(김병연)을 떠올리게 된다. 청규에서는 삿갓은 행각 · 외출할 때는 쓰지만 산문(山門 · 선원의 정문) 안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벗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외출할 때도 산문을 지나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장(拄杖): 행각할 때 사용하는 지팡이이다. 호신용 겸 의지용 막대기로서 머리 부분에 가지가 있는 쪽을 '촉두(觸頭)'라 하고 없는 쪽을 '정두(淨頭)'라고 한다. 석장(錫杖 · 주장자)의 일종이지만 그것과는 좀 다르다. 석장은 머리 부분은 둥근데, 모두 여섯 개의 고리가 끼워져 있다고 하여 '육환장(六環杖)'이라고도 한다. 짚으면 절그렁 절그렁 소리가 나서 짐승, 벌레 따위를 물리치거나 일깨운다. 걸식할 때는 흔들어서 탁발하러 왔음을 알린다. 1103년에 편찬된 〈선원청규〉에는 주장(拄杖)만 명시되어 있고 석장은 없으나, 그 후대인 1338년에 편찬된 〈칙수백장청규〉에는 석장과 주장을 모두 별도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 이 두 가지는 구별됐던 것 같다. 행각을 하다가 혹 길에서 서로 인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왼 손에는 주장자를, 오른 손에는 삿갓을 들어 가슴에 대고 인사한다.

계도(戒刀): 칼로서 용도에 따라 몇 종류의 칼을 열거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삭도(削刀)이다. 삭도는 삭발 즉 머리를 깎는데 사용하는 칼로서 놋쇠로 만든다. 재의(裁衣)는 옷을 기울 때 천을 자르는 작은 칼이다. 그 밖에 할피용(割皮用) · 전갑용(剪甲用) · 파창용(破瘡用) · 정과용(淨果用) 등을 들고 있다. 이것을 '계도(戒刀)'라고 한 것은 '일체 모든 악을 끊는다'는 뜻이다.

사부통(祠部筒): 도첩(출가 허가증) · 계첩 · 면정유(정부에서 발행하는 노역 면제증) · 좌하유(하안거 결제증) 등 증명서를 넣어 갖고 다니는 통이다. 이것을 '사부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예부(禮部) 밑에 도첩 등을 관리하는 부서 명칭이 사부(祠部)이기 때문이다. 사부첩(祠部牒)이라고도 한다. 이상의 증명서는 입방할 때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발낭(鉢囊): 발우를 넣는 주머니인데, 발대(鉢袋, 발우 넣는 자루)라고도 한다. 이 발랑이 변해 '바랑'이 됐다. 또 '걸망'이라고도 한다.

혜대(鞋袋): 신발을 넣는 주머니.

침자(枕子): 잠 잘 때 베는 베개.

령구혜(鈴口鞋): 령구혜는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선원청규〉에 나오고는 있으나 설명이 없고, 후대에 편찬된 〈칙수백장청규〉에는 아예 기록이 없다. 〈선림상기전〉과 〈선학사전〉 등 그 밖의 자료에도 설명된 곳이 없다. 명칭(신발 입구의 방울)으로 보아 신발 앞이나 위에 방울을 달아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게 하여 벌레나 뱀 등이 피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각병(脚絣): 발목에서 무릎 아래까지를 둘러싸는 천으로서 행전(行纏)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각반(脚絆)이라고 한다. 주로 행각할 때 다리에 차는데, 추위를 방지하기도 한다.

전후포건(前後布巾): 전포(前布)와 후포(後布)의 보자기인데, 전포에는 가사(袈裟), 편삼(偏衫), 상의(上衣) 등 깨끗한 옷을 싸 두고, 후포에는 침구로서 깔개, 덮는 것, 솜바지, 내의 등을 싸 둔다.

백견부포(白絹複包): 흰 명주 천으로 된 포장용 보자기로서 속옷을 싸는 보자기이다. 속옷은 후포에 싸기 전에 먼저 백견에 싼다.

조포(條包): 보자기를 묶는 끈.

침대(枕袋): 베개를 넣는 자루.

개포(蓋包): 가사나 물건을 싸는 보자기.

소유단(小油單): 유단(油單)은 천이나 종이에 오동나무 기름을 먹인 방수용 천이나 종이로, 주로 걸망 덮개로 사용하며, 때로는 도구를 땅이나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밑에 까는 용도로도 사용한다. 소(小)는 작은 것을 뜻함.

시유단(柿油單): 주황색 유단(油單).

포와단(布臥單): 면단(眠單)이라고도 하는데, 잠잘 때, 누울 때 까는 천으로서 앉을 때는 반으로 접어서 그 위에 좌정(坐定)한다. 오늘날 담요나 모포 같은 것이다.

면피(綿被): 솜이 넣어 만든 퍼대기의 일종으로 침구로 사용하며 추울 때는 이것을 두르고 좌선하기도 한다.

정건삼조(淨巾三條): 청결한 수건 3장으로서, 하나는 발우를 싸서 덮는 수건이고, 하나는 무릎을 덮는 개슬건(蓋膝巾)으로서, 공양할 때 음식물이 가사에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리고 다음 하나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수건, 즉 땀 등을 닦는 수건이다.

총림 가는 납자는 도구 준비 필수
산립·주장 등 24가지 이상 필요

소정병(小淨甁): 소정병은 '정병(淨甁)'으로서 수행승이 행각 때 마시기 위한 식수용 물병이다. 또는 음식을 먹기 위해 손을 씻을 때도 이 물을 따루어 씻는다.

욕건(浴巾): 욕건은 목욕할 때 쓰는 수건.

욕군(浴裙): 욕군은 목욕탕에서 입는 하의(下衣)로서 치마처럼 생긴 것이다. 하체를 가리기 위하여 입욕 직전과 입욕 후에 입는다.

함궤소쇄(函櫃小鏁): 함궤를 잠그는 작은 열쇄. 승당 벽에 도구를 넣는 함(函)이 있으면 짐을 넣고 잠근다. 함이 없는 승당도 있다. 이때는 주로 중료(衆寮 · 큰방, 대중방)에 둔다.

다기(茶器): 다기는 찻잔 등 차 마실 때 사용하는 도구.

이상이 납자가 반드시 지참해야할 도구인데, 비구의 필수품인 18물과 〈선원청규〉의 항목이 차이가 난다. 일치하는 것은 정병 · 칼(戒刀) · 주장자 등이다. 또 후대에 편찬된 〈칙수백장청규〉에는 "삼의(三衣) · 좌구(坐具, 니사단) · 편삼(偏衫, 上衣) · 군자(裙子, 허리에 매는 치마모양의 하의) · 직철(直裰, 편삼과 군자를 합친 것) · 발우 · 석장(錫杖) · 주장(拄杖) · 불자(拂子) · 수주(數珠, 염주) · 정병 · 여수낭 · 계도 · 보자기만 열거하고 있다. 새로 편입된 것은 편삼 · 군자 · 직철 · 불자(拂子) · 염주이고, 석장과 주장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주)현대에너텍 2011년 최신형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협융자지정업체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 · 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1평 ~ 20평까지

건조기(11채반) 건조기(22채반) 건조기(33채반)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에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 0502-337-0108/ 0502-338-0108 www.seonwonsa.kr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대행 스님

근본 하나에서 일체 만법이 다 나갑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리고 고가 고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물에 가면은 이런 게 많아요. 내가 외국에 가서도 바다에 나가봤더니 글쎄, 요만한 돌들이요, 그냥 돌짝같이 고렇게 얼마나 이쁘게 그 모래톱에 나와 있는지 그거를 주워모아 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지원마다 돌아다녔죠, 또. 하하하. 그거를 보면서 뭘 생각한 줄 아십니까? '어, 세상에 미생물도 이렇게 조약돌이 구르듯 그렇게 치열하게 굴러서 진화가 돼서 또 딴 게 되고, 자기의 생각대로 아쉬움대로, 아쉬운 걸 생각하는 대로 진화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부대끼지 않는다면은 둥그러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매끄럽지도 않고, 남이 쓸모 있다고 줍지도 않을 거다.' 하는 거요.

오늘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뭐 답답하다고 뛰쳐나가고, 자기 사량이죠. 이렇다고 나가고 저렇다고 안 하고, 이렇다고 속썩어서 싸우고…. 우리 스님들은 더더욱 고가 고가 아니라 우리를 닦아주는 정수라는 생각을 해야 돼. 관정(灌頂)에 정수가 드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을 다 이익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돼야 관정에 정수가 드는 법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부처님 머리에다 물 끼얹는다고 해서 자기 머리에 정수가 드는 줄 알아? 그거는 그냥 표현이야.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그건 진실이 못 되지, 실천이 못 되고. 그런 거 아무리 도깨비 장난처럼 장난을 해 봤자야 그 턱이 그 턱이지. 내가 이 한마디만 더 하고요.

모두가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컴퓨터에 입력되듯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됐다고 그랬죠. 그렇게 입력이 되는 것을 누구를 탓하고 그러랴! 모든 것은 자기한테 입력이 돼서 차례차례 나오는 거를 차례차례로 좋게 나오면은 감사하게 놓고, 언짢게 나오면 '네가, 네가 그랬던 거니까 네가 해결을 해야잖아!' 하고 거기다가 놔야 그게 몽땅 그냥 죽는 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보게 되고, 그렇게 관정에 정수가 들게 되죠, 그게 우주의 정수이기 때문에. 그러고도 과거 현재 미래, 삼세계를 한데 초월해서 합친 정수이기 때문에 그게 보통 말로, 이론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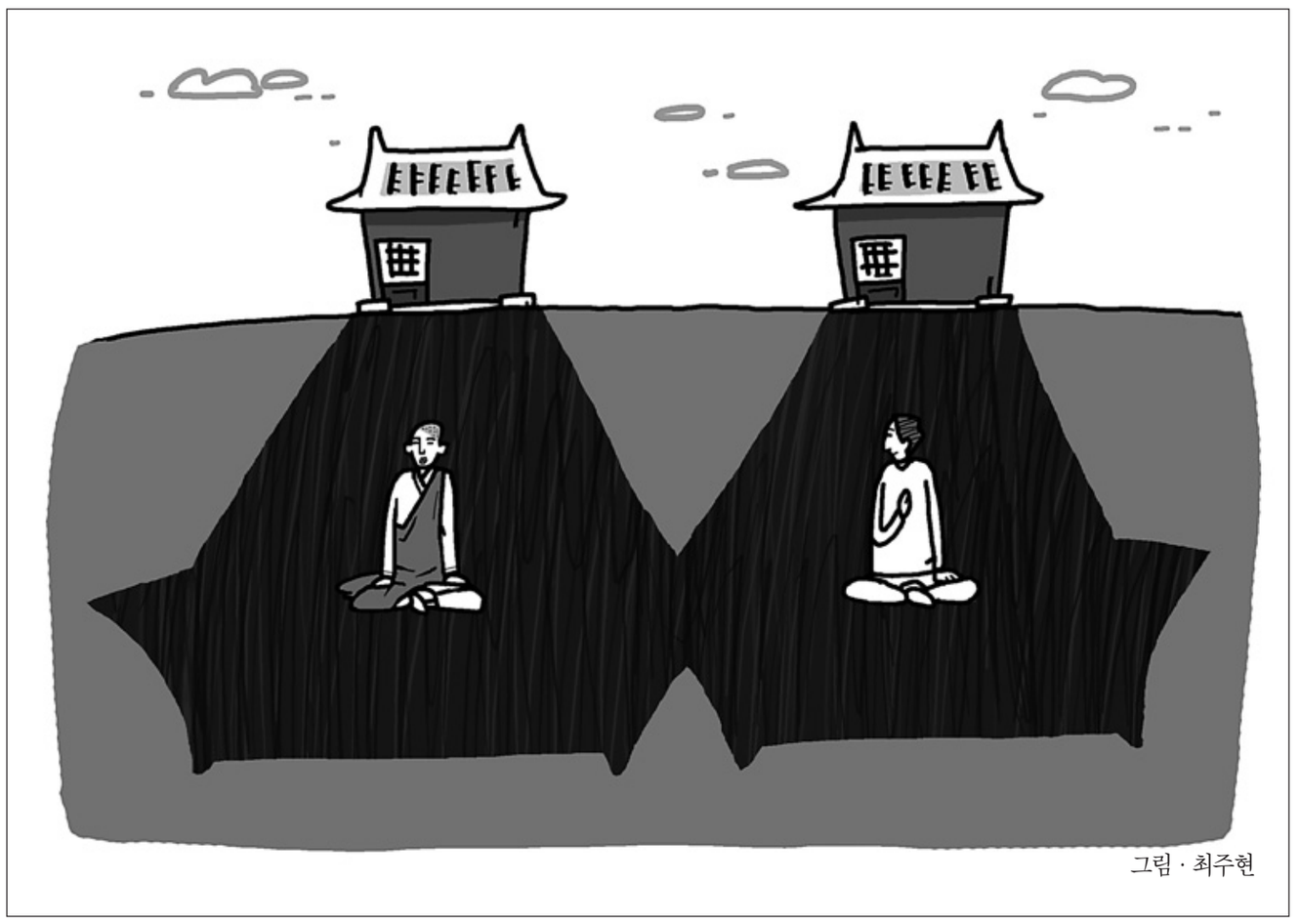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럼 질문하세요.

질문자1(여) : 큰스님,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아주 잘 가르쳐 주셔도 그 실천을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 선원 올 때는 신장이 아주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스님께서 뭐 초약 같은 것도 먹고 그러라고 해서 부은 건 빠졌는데 그래도 매일 편치는 못해요, 그냥. 찌뿌둥하고 걸으려면 이 다리가 무겁고, 그래도 그냥그냥 공부랍시고 저 나름대로는 부지런히 큰스님 법문 들으면서 해 가는데, 한 달 전쯤에는 몸이 막 비틀려요. 그래서 밤 되면 이렇게 숨도 계속 쉬어지지가 않고 순간순간 숨차 오르고, 잠이 안 오면 막 창문을 열어야 하고 그래서 뭔가 관도 해 보고 그러지만….

큰스님 : 이거 보세요. 말씀하시는데 중간을 끊는 건 안됐지만 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귓전으로도 듣지 않아요. 왜냐? 그거는 자기가 자기 믿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 통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속의 의식들이 작용을 안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머리로 대뇌로 해서 통신이 돼야 이게, 즉 말하자면 중뇌에서 책정을 해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돼서 그 작용을 해 주게 돼 있는데, 그 근처에 가지도 않는데 아, 방에 불을 환하게 켜려면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모르고, 거기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니 어떻게 방에 불을 환하게 켭니까? 그런 거를 누구한테 한탄을 합니까?

내가 항상 그러죠. 죽는 거 먹는 거 똥 누는 거, 자는 거 아픈 거, 이것 다섯 가지는, 깨치는 거, 그거 여섯 가지는 도저히 부처가 이 자리에 있어도 그건 대신 못해 준다고 하죠? 그러니깐 당신 알아서 하세요. 내가 알려 줘도 그렇게 못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내가 의사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의 성품은 그대로 지장이요 그대로 칠성이요 그대로 관세음이요 그대로 아촉이요 아미타요, 미륵이요 용신이요, 또는 그대로 의사며 약사며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는데 아, 남의 이름은 그렇게 잘 믿고 이 부처님 형상은 잘 믿어도 자기 뿌리를 믿으라는 데는 왜 그렇게 못 믿습니까? 나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공의 근본 성품도 저 (등 뒤의 부처님을 가리키시며) 부처님하고 둘이 아니요, 그 모습도 둘이 아니요, 마음도 둘이 아니란 얘깁니다.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거 놓고.

질문자1(여) : 왜 믿어지지 않는지, 믿고 싶어요, 저도.

큰스님 : 아 아, 그런 거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글쎄.

질문자1(여) : 네.

큰스님 : 날 냉정하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냉정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한 치도 한 걸음도 떼어 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질문자2(여) : 큰스님, 죄송합니다. 아들 일로 지난달에 큰스님 친견하고 갔습니다. 그 뒤로 집에서 큰스님 말씀 따르자고 집에서 계속 아들의 아버지하고 같이 관하다가 그래도 주위에서 믿지 않고 모두 야단이니까 못 이기고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수술하게 됐습니다. 스님, 우리 아들도 절에 왔다 가면 마음 편안히 좋다고 수술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진단서를 떼어 오라고 해서 갔다가 의사가 겁나는 소리를 하니까…

큰스님 :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의사의 마음하고 댁의 주인공의 마음하고 둘이 아니게 된다면 그대로 수술해도 잘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법이고 저렇게 해도 법이고, 가는 것도 법이고 안 가는 것도 법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상황대로 능동적으로, 상황대로 지혜롭게 해라. 가서 될 일이라면 가고 안 가서 될 일이라면 가지 말고, 이거 상황대로 하는 거지, 그게 법이지 아, 법을 어디서 꾸어다 붙여놨습니까? 안 간다는 법도 없고 간다는 법도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그럽니까? 거 좀, 사람 죽고 사는 데도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해요? 아,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또 죽는다 해서 옷을 벗는 거지 아주 죽는 게 아니니까. 허, 참 그렇게들 그러지 마세요. 그래야 이게 더 한층, '아하!

☞ 26면으로 계속

무료 수강생 모집

"아는 것이 힘이요, 기술이 능력이다.
이것이 재력이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이 어려운증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한 경우, 몸이 한편으로 기우는 경우, 장단족,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기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림)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로도 없음.
- 도구가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락의 이름이나, 근육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십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2-06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

수행템플스테이
(깨달은 다이어트)

진짜쉼

머리의 번뇌를 쉬고
입을 쉬고 내장을 쉬는
지혜로운 템플스테이

※절, 염불, 독경, 참선, 와선, 행선, 부처님호흡법, 알아차림을 완벽하게 배우고 점검을 받으며 실천수행

청견스님 직접 수행교육지도

잠을깨고 혼침 졸음 이기며 피로풀고
스트레스 날리고 삼매 깨달음 100% 이해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챙김 알아차림

◉대상(누구나) : 출가예정자 행자 사미 사미니는 미래불공덕회에서 수련회비 전액 후원

◆수행일정(예약신청)

9차 : 4/16 ~ 4/17　12차 : 6/11 ~ 6/12
10차 : 5/ 7 ~ 5/ 8　13차 : 6/18 ~ 6/19
11차 : 5/14 ~ 5/15　14차 : 7/ 2 ~ 7/ 3

법왕정사 부산법당
전화 : 051)583-7886
www.법왕정사.kr(수행템플스테이)참조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 (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 (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1-545-5060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내 마음의 보배를 빛이 나게 닦아보세요

☞ 25면에서 계속

이게 저 사람이 마음을 저렇게 가지니 나라도 해야지 안 되겠다.' 그러고 주인공이 외려 자기 몸을 더 아껴서 다스려준다 이 소립니다. 보이지 않는 데의 약을 잡수시도록 열심히 하세요.

질문자3(남) :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 강의를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은연중에 저희가 말을 하다 보면은 큰스님 법문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오늘도 큰스님께서는 칠차원 세계를 얘기해 주셨지만 보통 그 전까지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삼차원 세계를 얘기했는데 거기에다 시간이라는 하나의 세계를 더 집어넣어서 사차원 세계까지 한 것을 저희들 물리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스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칠차원까지를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물론 거기는 마음으로 전부 다 전달되는 그런 세계라고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차원 세계에서 오차원 육차원 칠차원까지이니까 너무 엄청나서 과연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 부처님께서는 칠차원의 칠보를 가득하게 싣고 다 어느 중생 아닌 중생이 없이, 나 아님이 없이 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모두 알게 되고 머리가 깨이고 이러는 것도 부처님이 그 뜻을 먼저 깨달으셔서 먼저 생각을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 칠차원을 넘어서야 모든 우주의 섭리, 모든 것을 다 내가 얻은 게 없이 얻어서 다 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보배라는 것은 전부 깨달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깨달은 마음은 마니주(摩尼珠)라고 합니다, 마니주 구슬이라고. 용이 돼서 올라가려면 여의주를 물어야 올라간다고 하죠. 그렇듯이 인간도 차원이 높아지려면 여의주, 즉 말하자면 자기 마음이 보배가 아니고는 안 되죠. 마음이 아니라면 절대로 보배를 얻을 수가 없고 또 줄 수도 없습니다. 그 차원까지 가야 칠차원에 이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천백억이라고도 했습니다. 하하하. 그 차원이 말입니다. 수효가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차원이 된단 말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천억도 되고…. 말로는 헤아릴 수 없이 그렇게 차원이나 수효나 보배가 그렇게 많고 보살의 수효도 그렇게 많고, 중생의 수효도 그렇게 많고, 그래서 그 많은 수효 중에 보배라는 것은 다 똑같다 이거야. 보배를 다듬지 못해서 그렇지, 갈고 닦아서 빛을 내는 그 보배는 보살의 보배고 또 이렇게 내 마음의 보배를 닦지 못한 분들은 그냥 빛이 나질 않죠. 그래서 다 똑같은 보배인데, 빛을 내지 못한 보배가 있고 빛이 난 보배가 있는 것은 그 차원이 보살 차원, 중생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이라고 말할 때는 차원이라는 말이나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립니다. 지금 얘기를 하려니까 칠차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차원이라는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가 그대로 차원입니다. 차원이 없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질문자3(남) : 네. 아까 큰스님께서도 우주와 저희들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에는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저희들이 먹고 산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태양에서 그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 에너지를 식물이나 프랑크톤이 흡수를 하면, 그 흡수한 식물이나 동물을 먹고 그런 먹이들을 사람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태양에서 보낸 에너지가 우리 사람들의 몸에 전부 활력소가 되는 에너지가 돼서 태양이 없어지면 지구도 태양을 돌고 있으니까 없어지고, 또 우주 전체의 행성이 태양도 우주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따로 보지 않고 항상 같이 본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입자가 기본적으로 생긴 것은 여섯 개의 쿼크와 거기에 돌고 있는 전자라고 해서 그것이 원자가 되고 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큰스님께서도 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현대 물리학 쪽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이 타당성 있게 설명이 되어지고 또 그런 설명을 제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그런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되는데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든다면 수소 같으면 거기에 양성자나 전자가 하나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 양성자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쿼크라고 하는 입자가 모여서 다시 말하면 '인연이 만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개의 쿼크 중에서 인연끼리 만나가지고 양성자도 되고 중성자도 되어서, 그것들이 또 인연끼리 만나서 우리가 말하는 수소도 되고, 산소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쿼크가 몇 개 모여서 소위 말하는 양성자가 8개면 중성자가 8개이고, 또 전자가 8개 모여서 뭐 기본적인 산소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모든 물질이 인연 따라서 만나서 나무도 되고, 사람 몸도 만들고, 책상도 되고, 또 새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정되게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를 알면
> 공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 어떤 걸 내놓을 게 없이.
> 내놓을 게 없이 완성이 돼야
>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거를 본다면 나무나, 풀이나, 내 몸이나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항상 같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큰스님께서는 물리학을 공부를 안 하셨겠지마는 진리 자체를 알고 계시니까 그런 설법을 하셨겠다 하는 그 감사함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늘 죽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큰스님께서 하시는데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 만일 잘못됐다면은 학생들에게 제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점검 받을 게 있어서 한 번 더 말씀 드리렵니다. 그러면은 모든 물질과 나와 그런 입자와 둘이 아니게 하나로 돌리면 그것을 죽었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뜻이 있는지를 한 번 이 기회에 또 설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그 고정되게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를 알면은 공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깁니다, 어떤 걸 내놓을 게 없이. 그러니까 내놓을 게 없이 완성이 돼야만이 물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어가서 모두 배운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리를 배워서,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말을 할 때 천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툭툭 나가지요. 네. 그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근본 하나에서 일체 만법과 일체 만개의 물질이 (세워 든 손가락 주위를 다른 손가락으로 돌려 보이시며) 다 거기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그 하나까지도 없다는 얘깁니다. 너무 많이 진화돼서 바뀌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그냥 수없이 바뀌어서 돌아간다. 이런 거를 모르겠걸랑 하루 사람 사는 동안에 몇 번이나 딴 사람을 보고 돌아갔고, 딴 사람 말을 듣고 돌아갔고, 이렇게 만나고 돌아갔고, 몇 발자국이나 가고 오고, 이렇게 할 동안에, 하루 산 동안에 얼마나 고정되게 서 있었나 그걸 보라고요. 하나도 서 있었던 게 없고 그냥 초월해서 돌아갔을 뿐이죠? 어떤 거를 했다 안 했다 할 수도 없이.

질문자3(남) : 네.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다녀오다가 어떤 저수지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많은 보살님들이 물가에서 물고기를 저수지에 놓으면서 그렇게 방생을 하시는 걸 보고 대단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의 원전들이 나중에 또 다시 편찬되면서 아마 그런 원뜻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방생 자체를 큰스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중생들, 또 물고기, 지나가다가 개구리 한 마리라도, 올챙이 한 마리라도 물이 없어서 이렇게 허덕이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져가 주는 게 방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사회에서 진행되는 방생을 보면은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이 기회에 참된 방생이 어떤 것인지 감로법을 청합니다.

큰스님 : 방생은 뭐, 이 자리에서도 방생이고, 또 지나가다가도 생각 한 번만 해 줘도 방생이고, 이건 무심 방생, 유심 방생 그저 모두 유체의 방생, 무체의 방생 이게 뭐 헤아릴 수가 없지요. 방생이라는 뜻은 모든 걸 남을 이익하게 해 줘야지 방생이지 내 사리사욕을 취해서 방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방생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돈을 뜯겨서 울고불고, 보증을 서고 울고불고, 돈을 빌려 주고 받지를 못해서 울고불고, 그런 사람이 가끔 있죠. 그러면, 애당초에 당신이 밥을 먹고 내가 이것을 빌려 주고 내가 이걸 못 받아도 할 수 없이 그건 꼭 줘야만 되겠다 할 때는 줘라 이거야. 주되 그거를 되받으려고 생각지는 말라. 그 사람이 잘돼서 줄 때까지, 주게 되면 다행이고 못 주게 되면 외려 그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잘되게만 자꾸 그저 마음을 내 주면은 언젠가는 가져오지마는 그 사람 안 준다고 그냥 꼭 자기 죽어가는 거 살려 줬더니 안 준다고 그냥 악바득히 미워하고 그냥 욕을 하고 이렇게 되면, 더 망하게 되면은 외려 받지도 못하고 의열이 나고 말입니다, 그 원수가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이생에서만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내생에까지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줘라 이겁니다. 난 뭐, 두말할 거 없이 주려면 그렇게 줘야지 받을 생각을 하고 주면은 안 된다. 그러되, 그 받은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는 갚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일이 잘되지마는, '에이그, 그거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 사람은 뭐…' 그렇게 치면은 또 안 되죠. 자기가 잘되지를 않죠.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서로 돕는 마음 변치 말고 살아나가는 그 마음의 도리를 우리는 지켜보면서 잘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질문자3(남) : 감사합니다.

큰스님 : 그럼, 이제 고만 할까요. 허허허. 여러분이요, 드러누워서 잠잘 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시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깐 잠잘 때는 아무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푹 주무세요. 그러고 그저 낮에 일어나서 일할 때, 그냥 이렇게 변소에도 가고 일할 때, 그저 일하는 도중에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몰두해서 하고, 손 떼고선 잠깐이라도 쉴 때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깁니다.

※위 법문은 1996년 3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권 선 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저희 대한불교고승연합회 복지 지원단에서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에 부처님과 불자를 위해 한생을 바치신 노스님들의 귀의처가 될 고승복지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하여 귀사찰, 암자 기도원에서 불필요한 폐초 및 불기를 수거하고 있사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수거품 : 폐초, 파불상, 촛대, 향로, 제기, 불화, 공양미 등
복지 기금마련을 위하여 양초 판매하고 있사오니 협조바랍니다.
예금주 : 대한불교고승연합회 / 농협 1124-01-138620

= 자 비 실 천 =

■ 수거품이 있으실 때 연락주시면 방문 또는 택배업체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복지단에서 부담합니다)
■ 보내실곳 :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삼리 227번지 고승복지단(앞) 전화 031)764-3511 / 팩스 031)764-4711
■ 복지지원단에서는 스님 수행하시는데 불편한 각종 애로 사항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고승연합회 복지지원단
단장 경천 배상

불자 세상보기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스탠퍼드대 방문학자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한반도 긴장고조는 남과 북 모두에게 부담이다. 남측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평화관리가 긴요하고, 북측도 6자회담 재개 등 대외관계 확장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복원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적기"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당국의 대화 필요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대화다운 대화가 열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 열린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이 결렬된 이후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 표류 북한주민들의 송환문제, 대북전단 살포 등을 둘러싸고 남북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남북당국의 대화의지에 따라 연초 잠시 갈등을 풀 조짐을 보이던 남과 북이 다시 갈등을 되풀이 하는 데는 대화를 위한 신뢰를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화다운 대화가 이뤄지려면 전제조건이 충족되거나 조건 없는 만남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져 조건 없는 만남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화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 동안 남측 정부가 제시한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은 비핵화 진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시인,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약속 등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문제는 6자회담을 재개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천안함 사건은 "반공화국 모략극", 연평도포격사건은 "위험천만한 무장도발행위"라면서 사과는커녕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고 있다. 북한은 3·1절 기념사에서의 이 대통령의 대화제의에 대해서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남측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측의 대화공세가 식량난 해소를 위한 필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충족 차원으로 보고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전제조건들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무조건적인 대화와 협상의 적극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집권 4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할 때 지금이 대화의 적기임은 분명하다. 그렇게 하려면 대화를 위한 신뢰 회복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제시한 전제조건들이 많아 분위기 조성도 쉽지 않다. 현재로선 북측이 핵, 미사일 포기와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 등 전제조건들을 이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남측의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있기까지는 대화다운 대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북측이 통치권 차원의 결단을 하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권력승계기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북측이 먼저 굴복하고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리비아 사태를 목격하고 있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조치를 먼저 들고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과 관련한 시설을 공개한 이후 다급해진 미국과 중국은 남북대화를 재촉하고 있다. 최근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식량지원을 시사하면서 대북정책의 목표를 정권교체(regime change)가 아니라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동 변화'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의식해서 북·미 대화나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먼저 남북대화가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중국도 6자회담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이 향상되고 있고, 3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한국의 '기다리는 전략'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황악화를 막기 위해 대화를 추진할지, 아니면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려야 할지, 남측 정부는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불고 있는 재스민혁명의 민주화 열풍이 북한에도 밀어닥칠 것을 기대하면서 압박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 개입을 통한 상황악화를 막을 것인지 등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부대중 칼럼

수험번호 000000번 합격…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 승만경
연구회장

한참 전의 일이다. 지금은 불혹을 넘긴 큰아이가 대학을 갈 때였다. 큰아이의 담임선생님은 "아드님이 꼭 그 대학을 가야 합니까? 그 대학이 아니라도 무방하다면, 어머님 일이 바쁘시니 아이일은 아이에게 맡기고 어머님 일 열심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담임선생님에게 아이의 지도를 부탁하는 인사를 남기고 교문을 나서면서 내심 마음이 우쭐 했었다. '그래 내 아들인데! 잘 할꺼야'라고 생각 하면서, 마치 내 아들이 대학에 입학 한 것처럼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그 후, 아들의 예비고사 성적이 예상에 못 미쳤다. 철석같이 믿었던 내 아들의 성적이. 나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아픔을 가눌 수가 없었다.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마포 강가에 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

내 일생동안 여자였기 때문에 당한 무수한 아픔도 이 아픔과는 비교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교수 발령을 낼 수 없다는 학장의 말에 전신주 같은 못이 내 가슴에 박혔고 나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 말이다.

큰아들은 당시 H대학에서 처음으로 만든 학과의 1기 지원자였다. 그 학과는 인문계·자연계를 망라해 인기가 높았다. 지망생들의 예비고사 성적은 2~3점 차이였다. 합격과 불합격의 결정은 5%(30점 정도)의 실기점수로 판가름이 나는 것이었다.

처음생긴 학과였기 때문에 실기고사(석고데생) 준비를 안 한 지원자들이 대부분인 듯 했다.

나의 아들도 그랬다. 예비고사 발표이후 그 학과를 지망한 후, 한 달여간의 시간에 데생을 연습을 했다.

실기고사 시험 보러가는 날, 아들에게 엄마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작은 존재인지, 작은 개미보다도 아니 그 보다 더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였다. 맥이 딱 풀렸다. 내가 너무 초라했다. 아들에게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석고데생은 예술이 아니야. 초등학교 때 배운 지도를 크게 확장하고 줄일 때 네모 칸을 만들고 그 안에 선을 그대로 옮기는 것하고 꼭 같은 것이라고 한 말만 잊지 마라"라고 일러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리고 아들에게 시험 끝나는 대로 빨리 엄마에게 전화하라고 일러서 보냈다.

나는 안방에 전화 코드는 빼고 문을 잠그고, 큰 교자상을 폈다. 향을 꽂고 타자지를 준비했다. 실기시작시간에 맞추어 타자지에 '수험번호 000000번, 이름 000, 0000대학 0000과 합격'이라고 쓰기 시작했다.

실기고사가 끝나기 까지 3시간 동안 그렇게 썼다.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 막 지나면서 아들이 전화를 했다. "그래 어떻게 그렸니?"라고 물었더니 "엄마, 종이에 꽉 차게 잘 잡았어, 그런데 광선이 석고 뒤에서 들어왔어(역광),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광선은 그려 본 적이 없다"고 걱정을 했다. 그러면서 머리에서부터 전체 윤곽은 밝게 그리고 얼굴과 옷자락은 전체적으로 어둡게 처리했고 그 속에서 더 어둡고 밝게 처리했다는 아들의 말소리에 나는 안심이 되었다. 그래, 잘 했어 아주 잘 했어. 빨리 집에 와라. 우리 모자는 전화를 끊었다.

현재, 큰아들은 자기전공에 맞게 문화재청 소속 고궁박물관에서 학예관으로 일에 열중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아들의 실기고사 시간에 합격을 소원하면서 써내려간 그 순간에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 글을 쓰던 그 3시간동안에 나는 간절함도 합격이라는 개념도 없었다. 꼭 합격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없었다. 쓰고 또 쓰고 계속 쓰고 그냥 썼을 뿐이었다. 그냥 아무런 마음이 없는 빈 마음의 상태였던 것 같다.

지금 말하자면 공(空), 비어있는 허공, 허공이라는 개념도 없는 그저 공, 그 자체였지 않았을까? 말이 되나? 하여튼 간절함이 간절할 때 그것은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간절함 그 자체이지 않을까? 그것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아무리 간절함을 강조해도 거기에 이를 수는 없는 그 것? 마음이 아프고 울고 하는 것은 아직 간절함이 덜 한 것이지 않을까? 간절해 봐야 간절함을 알게 되지 않을까? 글쎄?

社說

리스트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에 상임고문 등으로 활동(?)했다는 380여 스님의 명단을 입수했다. 본지는 자성과 쇄신의 5대결사를 위한 충정, 불교계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발원에서 리스트 공개를 고심했다. 물론 여러 채널로부터 다양한 보도 자제 요청도 있었다. 하지만 리스트의 실명 공개가 불교계에 긍정적인 결과만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사실을 한번 더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고백을 조금 더 기다리고자 유보를 결정했다.

명단에는 조계종·태고종·천태종·진각종 등의 핵심인사들이 있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스님들이 상임고문 혹은 고문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명단이 공개되자마자 의례 그렇듯 명단의 참·거짓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리스트'와 콤비를 이루는 '모르쇠'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명단이 회자되자 일부에서는 법적 대응 운운하는 소리도 들린다.

분명한 것은 리스트에 언급된 인사들이 거센 반응을 보일수록 종도들의 마음은 더 멀리 떠날 것이란 사실이다. 리스트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수록 불교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비웃음이 커질 것도 자명하다.

종교인이 선거캠프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사회참여'의 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회참여의 대상이 잘못됐다면, 방법이 아니었다면, 대중의 비판이 따른다면 진참회(眞懺悔)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종교인이다.

자성과 쇄신의 5대결사가 명진 스님의 말처럼 쇼가 아니라면, 진정으로 자성과 쇄신을 하겠다면 '리스트'를 어떻게 불교 혁신으로 회향할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리스트의 온전한 공개를 기다리며 반야의 취모검을 매만졌을 불자들에게 리스트 공개를 미룬 본지부터 참회한다.

뒷심 키울 수 없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스님들이 자취를 감췄다.

'4대강 개발 저지 4대 종단 연대회의'가 3월 1일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지만, 불교계만 불참했다는 것. 연대회의는 4월 8일 또 다시 사업 반대를 위한 공동 기도회를 준비 중이지만 불교계의 참여가 미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교계는 지난해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목소리를 한껏 키워왔다. 이 과정에서 문수 스님을 잃었고, 수경 스님을 보냈다.

그런데 2011년 3월 24일 현재, 공동기도회 참석을 밝힌 스님의 숫자는 50명도 채 안 된다.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식적으로 밝혔던 조계종으로서는 참담한 숫자이다. 이쯤되면 4대강 사업을 향한 조계종의 변심을 의심하거나, 역량을 비웃을 만한 수준이다.

지금,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와 함께 민족문화수호운동이 진행 중이다. 1080배만 세 번 했다. 지난주만 해도 범어사, 통도사가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를 치뤘다. 앞으로도 10여 곳의 사찰이 결의대회를 치룰 예정이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반대의 추억 만큼은 민족문화수호운동에서 되풀이되지 않기를 삼보 전에 간절히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대 구 053-566-1116 울 산 052-260-1037
부 산 051-441-0111 경 남 055-932-5877 제 주 064-755-7588 전북익산 063-854-1060
지리산 063-635-5112 해운대 051-757-999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과정
(1) 초급과정(3개월)
◆ 조석예불
◆ 사시불공, 삼보통청, 각단불공
◆ 시달림
(2) 중급과정(3개월)
◆ 바라춤 : 요잡(막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시련, 대령, 관욕)
◆ 사 물 : 태징, 북, 요령, 목탁
(3) 연구과정(6개월) - 초, 중급 이수자에 한함
◆ 가지게,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관욕바라, 신중작법봉청39위, 욕건이, 다게작법, 운심게작법, 법고춤, 괘불이운
■ 강 주 : 교무국장 성우스님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불교미술학인모집
◐ 교육지표 :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불모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다.
■ 교육과정(2년제)

1-1	1-2	2-1 2-2
• 불화기초(Ⅰ) 시왕초 등긋기	• 불화기초(Ⅱ) 보살초 등긋기 사천왕초 등긋기	불화 그리기 불화실습(Ⅰ,Ⅱ)
	• 채색 기법	
		• 불교미술이론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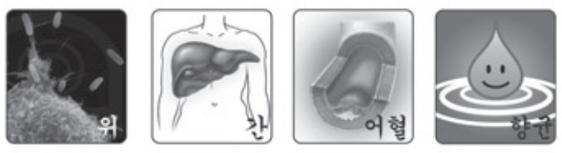
■ 단청기법을 응용한 작품활동도 가능
■ 강 주 : 혜경스님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5시
※ 공통 사항
■ 개강일시 : 2011년 3월 3일(수시모집가능)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3개월 30만원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종무원(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토종참옻은 우리 체질에 잘 맞으며, 뛰어난 효능이 입증되어 아주 오래된 산삼의 효과를 능가한다고 하여 옛부터 한방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뼈속이나 무릎이 시린 통증을...

본래 옻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가을걷이가 끝난 초겨울에 옻닭을 해 먹고 부유한 층에서는 개 또는 흑염소를 넣어서 탕으로 먹었다. 왜냐하면 옻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손발이 시리고 저린 증상을 없애주며 뼈속이나 무릎이 시린 통증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토종참옻을 민간비법으로 활용하여 겨울을 건강하게 지내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또한 시장이나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 하시는분들이 겨울에 옻을 복용하면 몸이 따뜻하고 손발이 따뜻하게 되어 내의를 한벌 덧입은 것 같이 몸이 훈훈하여 추위를 타지 않게 되어 한 겨울에도 감기몸살 걱정없이 건강하게 지낼수 있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옛부터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이라 하였습니다.

20세기의 기인으로 인산죽염의 창시자 김일훈선생은 저서 『구세심방』과 『신약』에서 "옻은 산삼과 비견할 만큼 중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옻이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어혈제거, 위장질환, 여성의 생리불순 등 민간요법에 이를 이용한 처방이 전래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우루시올 성분이 항암, 항산화(노화방지) 및 항균활성이 강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형성 억제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 전이를 억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확인되는 등 옻은 옛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 촉진, 위산과다, 생리통 등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의 힘을 길러줘" (상지대 한의대 김명동교수)

수술중 마취에서 생긴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의 힘을 강하게 해 주는데 옻을 사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근육과 뼈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와 체육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체력증진 효과도 경험하였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숙취, 두통, 피로와 설사에 사용하였고, 중년남성의 스트레스와 과음으로 인한 양기부족에 참옻을 사용하여 발기부전의 치료효과가 매우 좋았다. 또한 30대 후반의 한 남성의 경우 여름에도 난로를 켜고 지내야 될 정도로 무릎이 시렸는데 참옻을 2개월 반정도 복용시키자 회복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임산부의 산후관절 시림증상을 치료하는데 응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利小將(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痛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재적체) : 병명어리를 없애줌.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 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12월 2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FDA 미국식품안전청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지정상품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초쯤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건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파워시 60봉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일가족 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은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2일후 아침에 숙변이 엄청나게 많은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입맛할정도 복용하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서서히 가고 아프던 허리가 좋아지고 3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봉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꺽인 수면제도 먹지 않고 깊은잠을 잘수있고 아래로 처지던 고기나 일가족 음식을 아름대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허리도 확 좋아져서 옻이 마치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너와 홍은희를 만나게되어 모든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담당의사도 놀란 간경화 수치의 정상화 최○○ 경기도 분당 60세/전직 아나운서

간경화 수치 1280 으로 서울대병원에서 1개월을 치료하니 간수치가 900으로 떨어졌으나 더 이상은 정상이 없어 돌아왔 후 그주아다 통원치료를 했지만 간수치 700인 상태에서 더 이상은 정상이 없었습니다. B 방송 TV 방송을 보고 제주에서 선물을 해보지만 형편소자 상회하지 않았지만 설물해 숨 붙은 생의로 변경하기 시작했지 (0일정도 지나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3개월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간수치가 120으로 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담당의사조차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 주아다 가진 병원을 3개월에 1병으로는 아주 들에 대었으며 혈액의 간수치는 65로 도 돌아왔으며 혈당도 4에서 3.5로 수치됨.
더욱이나 상기한 것은 10년동안 지로 복가능 했던 바톨유증이 완치 되었으며 면역력이 약해짐에도 감염되었던 대상포진 흔적 사라졌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네이경원에서 아침이 같은 표진대로 옻계의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2010년 8월 7일부터 마시 시작하였습니다.
처변한 대변으로와 나면전. 1년정 심하게 넘어져 왼쪽 옆구리 갈비뼈와 엉치에 금 타박상을 입어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옻가네 참옻진액을 마시면서 통증이 서서히 없어 지고 서서히 아래쪽 병원 에가서 진통주사까지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꾸준히 복용한 결과 거짓말처럼 나아졌습니다.
지금 정상이 아닌 정상 정상이 되어 나았고 신체모이 소망께 엉치 대었는데 10일 정도 복용하셨니 거의 다 나아졌습니다.
옻가네 참옻진액 복용하게 되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진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며 간편한 포장의 참옻진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옻가네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40-70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